



# 농업·농촌경제동향

2008 겨울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국내외농업동향/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농업정보화팀

(김연중 ykim@krei.re.kr/송성환 song9370@krei.re.kr/승준호 jhseung@krei.re.kr)

연락처: 3299-4267 / 팩스: 3299-4363

## < 목 차 >

### I. 국제 경제 및 농축산업 동향

1. 경제성장 .....	1
2. 환율 및 원유가격 .....	6
3. 세계 농업·농정 동향 .....	9
4. 세계 곡물 전망 .....	13

### II. 국내경제 동향

1. 경기 .....	26
2. 소비 및 투자 .....	29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	31
4. 고용 .....	32
5. 물가 .....	33
6. 금융 및 외환 .....	38

### III. 농촌경제 동향

1. 농촌물가 .....	41
2. 농업인력 .....	44
3. 농산물 수출입 .....	45

**IV.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1. 식량작물 .....	52
2. 채소류 .....	56
3. 과일 .....	73
4. 과채 .....	88
5. 축산 .....	100

**V. 특별주제**

1. 미국산 중립종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이유 .....	113
2.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 주요결과 .....	121

## 【요약】

### I. 국제 경제 및 농축산업 동향

#### □ 국제경제동향

- 세계 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들이 경기침체에 진입하고, 중국 등 신흥 개도국의 성장세도 둔화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됨.
- 미국경제는 3/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대다수 경제지표들의 부진이 심화됨.
- 중국 경제는 수출 둔화 등으로 산업생산 둔화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생산자물가 하락에 따라 소비자물가 반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됨.
- 일본 경제는 수출부진과 설비투자 감소로 인하여 2001년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 유로지역 경제는 내수위축과 수출둔화로 인하여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 미국 경제지표들의 부진한 실적과 주요국 정책 담당자들의 경기 우려 발언으로 글로벌 증시의 불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안전자산으로서 엔화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됨.
- 국제유가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투기자금 이탈 및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석유수요 감소 전망 등으로 크게 하락함.
- 11월중 기타원자재가격(로이터상품가격지수 기준)은 하락세를 지속함 (10월 -15.7% → 11월 -4.8%).

## □ 세계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

- OECD 회원국 전체의 %PSE는 1986~1988년 평균 37에서 2007년 23 (잠정치)으로 감소하였음. 주요 회원국의 %PSE는 터키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였는데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미국 등의 %PSE가 크게 감소하였고,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은 PSE 비중 감소가 비교적 완만하게 이루어졌음.
- 미국의 농업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다른 직업과 비교하여 열악하며 미국 내 고용농업인 중 외국인 비율이 40% 이상인 현실에서 미국 내 농업 인력 정책변화는 해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유럽의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은 세 가지 주제로 정보를 제공하여 네트워크 회원국들의 안전성 관리를 지원하고 있음.
- 이집트의 쌀 수출은 정부의 독점으로 이루어졌으나 1992년 초 민간수출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2000년대 이후 평균 수출비중은 25%에 이르고 있으며 WTO의 UR타결은 이집트 수출시장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됨.
- 3/4분기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6억 9백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4/4분기에는 이같은 비율이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008년 수출량은 전년보다 28% 증가한 18억 4,100만 톤으로 전망되며, 내년 수출량은 멕시코 및 기타시장의 수요감소로 올해보다 4% 증가에 그친 19억 2,000만 톤으로 전망됨.
- 2008/09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22억 1,59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쌀, 소맥 등의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특히 소맥 생산량은 전년대비 12.0%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II. 국내 경제 동향

- 2008년 1~3/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하여 전년보다(연간 5.0%) 증가세가 둔화됨. 제조업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건설업도 계속 부진함.
- 2008년 1~3/4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에 그쳐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2008년 1~3/4분기 총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 등의 증가세 축소로 전년 동기대비 11.2% 증가하여 증가세가 둔화하였음. 총수입도 전년 동기대비 8.8% 증가하여 증가세가 축소되었음.
- 2008년 1~3/4분기 농림어업은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하였고, 제조업은 8.0% 증가함. 제조업은 석유화학, 산업용 기계 등이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이 부진하였음.
- 2008년 3/4분기 소비재 판매는 승용차 판매 감소로 인하여 전년 동기대비 1.1% 증가하여, 전분기 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
- 2008년 3/4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7.1% 증가하여 1,150억 달러를 기록함. 11월 원자재 수입은 1~10월간 수입증가세(45.2%)보다 크게 둔화된 7.7%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자본재와 소비재는 감소세를 기록함.
- 2008년 11월 취업자는 내수부진, 수출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0.3% 증가한 23,816천명에 그쳐 고용부진이 심화됨.

-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0.7로 전년 동월대비 4.5% 상승하였으나, 10월 보다는 0.3% 하락함. 10월에 비해 휘발유, 경유, 국제항공료 등이 하락하면서 교통부문이 4.7% 하락하였고, 주류·담배, 통신, 기타잡비 부문은 전월과 비슷한 반면, 교양·오락, 의복·신발, 가구집기·가사용품 등 나머지 부문은 전월대비 상승함.
-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1.8로 전년 동월대비 7.8% 상승하였으나, 10월 보다는 2.3% 하락함.
- 2008년 3/4분기 협의통화(M1, 평잔)는 2/4분기까지 감소세가 유지되었으나, 3/4분기 들어 증가세로 전환됨.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분기 15.3%에서 14.7%로 증가세가 소폭 감소함.
- 8월 이후 원/달러 환율은 1,090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1월말에는 1,463원까지 상승함.

### Ⅲ. 농촌경제 동향

- 4/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중 양념채소류는 3/4분기보다 상승하여 강세를 보인 반면, 나머지 농산물은 하락하여 약세를 나타냄.
- 2008년 4/4분기 곡물 가격 중 쌀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상승한 반면, 보리는 하락하여 약세를 나타냄.
- 2008년 4/4분기 채소 중 배추, 무 등 엽근채소는 전년 동기보다 하락하였고, 전분기보다도 낮아져 약세를 나타냄. 고추, 양파는 전년 동기와 전분기보다 높아져 강세를 나타냄.
- 2008년 4/4분기 과일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대비 하락하여 약세를 나타냄.

- 2008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보다 상승하였으나, 10월보다는 하락하여 약세를 나타냄.
- 2008년 11월 농림업 취업자수는 1,819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7% 증가하였으나, 산업내 비중 축소로 인한 감소기조가 지속되면서 10월보다는 0.1% 감소함.
- 2008년 1~11월 농림축산물 수출은 총 2,570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함.
- 농림축산물 중 농산물 수출액은 2,267백만 달러로 채소, 화훼, 김치, 과일, 등 신선농산물의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13.0% 증가함.
- 2008년 1~10월 가공농림축산물 수출액은 면류, 전통주, 간장 등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14.2% 증가한 1,758백만 달러임.
- 2008년 1~11월 농림축산물 수입은 총 17,11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6.0% 증가함.
- 2008년 1~11월 중국으로의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293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3% 증가하였음.
- 2008년 1~11월중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물량 기준으로 49.0%, 금액기준으로 15.3% 감소함. 이는 작년보다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에서 기인함.
- 2008년 1~10월 대일 농산물 수출은 579.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7% 증가하였음.





## I. 국제 경제 및 농축산업 동향<sup>1)</sup>

### 1. 경제성장

- 세계 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들이 경기침체에 진입하고,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성장세도 둔화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됨.
  - IMF 등 국제기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주요 선진국들의 (-) 성장세가 이어진 후, 내년 말부터 점차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 IMF의 2009년 성장률 전망(%) : 세계(2.2), 미국(△0.7), 유로(△0.5), 일본(△0.2)

#### 1.1. 미국경제

- 미국경제는 3/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대다수 경제지표들의 부진이 심화됨.
  - 3/4분기 소비(잠정치) 등이 속보치보다 하향조정(소비: △3.1%→△3.7%, 기업고정투자: △1.0%→△1.5%)되면서 성장률도 하향조정(△0.3%→△0.5%)
  - 비농업취업자수가 9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실업수당 신청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용상황이 급속히 악화됨. 10월 신규 실업수당 신청은 주당 평균 47.8만명으로 2001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임.
  - 유로·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위축으로 수출 증가세도 둔화됨.
- \* 수출증가율(전년동월대비,%): 4월(18.8)→ 5월(17.4)→ 6월(19.9)→7월(20.1)→8월(16.3)→9월(8.8)
- 주택시장은 모기지 대출신청 감소, 대출기준 강화, 자금공급 축소 등으로 위축되면서 주택가격 하락폭이 다시 커지는 모습임.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연중 연구위원(yjkim@krei.re.kr), 승준호 연구원(jhseung@krei.re.kr)이 작성하였음.



- \* Case-Shiller주택가격지수(전월대비,%): 5월△0.8 → 6월△0.5 → 7월△0.9 → 8월△1.0 → 9월△1.8
- FRB는 11월 26일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8천억 달러를 추가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함.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미 국	2006	2007		2008					
	연간	연간	4/4	1/4	2/4	3/4	8월	9월	10월
실질GDP(전기비연율,%)	2.8	2.0	△0.2	0.9	2.8	△0.5	-	-	-
- 개인소비지출	3.0	2.8	1.0	0.9	1.2	△3.7	-	-	-
- 기업고정투자	7.5	4.9	3.4	2.4	2.5	△1.5	-	-	-
- 주거용건축투자	△7.1	△17.9	△27.0	△25.1	△13.3	△17.6	-	-	-
산업생산(전기비,%)	2.2	1.7	0.3	0.4	△3.1	△7.6	△1.2	△3.7	1.3
소매판매(전기비,%)	5.8	4.0	0.9	0.0	0.9	△1.2	△0.7	△1.3	△2.8
비농업취업자수(전기비,천명)	2,099	1,096	241	△247	△214	△478	△127	△284	△240
신규주택판매(전기비,%)	△18.1	△26.2	△10.9	△13.8	△7.4	△9.0	△10.1	0.7	△5.3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3.2	2.9	4.0	4.1	4.4	5.3	5.4	4.9	3.7

자료: 기획재정부, 그린북

- 중국 경제는 수출 둔화 등으로 산업생산 둔화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생산자 물가 하락에 따라 소비자물가 반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됨.
- 9월 이후 4차례에 걸쳐(9.15, 10.3, 10.29, 11.26)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 및 성장둔화 억제에 위한 노력을 강화함.
- \* 대출기준금리: 7.47%→7.20%(9.15)→6.93%(10.3)→6.66%(10.29)→5.58%(11.26)
- 중국의 3/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9.0%로 하락 하였는데 이는 올림픽 전후 공장 가동 중단 및 기업의 생산조절 등으로 생산이 크게 부진하였던 점에서 기인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중 4.9%까지 떨어져 2007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산업생산 증가율도 10월 8.2%를 기록하면서 하락세가 지속됨.
- 수출은 3/4분기 들어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었으나 4/4분기 이후에는 주요선진국의 경기침체 등에 따라 둔화 추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중 국	2006	2007		2008					
	연간	연간	4/4	1/4	2/4	3/4	8월	9월	10월
실질GDP(전년동기비,%)	10.7	11.9	11.2	10.6	10.1	9.0	-	-	-
고정자산투자(전년누계비,%)	24.5	25.8	25.8	25.9	27.1	27.6	27.4	27.6	27.2
소매판매(전년동기비,%)	13.7	16.8	19.0	20.6	22.2	23.2	23.2	23.2	22.0
산업생산(전년동기비,%)	16.6	18.5	17.5	16.4	15.9	13.0	12.8	11.4	8.2
수출(전년동기비,%)	27.2	25.7	25.7	21.4	22.4	23.1	21.1	21.5	19.2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5	4.8	6.6	8.0	7.8	5.3	4.9	4.6	4.0
생산자물가(전년동기비,%)	3.0	3.1	4.4	6.9	8.3	9.1	10.1	9.1	6.6

자료: 기획재정부, 그린북

- 일본 경제는 수출부진과 설비투자 감소로 인하여 2001년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 10월에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생산, 소비 등이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우려가 증가됨.
  - 과거와 달리 수출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해외수요 감소에 의한 경기침체는 그 깊이 이전보다 확대되고 기간도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
  - 광공업 생산이 수출부진으로 인하여 금년 들어 3분기 연속 감소하였으며 10월에도 감소세가 확대됨.
  -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은 경기대책 마련, 금리인하 등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과도한 재정적자, 낮은 금리수준 등으로 정책운용 여지 및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됨.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일 본	2006	2007		2008					
	연간	연간	4/4	1/4	2/4	3/4	8월	9월	10월
실질GDP(전기비,%)	2.5	1.7	0.4	0.6	△0.9	△0.1	-	-	-
광공업생산(전기비,%)	4.5	2.8	0.9	△0.7	△0.8	△1.3	△3.5	1.1	△3.1
소매판매(전년동기비,%)	0.1	△0.1	0.8	1.8	0.2	0.8	0.7	△0.3	△0.6
수출(전년동기비,%)	14.6	11.5	10.0	6.0	1.8	3.2	0.3	1.5	△7.7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3	0.0	0.5	0.9	1.4	2.2	2.1	2.1	1.7

자료: 기획재정부, 그린북

- 유로지역 경제는 내수위축과 수출둔화로 인하여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 ECB는 11월 17일 기준금리를 0.5%p 인하(3.75%→3.25%)하였으며, EU 집행위는 11월 26일 향후 2년간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해 2,000억 유로를 투입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 3/4분기 산업생산 감소세가 지속되어 전기대비 1.0% 하락하였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부터 다소 둔화됨.
  - 경기부양대책의 실행 과정에서 재정수지 적자의 심화, 회원국간 정책 공조 결여, 강력한 재정정책의 추진 곤란, 국채발행 급증의 부작용 등이 주요 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유 로	2006	2007		2008					
	연간	연간	4/4	1/4	2/4	3/4	8월	9월	10월
실질GDP(전기비,%)	2.8	2.7	0.4	0.7	△0.2	△0.2	-	-	-
산업생산(전기비,%)	4.0	3.4	0.0	0.2	△0.6	△1.0	0.9	△1.7	-
소매판매(전기비,%)	1.6	1.0	△0.7	△0.3	△0.8	0.0	0.1	0.0	-
수출(전년동기비,%)	11.6	8.5	5.6	6.5	7.4	5.1	△3.3	9.1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2	2.1	2.9	3.4	3.6	3.8	3.8	3.6	3.2

자료: 기획재정부, 그린북



##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전 세계	4.8	5.1	5.0	3.7	2.2
선진국	2.5	3.0	2.6	1.4	△0.3
미국	3.1	2.8	2.0	1.4	△0.7
유로지역	1.5	2.8	2.6	1.2	△0.5
독일	0.8	3.0	2.5	1.7	△0.8
프랑스	1.7	2.2	2.2	0.8	△0.5
일본	1.9	2.4	2.1	0.5	△0.2
영국	1.8	2.8	3.0	0.8	△1.3
개도국	7.5	7.9	8.0	6.6	5.1
아프리카	5.6	6.1	6.1	5.2	4.7
중앙동유럽	5.6	6.7	5.7	4.2	2.5
러시아	6.4	7.4	8.1	6.8	3.5
아시아	9.2	9.8	10.0	8.3	7.1
중국	10.4	11.6	11.9	9.7	8.5
중동	5.4	5.7	6.0	6.1	5.3
중남미	4.6	5.5	5.6	4.5	2.5

주: 1. PPP(purchasing power parity)방식의 추정치

2. 아시아 지역에 대한 분류에서 IMF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제외(선진국에 포함)함.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08, October 2007.



## 2. 환율 및 원유가격

### 2.1. 환율

- 미국 경제지표들의 부진한 실적과 주요국 정책 담당자들의 경기 우려 발언으로 글로벌 증시의 불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안전자산으로서 엔화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됨.
  - 유로화에 대해서는 강세요인(ECB의 금리 인하, 안전자산으로서의 미 달러화 수요 증가)과 약세요인(EU의 경기부양 공조 기대)이 엇갈리면서 보합세를 보임.
  - 엔화에 대해서는 해외증시 부진에 따른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으로 약세를 지속함.
  - 12월 23일 현재 엔/달러 및 유로/달러 환율은 각각 91.0엔, 0.718유로임.

환율 동향 (기말 기준)

	2005	2006	2007	2008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23
엔/달러	117.8	119.1	111.7	107.9	108.8	106.1	98.5	95.5	91.0
유로/달러	0.844	0.758	0.685	0.641	0.681	0.710	0.786	0.788	0.718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 2.2. 원유가격

- 국제유가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투기자금 이탈 및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석유수요 감소 전망 등으로 크게 하락함.
  - 9월 하순 이후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이어지고 있는 국제 원유가격의 빠른 하락세에 이어서 휘발유 국제가격도 급락하는 추세를 보임. 특히 10월 하순 이후부터 휘발유 가격 하락세가 유가 하락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11월 6일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원유와 휘발유 가격의 역전 현상이 나타남. 이와 같은 현상은 2009년 1/4분기까지 때때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12월 19일 현재, WTI (텍사스 중질류), Brent(북해산), Dubai(중동산) 유가는 각각 배럴당 34.18달러, 40.02달러, 40.46달러임.

### 원유 가격 동향



### 원유 가격 동향

단위: 달러/배럴

	2006	2007	2008		
			10월	11월	12.19
WTI (텍사스 중질류)	60.85 (△0.3)	72.21 (18.7)	76.62 (△10.8)	57.29 (39.5)	34.18 (62.6)
Brent (북해산)	58.96 (1.1)	72.62 (23.2)	72.00 (13.0)	52.69 (43.3)	40.02 (56.0)
Dubai (중동산)	56.48 (6.2)	68.34 (21.0)	67.65 (12.4)	49.90 (42.5)	40.46 (52.8)

주: 월평균가격, ( ) 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간 국제유가 및 시장 동향



### 2.3. 기타원자재가격

- 11월중 기타원자재가격(로이터상품가격지수 기준)은 하락세를 지속함(10월 -15.7% → 11월 -4.8%).
  - 옥수수(-13.0%)는 바이오연료용 수요 둔화 가능성으로 하락하였으나 소맥(1.2%)은 주요 생산국의 생산부진 전망으로 상승함.
  - 동(-12.3%)은 LME 재고 증가로, 알루미늄(-13.2%)은 생산량 증가 발표 및 자동차 산업 부진 장기화 가능성으로 하락함.
  - \* IAI(International Aluminium Institute)는 10월 세계 알루미늄 생산량이 전월대비 3.6%(전년동월대비 2.4%) 증가하였다고 11월 20일 발표함.
  
- 금 가격(12.9%)은 금융시장 불안 지속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경향 강화 및 수요 증가 발표로 상승함.
  - \* WGC(World Gold Council)는 11월 19일, 3/4분기 세계 금수요가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발표함.

기타원자재가격 동향

단위: (전기말대비, %)

	2006	2007	2008		
			9월	10월	11월
Reuters상품가격지수	24.0	16.3	△10.8	△15.7	△4.8
옥수수	80.9	16.7	△14.2	△17.6	△13.0
소맥	47.7	76.6	△12.7	△21.1	1.2
원면	3.7	21.0	△17.8	△20.2	3.3
동	38.9	5.3	△15.4	△35.8	△12.3
알루미늄	24.2	△16.7	△10.8	△16.3	△13.2
금	23.2	31.0	4.8	△16.8	12.9

자료: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 3. 세계 농업·농정 동향<sup>2)</sup>

#### 3.1. OECD의 농업 지지정책 지표

- OECD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매년 회원국들의 농업정책과 관련된 이전 지출액 또는 지지액(monetary transfer (support))을 계측하여 발표해 왔으며 이를 위해 OECD는 이전지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를 개발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지표가 생산자 지지 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임.
- OECD에서 매년 발표하는 이 지표는 농업에 대한 정부 지지와 관련된 자료 중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하고 공신력 있는 유일한 지표임.
- 지지액은 일반적으로 정부 회계상의 예산지출, 포기된 예산 수입의 추정액, 농업생산물의 국내 및 국제 가격 차이에 대한 추정액을 포함하고 있음.
- OECD 회원국 전체의 %PSE는 1986~1988년 평균 37에서 2007년 23 (잠정치)으로 감소하였음. 주요 회원국의 %PSE는 터키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였는데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미국 등의 %PSE가 크게 감소하였고,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은 PSE 비중 감소가 비교적 완만하게 이루어졌음.
- PSE 자료들은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농업생산, 무역, 소득,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OECD 분석모델들의 기본 자료로 이용됨.

2) 이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세계농업뉴스」 제98호~제99호(동향분석실 이명기 전문연구원(mklee@krei.re.kr)등 작성)에서 발췌하였음.



### 3.2. 2008년 미국 고용농업인 현황

- 고용 농업인은 미국 전체 농업노동력의 1/3을 구성하고 있고, 특히 과일 및 채소와 같은 노동 집약적 농업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고용농업인에 대한 수요는 농업 생산의 구조변화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농식품 소비에 따라 달라지고 있고, 농업종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약 200만 명의 가족농과 약 100만 명의 고용농업인만 남게됨.
-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농업 부문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게 되자 멕시코와 Bracero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늘어나는 미등록 이민자와 농업의 기계화로 인한 농업인력 수요의 감소에 따라 1964년 폐지함.
- 농업노동은 물리적인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많으며 고용농업인 절반 이상이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남. 고용농업인의 인종 및 민족구성은 최근 10년간 현저하게 변화했는데, 히스패닉계 농업인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함.
- 미등록 이민 상태인 농업노동자는 불공평한 노동조건과 국외 추방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며, 고용자는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을 받기 위해 등록 이민자를 선호하게 됨.
- 아직까지 농업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다른 직업과 비교하여 열악하며 미국 내 고용농업인 중 외국인 비율이 40% 이상인 현실에서 미국 내 농업 인력 정책변화는 해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3.3. 유럽연합의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

-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은 식품·사료 사고를 탐지하였을 때 식품 및 사료 관리 기관들로 하여금 대응 수단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교환하여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임.



- 유럽연합은 2002년 1월 Regulation(EC) N° 178/2002를 통해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식품·사료 등에서 위해 가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최초로 발견한 회원이 이를 집행위원회에 통보함.
-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은 세 가지 주제로 정보를 제공하여 네트워크 회원국들의 안전성 관리를 지원함.
- 정보 통보는 시장에 출하된 식품이나 사료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였지만 다른 회원국들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경우 발효함.
- 국경 반송은 식품·사료 적송품이 역외 국경(external borders of the EU) 검역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경우 발효됨.
-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은 역외 원산국에 통보함으로써 발견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3.4. 이집트 자포니카 쌀 산업

- 이집트의 쌀 재배면적은 1980년 이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재배면적과 단수증가에 힘입어 생산량은 증가함. 1980년 135만 7천톤이던 생산량은 2007년 221만 톤으로 63% 증가함.
-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출량 증가가 두드러져 1995년에서 2004년까지 10년간 224% 증가함. 이처럼 쌀 수출이 증가한 것은 수출보조금과 품작의 영향이 크게 작용함.
- 1991년 본격적인 시장자유화 정책으로 쌀 가격은 시장 수급에 의해 결정되었고 농판가격, 선택적 유통가격, 생산비가 같이 상승하기 시작함.



- 농업생산 분야의 개혁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는데, 특히 농업생산 및 신용프로젝트는 벤치마킹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1991년부터 쌀 유통체계가 바뀌었는데, 정부주도의 유통에서 자유시장으로의 전환이 일어나 쿼터제가 폐지되었고 쌀 농가는 시장에 자유롭게 쌀을 유통시킬 수 있었음.
- 쌀 수출은 정부의 독점으로 이루어졌으나 1992년 초 민간수출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2000년대 이후 평균 수출비중은 25%에 이르고 있으며 WTO의 UR타결은 이집트 수출시장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됨.

### 3.5.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 3/4분기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6억 9백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4/4분기에는 이같은 비율이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008년 수출량은 전년보다 28% 증가한 18억 4,100만 톤으로 전망되며, 내년 수출량은 멕시코 및 기타시장의 수요감소로 올해보다 4% 증가에 그친 19억 2,000만 톤으로 전망됨.
- 젓소 사육두수와 두당 산유량 증가로 3/4분기 원유 생산량은 다소 증가함. 내년에 젓소 사육두수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료비가 크게 하락하면서 두당 산유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9년 원유 생산량은 2008년보다 1% 증가한 1,915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생산량 증가와 국내외 유제품 수요 감소로 내년 유제품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보임.
- 도계수수 감소로 4/4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2007년 동기보다 1.5% 감소한 91억 5천만 파운드로 추정되며, 3분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3.5% 증가한 94억 5천만 파운드임. 이는 도계수수가 1%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평균 생체중이 전년보다 2.1% 증가하였기 때문임.



#### 4. 세계 곡물 전망<sup>3)</sup>

- 2008/09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22억 1,59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쌀, 소맥 등의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특히 소맥 생산량은 전년대비 12.0%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2008/09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5,367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5억 6,964만 톤으로 전년대비 4.4%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이는 전년보다 약 1억 800만 톤 늘어난 수준임.
- 2008/09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도 전년보다 3.2% 증가한 21억 7,589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08/09년도에는 생산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2,50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보임.

#### 곡물의 세계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1	2008.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2,005.49	2,120.38	2,208.37	2,215.97	4.5	0.3
공 급 량	2,394.08	2,461.53	2,560.28	2,569.64	4.4	0.4
소 비 량	2,052.92	2,107.87	2,183.51	2,175.89	3.2	△0.3
교 역 량	259.91	269.45	264.28	261.38	△3.0	△1.1
기말재고량	341.16	353.67	376.77	393.75	11.3	4.5
기말재고율(%)	16.6	16.8	17.3	18.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5, Dec 11, 2008.

3) 이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세계농업정보”의 ‘세계 곡물수급 동향’(농산업 경제연구센터 성명환 연구위원(mhsung@krei.re.kr)작성)에서 발췌하였으며, 가격자료는 미 농무부(USDA)에서 매월 발표하는 「Rice Outlook」, Dec 12 2008에서 발췌하였음.



-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로 전년보다 3.0% 감소한 2억 6,138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8%가 될 것으로 전망됨. 2008/09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11.3% 증가한 3억 9,375만 톤으로 전망됨. 기말재고율은 2007/08년도보다 1.3% 포인트 높은 18.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 곡물의 수급추이

단위: 만 톤, %

연도	생산량	공급량 <sup>1)</sup>	소비량 <sup>2)</sup>	교역량	재고량	재고율
1980/81	142,934	175,707	144,922	21,199	30,785	21.2
1981/82	149,058	179,844	146,431	21,412	33,413	22.8
1982/83	154,126	187,539	148,415	20,034	39,124	26.4
1983/84	150,914	190,038	155,043	21,178	34,996	22.6
1984/85	167,066	202,062	159,189	21,815	42,873	26.9
1985/86	168,284	211,157	159,257	17,912	51,900	32.6
1986/87	170,389	222,289	164,934	19,140	57,356	34.8
1987/88	164,201	221,556	168,651	21,801	52,906	31.4
1988/89	159,008	211,913	166,754	22,709	45,159	27.1
1989/90	170,815	215,974	171,819	22,658	44,155	25.7
1990/91	181,009	225,164	175,502	21,722	49,663	28.3
1991/92	172,385	222,048	173,174	22,671	48,874	28.2
1992/93	179,640	228,514	176,166	22,649	52,348	29.7
1993/94	171,972	224,320	175,768	21,374	48,552	27.6
1994/95	176,110	224,662	176,845	21,638	47,817	27.0
1995/96	171,225	219,042	175,315	21,714	43,727	24.9
1996/97	187,254	230,981	182,311	21,951	48,670	26.7
1997/98	187,817	236,487	182,396	21,724	54,092	29.7
1998/99	187,555	241,647	183,590	22,072	58,057	31.6
1999/00	187,217	245,274	186,542	24,419	58,732	31.5
2000/01	184,276	243,008	186,326	23,355	56,682	30.4
2001/02	187,411	244,094	190,226	23,951	53,868	28.3
2002/03	182,085	235,953	191,293	24,136	44,660	23.3
2003/04	186,219	230,879	194,990	24,043	35,890	18.4
2004/05	204,447	240,275	199,470	24,112	40,814	20.5
2005/06	201,720	242,170	203,159	25,347	39,011	19.2
2006/07	200,549	239,408	205,292	25,991	34,116	16.6
2007/08(E)	212,038	246,153	210,787	26,945	35,367	16.8
2008/09(P)	221,597	256,964	217,589	26,138	39,375	18.1

주 : E(추정치), P(전망치)

1) 공급량=전년도 재고량+생산량, 2) 소비량=공급량-재고량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www.fas.usda.gov/psd>).



#### 4.1. 쌀

- 2008/09년도 쌀 생산량은 2007/08년보다 0.8% 증가한 4억 3,459만 톤 수준으로 전망됨.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 주요 쌀 생산국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의 생산량도 전년보다 3.2%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2008/09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4억 3,233만 톤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 4억 2,792만 톤보다 약 440만 톤 정도 많은 수준임.
- 2008/09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보다 1.6% 줄어든 2,988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9%가 될 것으로 전망됨. 수출량의 경우 베트남은 전년대비 9.5% 증가할 전망이지만 최대 쌀 수출국인 태국의 수출량은 5% 정도 감소가 예상됨. 전세계 쌀 수출량 중에서 태국이 31.8%, 베트남 17.4%, 미국이 11.3%를 차지하여 이들 3개국의 비중이 60.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1	2008.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420.60	431.14	434.28	434.59	0.8	0.1
공 급 량	496.28	506.52	512.67	513.18	1.3	0.1
소 비 량	420.90	427.92	432.06	432.33	1.0	0.1
교 역 량	31.30	30.37	29.85	29.88	△1.6	0.1
기말재고량	75.38	78.59	80.61	80.85	2.9	0.3
기말재고율(%)	31.3	18.4	18.7	18.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5, Dec 11, 2008.



주요국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1	2008.1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496.28	506.52	512.67	513.18	1.3	0.1
기초재고량	75.68	75.38	78.39	78.59	4.3	0.3
생산량	420.60	431.14	434.28	434.59	0.8	0.1
미국	6.24	6.31	6.51	6.51	3.2	0.0
태국	18.25	19.30	19.50	19.50	1.0	0.0
베트남	22.92	24.38	23.50	23.50	△3.6	0.0
인도네시아	35.30	35.80	36.25	36.25	1.3	0.0
중국	127.20	130.22	130.90	130.90	0.5	0.0
일본	7.79	7.93	8.00	8.00	0.9	0.0
수입량	28.22	27.08	26.78	27.37	1.1	2.2
인도네시아	2.00	0.50	0.80	0.80	60.0	0.0
중국	0.47	0.30	0.33	0.33	10.0	0.0
일본	0.68	0.70	0.70	0.70	0.0	0.0
소비량	420.90	427.92	432.06	432.33	1.0	0.1
미국	4.07	3.95	4.02	4.02	1.8	0.0
태국	9.78	9.60	9.50	9.50	△1.0	0.0
베트남	18.78	19.51	19.04	19.04	△2.4	0.0
인도네시아	35.90	36.55	36.85	36.85	0.8	0.0
중국	127.20	127.50	128.00	128.00	0.4	0.0
일본	8.25	8.15	8.23	8.23	1.0	0.0
수출량	31.30	30.37	29.85	29.88	△1.6	0.1
미국	2.92	3.45	3.42	3.39	△1.7	△0.9
태국	9.56	10.00	9.50	9.50	△5.0	0.0
베트남	4.52	4.75	5.20	5.20	9.5	0.0
기말재고량	75.38	78.59	80.61	80.85	2.9	0.3
미국	1.27	0.94	0.81	0.75	△20.2	△7.4
태국	2.51	2.22	2.73	2.73	23.0	0.0
베트남	1.39	1.91	1.47	1.47	△23.0	0.0
인도네시아	4.61	4.36	4.56	4.56	4.6	0.0
중국	35.92	37.94	39.87	39.87	5.1	0.0
일본	2.41	2.69	2.96	2.96	10.0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5, Dec 11, 2008.



-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2.9% 증가한 8,085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2008/09년도 기말재고율은 18.7%로 전년도보다 약 0.3% 포인트 상승될 전망이다. 미국의 재고량은 75만 톤으로 전년대비 20.2%나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도 23.0% 감소될 전망이다. 반면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의 재고량은 전년대비 각각 23.0%, 4.6%, 5.1%, 10.0% 늘어날 전망이다.

###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주요 쌀 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품 종1	2005/06	2006/07	2007/08	2006/07	2007/08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중립종	484	538	694	584	1,036	1,061	1,119	1.113	1.102	1.102
장립종	301	320	551	368	756	709	701	634	574	553

주: 1. 중립종 쌀은 U.S. Medium California 1등급, 장립종 쌀은 태국산 100% Grade B.  
 자료: USDA, Rice Outlook, RCS-08K, Dec 12, 2008.

### 세계시장 쌀 가격

단위: 달러/cwt

월	2006/07		2007/08		2008/09	
	중립종	단립종	중립종	단립종	중립종	단립종
8 월	6.78	6.80	7.51	7.59	17.48	17.48
9 월	6.80	6.82	7.66	7.75	17.98	17.98
10 월	6.85	6.87	7.84	7.93	17.08	17.08
11 월	6.90	6.92	8.53	8.63	15.65	15.65
12 월	6.95	6.97	8.90	9.00	15.49	15.49
1 월	7.20	7.22	9.05	9.14		
2 월	7.75	7.91	9.91	9.85		
3 월	7.97	8.14	12.33	12.26		
4 월	7.97	8.14	15.14	15.06		
5 월	7.86	8.03	18.88	18.78		
6 월	7.79	7.95	17.92	17.82		
7 월	7.76	7.91	16.65	16.56		
평균 <sup>1</sup>	7.38	7.47	11.69	11.70	16.74	16.74

주: 1) 세계시장 주 단위가격 단순평균

2) 1 cwt = 100 pounds = 2.22 bushels = 0.0453 metric ton

자료: USDA, Rice Outlook, RCS-08K, Dec 12, 2008.



-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4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9월 사상 최고치인 톤당 1,119달러까지 상승한 이후 다소 하락하여 2008년 12월 톤당 1,102달러를 기록함.
- 장립종 쌀 국제가격은 1/4분기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6월 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12월 톤당 553달러를 기록함.

#### 4.2. 소맥

-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2008/09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전년보다 12.0% 증가한 6억 8,398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08/09년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7/08년보다 6.1% 증가한 6억 5,599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 EU, 러시아의 소비량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그중에서도 미국은 전년대비 21.2% 늘어날 전망이다.

소맥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1	2008.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96.20	610.60	682.37	683.98	12.0	0.2
공 급 량	743.84	737.61	801.76	803.37	8.9	0.2
소 비 량	616.83	618.25	656.51	655.99	6.1	△0.1
교 역 량	111.20	115.38	123.98	123.38	6.9	△0.5
기말재고량	127.01	119.36	145.25	147.35	23.5	1.4
기말재고율(%)	20.6	19.3	22.1	22.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5, Dec 11, 2008.



## 주요국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1	2008.1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43.84	737.61	801.76	803.37	8.9	0.2
기초재고량	147.64	127.01	119.39	119.39	△6.0	0.0
생산량	596.20	610.60	682.37	683.98	12.0	0.2
미국	49.32	56.25	68.03	68.03	20.9	0.0
호주	10.82	13.04	20.00	20.00	53.4	0.0
캐나다	25.27	20.05	27.30	28.61	42.7	4.8
EU27	124.87	119.43	150.60	150.90	26.4	0.2
중국	108.47	109.30	113.00	113.00	3.4	0.0
러시아	44.90	49.40	63.00	63.00	27.5	0.0
수입량	113.60	112.42	121.83	121.70	8.3	△0.1
EU27	5.14	6.93	5.00	5.00	△27.8	0.0
브라질	7.62	7.00	7.00	7.00	0.0	0.0
북아프리카	16.30	21.67	20.20	20.20	△6.8	0.0
파키스탄	0.07	1.49	2.50	2.50	67.8	0.0
인도	6.72	1.88	0.00	0.00	△100.0	0.0
러시아	0.86	0.34	0.40	0.40	17.6	0.0
소비량	616.83	618.25	656.51	655.99	6.1	△0.1
미국	31.04	29.00	35.44	35.16	21.2	△0.8
EU27	125.50	117.74	131.50	131.50	11.7	0.0
중국	102.00	104.00	107.00	107.00	2.9	0.0
파키스탄	21.90	22.40	22.60	22.60	0.9	0.0
러시아	36.40	37.70	43.50	43.50	15.4	0.0
수출량	111.20	115.38	123.98	123.38	6.9	△0.5
미국	24.73	34.40	27.22	27.22	△20.9	0.0
캐나다	19.43	16.12	18.50	19.00	17.9	2.7
EU27	13.87	12.23	19.00	19.00	55.4	0.0
기말재고량	127.01	119.36	145.25	147.35	23.5	1.4
미국	12.41	8.32	16.42	16.97	104.0	3.3
EU27	14.03	10.42	15.52	15.82	51.8	1.9
중국	38.45	40.96	44.99	44.99	9.8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5, Dec 11, 2008.

- 소맥의 국제 교역량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1억 2,338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08/09년도 미국의 소맥 수출량은 전년보다 20.9% 줄어든 2,722만 톤이지만 전체 수출량의 22.1%를 차지할 것으로



보임. 반면, 캐나다의 수출량은 전년보다 17.9% 늘어난 1,900만 톤, EU도 전년보다 55.4% 늘어난 1,900만 톤 정도 수출할 것으로 보임.

- 2008/09년 기말재고량은 1억 4,735만 톤으로 전년보다 23.5%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과 EU의 재고량이 전년대비 각각 104.0%, 51.8%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기말재고율도 지난해의 19.3%에서 22.5%로 3.2%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임.

### 4.3. 옥수수

- 미국,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2008/09년도 전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보다 0.8% 줄어든 7억 8,590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반면, EU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28.2%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2008/09년의 소비량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7억 8,98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멕시코, 중국의 소비량이 전년대비 각각 1.6%, 6.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세계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1	2008.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712.47	792.26	781.36	785.90	△0.8	0.6
공 급 량	837.09	901.08	907.83	913.70	1.4	0.6
소 비 량	728.27	773.28	797.71	789.87	2.1	△1.0
교 역 량	93.80	95.35	82.33	80.39	△15.7	△2.4
기말재고량	108.82	127.80	110.12	123.83	△3.1	12.5
기말재고율(%)	14.9	16.5	13.8	15.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5, Dec 11, 2008.



## 주요국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1	2008.1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837.09	901.08	907.83	913.70	1.4	0.6
기초재고량	124.62	108.82	126.47	127.80	17.4	1.1
생산량	712.47	792.26	781.36	785.90	△0.8	0.6
미국	267.60	332.09	305.32	305.32	△8.1	0.0
아르헨티나	22.50	20.85	18.00	18.00	△13.7	0.0
EU27	53.83	47.52	59.49	60.92	28.2	2.4
멕시코	22.35	22.65	24.00	24.00	6.0	0.0
동남아시아	16.81	18.69	18.45	18.45	△1.3	0.0
중국	151.60	152.30	156.00	160.00	5.1	2.6
수입량	91.01	96.48	80.43	79.69	△17.4	△0.9
이집트	4.83	4.15	4.30	4.30	3.6	0.0
EU27	7.06	13.50	2.00	2.00	△85.2	0.0
일본	16.71	16.61	16.50	16.50	△0.7	0.0
멕시코	8.94	9.56	9.00	9.00	△5.9	0.0
동남아시아	3.96	3.15	3.80	3.80	20.6	0.0
한국	8.74	9.32	7.20	7.20	△22.7	0.0
소비량	728.27	773.28	797.71	789.87	2.1	△1.0
미국	230.77	262.59	270.14	263.79	0.5	△2.4
EU27	62.30	63.00	60.50	60.50	△4.0	0.0
일본	16.50	16.50	16.50	16.50	0.0	0.0
멕시코	30.70	32.00	32.50	32.50	1.6	0.0
동남아시아	20.70	21.30	21.88	21.88	2.7	0.0
한국	8.83	8.64	7.30	7.30	△15.5	0.0
중국	145.00	149.00	158.00	158.00	6.0	0.0
수출량	93.80	95.35	82.33	80.39	△15.7	△2.4
미국	53.99	61.87	48.26	45.72	△26.1	△5.3
아르헨티나	15.31	15.00	10.50	10.50	△30.0	0.0
중국	5.27	0.55	0.50	0.50	△9.1	0.0
기말재고량	108.82	127.80	110.12	123.83	△3.1	12.5
미국	33.11	41.26	28.55	37.44	△9.3	31.1
아르헨티나	1.66	0.56	0.51	0.56	0.0	9.8
EU27	7.38	4.90	3.89	5.32	8.6	36.8
중국	36.60	39.39	36.99	40.99	4.1	10.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5, Dec 11, 2008.



- 2008/09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전년보다 15.7% 감소한 8,039만 톤이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2%가 될 것으로 전망됨. 전체 수출량 중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6.9%, 13.1%로 이들 두 국가가 전체 수출량의 70.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26.1%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르헨티나의 수출량도 30.0% 감소될 것으로 보임.
- 2008/09년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3.1% 감소한 1억 2,383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전년보다 약 500만 톤 정도 줄어든 수준임. 2008/09년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0.8% 포인트 줄어들어 15.7%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 4.4. 대두 및 대두박

- 2008/09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3,465만 톤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이 각각 9.2%, 9.3%, 20.0% 늘어날 것으로 보임.
- 2008/09년도 세계 대두 소비량은 2007/08년 2억 2,957만 톤보다 300만 톤 늘어난 2억 3,258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아르헨티나, 중국의 소비량이 각각 3.7%, 4.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3.0% 감소한 7,708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2.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세계 수출량은 미국이 37.1%, 브라질이 32.8%, 아르헨티나가 19.1%의 비중을 차지하여 이들 3국의 수출비중이 89.0%에 이를 것으로 보임. 미국과 브라질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각각 9.6%, 0.4% 줄어드는 반면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6.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대두의 기말재고량은 5,419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5,310만 톤과 비교하여 2.1%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약간 증가한 23.3%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1	2008.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237.33	220.86	235.74	234.65	6.2	△0.5
공 급 량	290.41	283.54	288.78	287.75	1.5	△0.4
소 비 량	225.28	229.57	233.96	232.58	1.3	△0.6
교 역 량	71.50	79.48	77.87	77.08	△3.0	△1.0
기말재고량	62.68	53.10	54.06	54.19	2.1	0.2
기말재고율(%)	27.8	23.1	23.1	23.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5, Dec 11, 2008.

### 세계 대두박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0	2008.11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53.78	158.09	160.10	158.99	0.6	△0.7
공 급 량	159.88	164.37	166.82	165.18	0.5	△1.0
소 비 량	151.82	157.12	159.39	158.34	0.8	△0.7
교 역 량	54.27	55.75	56.15	55.98	0.4	△0.3
기말재고량	6.28	6.19	6.42	5.88	△5.0	△8.4
기말재고율(%)	4.1	3.9	4.0	3.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5, Dec 11, 2008.

- 2008/09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5,899만 톤, 소비량은 1억 5,834만 톤으로 전년보다 각각 0.6%, 0.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8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보임.
- 대두박 교역량은 전년보다 0.4% 증가한 5,598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5.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 중에서 아르헨티나가 49.0%, 브라질 22.2%, 미국이 13.6%를 차지, 이들 3개국의 수출비중이 84.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대두박의 기말재고량은 588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보다 5.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0.2% 포인트 줄어든 3.7%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주요국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1	2008.1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290.41	283.54	288.78	287.75	1.5	△0.4
기초재고량	53.08	62.68	53.04	53.10	△15.3	0.1
생산량	237.33	220.86	235.74	234.65	6.2	△0.5
미국	86.77	72.82	79.49	79.49	9.2	0.0
아르헨티나	48.80	46.20	50.50	50.50	9.3	0.0
브라질	59.00	61.00	60.00	59.00	△3.3	△1.7
중국	15.97	14.00	16.80	16.80	20.0	0.0
수입량	69.05	78.60	77.11	76.10	△3.2	△1.3
중국	28.73	37.82	36.00	36.00	△4.8	0.0
EU27	15.29	15.10	14.15	14.15	△6.3	0.0
일본	4.09	4.01	4.05	4.00	△0.2	△1.2
소비량	225.28	229.57	233.96	232.58	1.3	△0.6
미국	53.24	51.53	51.92	51.10	△0.8	△1.6
아르헨티나	35.09	36.16	37.79	37.49	3.7	△0.8
브라질	34.02	34.82	35.10	34.51	△0.9	△1.7
중국	46.12	49.82	51.87	51.87	4.1	0.0
EU27	16.09	16.11	14.86	14.86	△7.8	0.0
일본	4.31	4.22	4.26	4.26	0.9	0.0
멕시코	3.93	3.74	3.74	3.74	0.0	0.0
수출량	71.50	79.48	77.87	77.08	△3.0	△1.0
미국	30.39	31.60	27.76	28.58	△9.6	3.0
아르헨티나	9.56	13.83	15.20	14.70	6.3	△3.3
브라질	23.49	25.36	25.70	25.25	△0.4	△1.8
기말재고량	62.68	53.10	54.06	54.19	2.1	0.2
미국	15.62	5.58	5.58	5.58	0.0	0.0
아르헨티나	22.61	21.77	22.77	22.78	4.6	0.0
브라질	18.19	19.16	18.35	18.50	△3.4	0.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5, Dec 11, 2008.



## 주요국별 대두박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0	2008.11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159.88	164.37	166.82	165.18	0.5	△1.0
기초재고량	6.10	6.28	6.72	6.19	△1.4	△7.9
생산량	153.78	158.09	160.10	158.99	0.6	△0.7
미국	39.06	38.32	37.64	36.96	△3.5	△1.8
아르헨티나	26.06	27.07	28.31	28.10	3.8	△0.7
브라질	24.11	24.69	24.88	24.41	△1.1	△1.9
인도	5.28	6.39	6.31	6.66	4.2	5.5
중국	28.09	30.86	32.39	32.39	5.0	0.0
수입량	52.49	54.69	55.13	55.02	0.6	△0.2
EU27	22.18	23.90	22.80	22.80	△4.6	0.0
중국	0.03	0.20	0.20	0.20	0.0	0.0
소비량	151.82	157.12	159.39	158.34	0.8	△0.7
미국	31.18	30.08	29.98	29.48	△2.0	△1.7
아르헨티나	0.59	0.62	0.66	0.65	4.8	△1.5
브라질	11.12	12.05	12.79	12.49	3.7	△2.3
인도	1.85	1.92	1.84	1.84	△4.2	0.0
EU27	33.19	34.99	33.32	33.32	△4.8	0.0
중국	27.26	30.43	31.99	31.99	5.1	0.0
수출량	54.27	55.75	56.15	55.98	0.4	△0.3
미국	7.99	8.42	7.80	7.62	△9.5	△2.3
아르헨티나	25.63	26.80	27.66	27.42	2.3	△0.9
브라질	12.72	12.14	12.50	12.40	2.1	△0.8
인도	3.46	4.79	4.45	4.80	0.2	7.9
기말재고량	6.28	6.19	6.42	5.88	△5.0	△8.4
미국	0.31	0.27	0.27	0.27	0.0	0.0
아르헨티나	1.52	1.17	1.55	1.20	2.6	△22.6
브라질	1.91	2.59	2.48	2.28	△12.0	△8.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5, Dec 11, 2008.



## Ⅱ. 국내경제 동향 4)

### 1. 경 기

- 2008년 1~3/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하여 전년보다(연간 5.0%) 증가세가 둔화됨.
  -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건설업도 계속 부진함.
  - 지출 측면에서는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화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민간소비도 지속적으로 위축됨.
- 2008년 1~3/4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에 그쳐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2008년 1~3/4분기 설비투자는 운수장비 투자가 감소하였으나,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기 등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하였고, 건설투자는 1.2% 하락함.
- 2008년 1~3/4분기 총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1.2% 증가하여 증가세가 둔화하였음.
  - 품목별로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 등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축소됨.

4)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연중 연구위원(yjkim@krei.re.kr), 송성환 전문연구원(song9370@krei.re.kr)이 작성하였음.



- 2008년 1~3/4분기 총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8.8% 증가하여 증가세가 축소되었음.
- 원유 및 천연가스, 섬유·의복 등 수입물량이 줄어 증가세 축소됨.

경제성장률 추이(2000년 실질가격기준)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6	2007p		2008p			
	연간	연간	4/4	1/4	2/4	3/4	1~3/4
G D P 성장률	5.1	5.0	5.7	5.8	4.8	3.8	4.8
최종 소비지출	4.8	4.7	4.8	3.5	2.7	1.7	2.6
(민 간)	4.5	4.5	4.6	3.4	2.3	1.1	2.3
총고정자본형성	3.6	4.0	2.9	0.5	0.1	1.4	0.7
(건 설)	△0.1	1.2	0.4	△1.1	△1.2	△1.3	△1.2
(설 비)	7.8	7.6	6.5	1.4	0.7	4.7	2.2
총 수 출	11.8	12.1	17.0	11.8	12.5	9.4	11.2
총 수 입	11.3	11.9	16.9	9.0	8.6	9.0	8.8

주: 2007p, 2008p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 2008년 1~3/4분기 농림어업은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하였고, 제조업은 8.0% 증가함.
- 제조업은 석유화학, 산업용 기계 등이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이 부진하였음.
- 2008년 1~3/4분기 건설업은 전년 동기대비 0.7% 하락함. 서비스업은 부동산업, 오락문화서비스업, 통신업 등이 부진하여 전년 동기대비 3.2% 성장에 그침.



경제활동별 성장률 추이(2000년 가격기준)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6	2007p		2008p			
	연간	연간	4/4	1/4	2/4	3/4	1~3/4
전 산 업	5.1	5.0	5.7	5.8	4.8	3.8	4.8
농 립 어 업	△1.5	1.1	△0.7	2.0	4.4	1.4	2.8
제 조 업	8.5	6.5	9.5	9.3	8.5	6.3	8.0
건 설 업	0.3	1.8	1.4	0.4	△1.4	△0.9	△0.7
서 비 스 업	4.2	4.8	4.8	4.1	3.3	2.1	3.2

자료: 한국은행

- 2008년 3/4분기 산업생산은 수출증가세 둔화, 내수부진 등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증가세가 축소됨.
  - 업종별로는 반도체 및 부품, 휴대폰 등 영상음향 통신 등이 생산 감소에 기여함.
  - 3/4분기 수출둔화와 내수부진에 따라 출하 증가율이 대폭 감소하였고, 재고 증가세는 소폭 확대됨.
  - 재고증가의 대부분은 반도체 및 부품, 화학제품의 재고 증가에 기인함.
  - 산업생산은 수출증가세 둔화, 내수부진, 조업일수 감소 등에 따라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산업생산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6	2007		2008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생 산	10.1	6.8	8.6	10.8	10.6	8.6	5.6
출 하	7.8	7.1	5.4	10.4	8.9	6.3	5.4
(수 출)	11.9	10.2	9.1	16.2	14.3	13.5	10.5
(내 수)	4.5	4.9	3.0	6.8	5.3	1.7	1.7
재 고	6.2	5.7	2.6	5.7	9.0	16.5	17.5
평균가동율	81.1	80.3	80.0	81.2	81.1	81.0	78.5

자료: 기획재정부



## 2. 소비 및 투자

- 2008년 3/4분기 소비재 판매는 승용차 판매 감소로 인하여 전년 동기대비 1.1% 증가하여, 전분기 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
  - 준내구재는 2/4분기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 가전제품, 컴퓨터·통신기기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판매 감소로 인하여 내구재는 소폭의 감소세로 전환됨
  
- 소비재 판매는 속보지표, 소비심리 등을 감안할 때 부진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신용카드 국내승인액은 06. 10월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수로 둔화되었고, 국산자동차 내수판매량은 큰 폭으로 감소함.
  - 고용부진, 자산가격 하락,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가계의 소득증가가 부진하고, 금융시장 불안·불활실성 확대 등에 따라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있어 당분간 소비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 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6	2007		2008p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소비재판매	4.1	5.3	7.1	4.5	3.9	2.5	1.1
(내 구 재) <sup>1</sup>	11.2	11.0	10.1	6.9	8.2	7.6	△0.2
(준내구재) <sup>2</sup>	3.0	2.9	3.2	2.9	5.4	△1.6	1.6
(비내구재) <sup>3</sup>	1.7	3.7	7.1	4.0	1.5	1.6	1.5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자료: 기획재정부



- 2008년 3/4분기 설비투자(GDP잠정치)는 전년동기대비 4.7%(전기대비 2.1%) 증가함.
- 10월 설비투자추계는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 투자 감소에 따라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냄.
- 11월 설비투자는 선행지표인 기계수주 및 기계류 수입 흐름, BSI(Business Survey Index; 기업경기실사지수) 등을 감안할 때 개선이 어려울 전망.
  - 10월 국내기계수주는 공공부문은 증가했으나, 민간부문의 기계류 발주가 줄어 큰 폭으로 감소함.
- 2008년 3/4분기 건설투자(GDP잠정치)는 전년 동기대비 1.3%(전분기 대비 0.0%) 감소하여 부진이 지속됨.
- 주택경기 침체, 건설부문 투자심리 위축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건설투자는 위축국면이 심화될 전망
  -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경상)는 건축부문의 기저효과와 신규주택 및 재개발 수주실적 저조로 인해 5개월 연속 감소함.

### 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6	2007p		2008p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설 비 투 자	7.8	7.6	2.3	6.5	1.4	0.7	4.7
기 계 류	8.2	7.6	1.0	7.0	△0.9	△0.1	6.6
운 수 장 비	6.0	7.7	8.9	4.0	12.3	4.4	△4.7
건 설 투 자	△0.1	1.2	△0.1	0.4	△1.1	△1.2	△1.3
국내건설 수주	9.0	19.3	△5.6	29.5	△3.9	△6.1	△22.8

자료: 기획재정부



- 2008년 3/4분기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99만 4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함.
  - 경상소득은 383만 4천원으로 6.9% 증가하고, 비경상소득은 16만원으로 6.3% 증가함.
  
- 2008년 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9만 3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함.
  - 비목별로는 교육비(17.0%), 식료품비(6.8%), 광열수도비(6.1%), 보건의료비(5.9%) 등의 증가폭이 큰 반면, 교양오락(-8.6%), 교통통신비(-0.4%)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39만 2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6% 증가함.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 변화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6	2007		2008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소 득	5.9	6.7	9.2	3.8	6.0	8.5	6.9
소비 지출	4.4	5.8	10.2	2.5	8.2	8.7	4.7
(식료품)	1.6	3.2	7.8	0.3	7.1	10.0	6.8
(교 육)	3.3	10.1	11.9	12.2	13.2	18.6	17.0

자료: 통계청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 2008년 3/4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7.1% 증가하여 1,150억 달러를 기록함.



- 11월 수출은 석유제품, 일반기계, 무선 통신기기, 철강제품 등 대부분의 주력품목의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전년 동월대비 18.3% 감소한 293억 달러를 기록하여 14개월 만에 수출 감소세를 기록함.
- 11월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14.6% 감소한 290억 달러를 기록함.
  - 원자재 수입은 1~10월간 수입증가세(45.2%)보다 크게 둔화된 7.7%의 증가세를 기록함.
  - 자본재는 반도체 제조용장비, 컴퓨터 부품 등의 감소로 감소세를 기록함.
  - 소비재는 생활용품, 승용차, 가정용전자제품 등의 감소로 감소세를 기록함.

####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억달러

	2006	2007		2008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수 출(FOB)	3,255	3,715	905	1,033	995	1,145	1,150
(증감률)	14.4	14.1	9.4	18.2	17.5	23.1	27.1
수 입(CIF)	3,094	3,568	861	1,006	1,060	1,148	1,230
(증감률)	18.4	15.3	7.3	25.9	28.8	30.5	43.0
무 역 수 지	161	146	45	27	△65	△3	△80

자료: 한국무역협회

#### 4. 고 용

- 2008년 11월 취업자는 내수부진, 수출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0.3% 증가한 23,816천명에 그쳐 고용부진이 심화됨.



- 11월 실업자 수는 750 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함. 11월 실업률(계절조정)은 3.3%로 전년 동기보다 3.1% 상승함.
-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는 증가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 제조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건설업에서는 감소하였음.

### 고 용 활 동

단위: 천명, %

	2006	2007		2008				전년 동기비 증감률
	연간	연간	4/4	1/4	2/4	3/4	11월	
경 제 활 동 인 구 (경제활동참가율)	23,978 61.9	24,216 61.8	24,316 61.8	23,852 60.5	24,638 62.3	24,503 61.8	24,566 61.8	0.4 △0.6
취 업 자	23,151	23,433	23,582	23,051	23,871	23,752	23,816	0.3
· 농 림 어 업	1,785	1,726	1,690	1,388	1,848	1,831	1,819	2.7
· 광공업 (제 조 업)	4,185 4,167	4,137 4,119	4,139 4,120	4,133 4,114	4,121 4,101	4,078 4,055	4,059 4,036	△1.3 △1.4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건 설 업)	17,181 1,835	17,569 1,850	17,753 1,853	17,530 1,754	17,902 1,896	17,843 1,809	17,938 1,845	0.5 △1.6
실 업 자	827	783	734	801	767	752	750	2.3
실업률(계절조정)	-	-	3.2	3.0	3.2	3.2	3.3	3.1

자료: 통계청

## 5. 물 가

-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0.7로 전년 동월대비 4.5% 상승하였으나, 10월 보다는 0.3% 하락함.
- 부문별로는 10월에 비해 휘발유, 경유, 국제항공료 등이 하락하면서 교통



부문이 4.7% 하락하였고, 주류·담배, 통신, 기타잡비 부문은 전월과 비슷한 반면, 교양·오락, 의복·신발, 가구집기·가사용품 등 나머지 부문은 전월대비 상승함.

- 상품별로 농수산물, 공업제품 등 상품은 10월보다 하락한 반면,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등 서비스는 10월보다 상승함.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2005년=100)

	2007			2008			
	연간	3/4	4/4	1/4	2/4	3/4	11월
총 지 수	104.8 (2.5)	105.3 (2.3)	106.0 (3.3)	107.4 (3.8)	109.6 (4.8)	111.1 (5.5)	110.7 (4.5)
상 품	103.5 (2.0)	103.8 (1.3)	105.2 (4.0)	106.7 (4.6)	109.9 (6.9)	112.4 (8.3)	110.3 (5.1)
농축수산물	101.8 (1.9)	102.3 (0.5)	102.9 (3.8)	101.9 (0.0)	100.8 (0.7)	103.6 (1.3)	102.0 (0.8)
공업 제품	104.0 (2.0)	104.3 (1.5)	105.9 (3.9)	108.0 (5.9)	112.5 (8.6)	114.9 (10.2)	112.7 (6.3)
서 비 스	105.7 (2.9)	106.1 (2.8)	106.5 (2.9)	107.8 (3.3)	109.5 (3.6)	110.3 (4.0)	110.9 (4.1)
집 세	102.2 (1.8)	102.4 (2.0)	102.9 (1.9)	103.5 (1.9)	104.2 (2.2)	104.9 (2.4)	105.5 (2.5)
공공서비스	106.7 (3.1)	107.2 (3.0)	108.0 (3.2)	108.5 (3.2)	109.2 (2.7)	109.4 (2.1)	110.4 (2.1)
개인서비스	106.2 (3.1)	106.7 (3.1)	106.9 (3.3)	108.8 (3.6)	111.1 (4.4)	112.1 (5.2)	112.7 (5.5)

주: ( )는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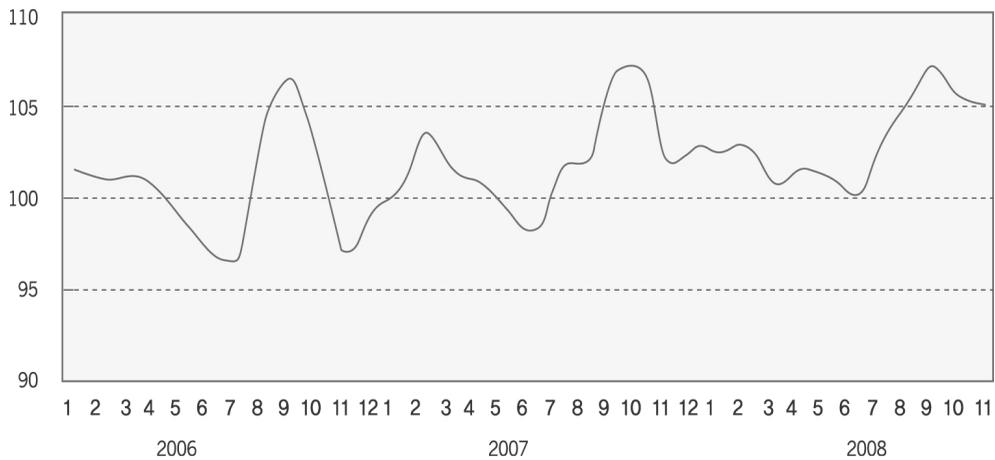
- 11월 농산물체감물가지수<sup>5)</sup>는 105.2로 전년 동월대비 2.9% 상승하였으나,



10월보다는 0.2% 하락함.

- 풋고추, 호박, 오이, 양파, 굴 등은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나, 배추, 시금치, 사과, 토마토 등은 전월대비 하락하였음.

농산물 체감물가지수 추이(2005년=100)



-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1.8로 전년 동월대비 7.8% 상승하였으나, 10월보다는 2.3% 하락함.
- 11월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104.3으로 전년 동월보다 6.3%, 10월보다는 6.9% 상승함.
  - 11월 들어 풋고추, 호박, 오이, 양파 등 채소류와 굴, 포도 등 과실류, 닭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 굴, 조개, 물오징어 등 수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물가 상승함.
- 11월 공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19.3으로 전년 동월보다 10.6% 하였으나, 10월보다는 3.8% 하락하였음.
  - 코크스·석유제품이 국제유가 급락으로 10월보다 15.5% 하락하였고,

5) 통계청에서 체감물가지수로 발표하는 생활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 주요 농축산물 28개 품목만으로 구성된 물가지수임.



에틸렌, 프로필렌 등 화학제품이 13.4%, 동, 니켈 등 1차금속이 3.8% 하락하였음.

품목별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

	2007			2008			
	연간	3/4	4/4	1/4	2/4	3/4	11월
총 지 수	100.9 (1.4)	102.8 (1.2)	103.7 (3.0)	105.8 (5.1)	111.4 (9.0)	115.2 (12.1)	111.8 (7.8)
농림수산물	97.5 (2.8)	99.8 (1.9)	98.9 (4.8)	102.4 (△0.3)	99.4 (0.0)	100.3 (0.5)	104.3 (6.3)
광 산 품	97.8 (7.3)	104.6 (6.7)	110.4 (9.9)	110.1 (8.4)	115.4 (12.3)	115.5 (10.4)	119.3 (8.0)
공 산 품	100.2 (0.8)	101.4 (0.3)	102.5 (2.7)	105.5 (6.6)	113.8 (12.7)	118.9 (17.3)	113.5 (10.6)
전력/수도/가스	107.4 (3.5)	111.5 (2.1)	114.9 (4.8)	114.4 (5.0)	114.7 (4.7)	115.3 (3.4)	119.4 (3.6)
서 비 스	102.2 (2.3)	105.2 (2.7)	105.4 (2.5)	105.8 (2.4)	107.0 (2.5)	108.6 (3.2)	107.5 (2.0)

주: ( )는 전년동기(월)대비 증감율(%)  
자료: 통계청

- 2008년 11월 수출물가지수는 120.4로 전년 동월대비 31.5% 상승하였으나, 10월보다는 3.3% 하락함.
  -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일반기계 및 장비제품, 운송장비제품 등이 올랐으나, 국제유가의 하락과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의 영향으로 석유화학제품, 금속제품 등이 내리면서 10월보다는 하락함.
  
- 11월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31.4로 전년 동월대비 29.8% 상승하였으나,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조개, 오징어가 오른 반면, 수요감소로 참치, 배, 김 등이 내려 10월보다 8.6% 하락함.



수출물가지수(2005년=100)

	2007			2008			
	연간	3/4	4/4	1/4	2/4	3/4	11월
농림수산물	96.6 (5.4)	99.9 (5.3)	101.6 (11.2)	108.2 (18.0)	118.8 (27.7)	127.3 (27.4)	131.4 (29.8)
공 산 품	89.8 (△2.2)	90.3 (△2.9)	91.1 (0.8)	96.4 (8.9)	108.6 (21.6)	112.7 (24.8)	120.3 (31.5)
원 자 재	94.0 (△0.4)	97.1 (△0.1)	99.5 (8.2)	108.0 (19.4)	122.9 (38.5)	132.9 (36.8)	139.1 (40.4)
자 본 재	91.0 (△1.1)	91.4 (△0.6)	92.3 (1.9)	97.1 (7.4)	103.5 (14.9)	106.3 (16.4)	131.2 (42.0)
소 비 재	80.5 (△6.3)	80.2 (△5.9)	80.8 (△2.4)	84.5 (4.0)	90.2 (12.8)	91.8 (14.5)	108.3 (33.6)
총 지 수	89.8 (△2.1)	90.3 (△2.9)	91.1 (0.9)	96.4 (8.9)	108.7 (21.6)	112.7 (24.8)	120.4 (31.5)

주: ( )는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

자료: 한국은행

- 2008년 11월 수입물가지수는 149.1로 전년 동월대비 32.0% 상승하였으나, 10월보다는 6.6% 하락함.
- 11월 수입물가는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자본재가 올랐으나, 국제유가의 하락 및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의 영향으로 원자재, 중간재 및 소비재가 내리면서 10월보다 하락함.
- 11월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173.8로 전년 동월대비 35.4% 상승하였고, 원자재의 경우 168.7로 전년 동월대비 15.6% 상승함.



수입물가지수(2005년=100)

	2007			2008			
	연간	3/4	4/4	1/4	2/4	3/4	11월
농림수산물	117.7 (17.2)	116.7 (14.2)	129.9 (23.8)	148.7 (33.3)	159.8 (41.9)	161.3 (38.4)	173.8 (35.4)
광 산 품	124.0 (5.6)	126.8 (1.5)	143.7 (28.6)	163.5 (53.0)	216.4 (81.9)	225.1 (77.8)	167.1 (13.6)
공 산 품	98.4 (3.3)	97.7 (0.8)	100.2 (4.9)	108.7 (12.1)	123.0 (24.7)	128.1 (31.1)	141.6 (41.1)
원 자 재	123.9 (7.0)	126.2 (3.0)	143.1 (28.6)	163.1 (51.5)	211.5 (78.2)	219.3 (74.1)	168.7 (15.6)
자 본 재	88.0 (△2.6)	87.8 (△2.9)	88.9 (0.3)	94.2 (6.6)	100.5 (15.5)	103.3 (17.7)	137.2 (53.8)
소 비 재	96.7 (1.2)	96.1 (△0.2)	98.5 (4.9)	105.8 (10.1)	113.0 (17.7)	117.0 (21.7)	138.3 (40.9)
총 지 수	105.5 (4.5)	105.6 (1.5)	112.1 (12.2)	123.8 (23.8)	147.6 (41.6)	153.4 (45.3)	149.1 (32.0)

주: ( )는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  
 자료: 한국은행

## 6. 금융 및 외환

- 2008년 3/4분기 협의통화(M1, 평잔)는 2/4분기까지 감소세가 유지되었으나, 3/4분기 들어 증가세로 전환됨.
- 3/4분기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분기 15.3%에서 14.7%로 증가세가 소폭 감소함.
  - 예금취급기관 기업대출 등 민간 신용의 증가세는 지속되었으나, 외국인 주식순매도에 따른 국외부문의 통화환수 등으로 증가율이 다소 하락함.
  - 협의통화(M1, 평잔)는 전년 동기대비 2.1% 증가함.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기준)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M1 <sup>1</sup>	△0.8	△5.2	△6.7	△8.6	△11.5	△12.4	△0.1	2.1
M2 <sup>2</sup>	8.3	11.2	11.0	11.1	11.2	13.3	15.3	14.7
Lf <sup>3</sup>	7.9	10.2	10.2	10.2	10.5	11.6	12.8	12.1
본원통화	7.4	16.5	17.0	16.5	14.6	4.2	6.3	8.1

-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미만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11월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확산 등으로 11월 하순 이후 하락함.
- 11월 CD 유통수익률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대폭 인하 및 유동성 공급 확대 조치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함.

금 리 동 향

단위: %

	200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콜 금 리	4.99	4.97	4.97	4.99	4.97	4.95	4.98	5.22	5.22	4.88	4.00
CD유통수익률	5.81	5.28	5.25	5.38	5.36	5.36	5.52	5.77	5.79	6.03	5.62
회사채 <sup>1</sup>	6.64	6.27	6.13	5.91	6.22	6.68	6.99	7.11	7.46	7.95	8.56

- 주: 1. 회사채: 장외3년, AA-등급  
 자료: 한국은행



- 8월 이후 원/달러 환율은 1,090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1월말에는 1,463원까지 상승함.
- 원/달러 환율은 한·미간의 통화스왑 체결과 대선결과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국내 금융시장에도 타격을 주었고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증가로 이어지면서 상승함.
- 11월말 원/엔 환율은 엔화가치 상승 등으로 1,535원대로 마감되어, 7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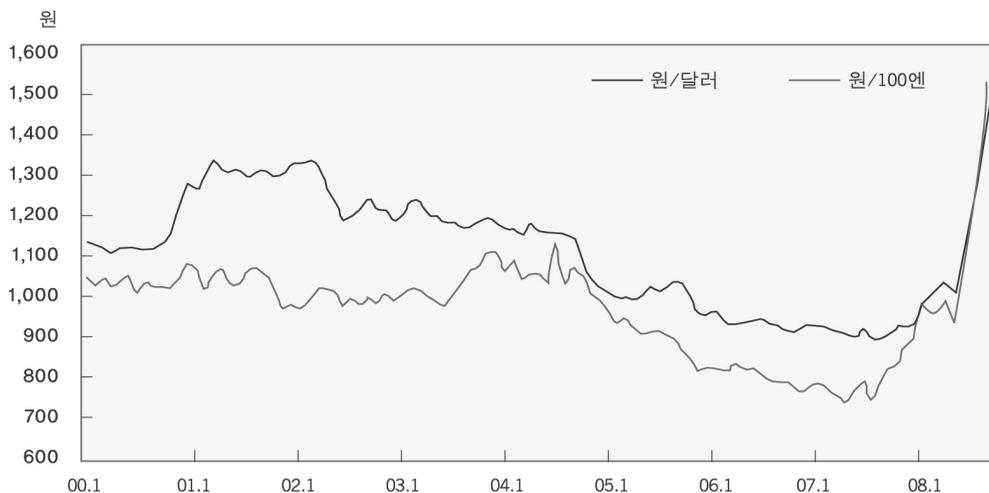
### 원화 환율 동향

단위: 원(기말 기준)

	2006	2007	2008										
		12	1	2	3	4	5	6	7	8	9	10	11
원/달러	929	944	944	939	990	1,004	1,030	1,046	1,012	1,090	1,207	1,298	1,463
원/100엔	782	834	886	899	996	965	977	993	936	1,004	1,152	1,335	1,535

자료: 외환은행 고시환율

### 원화 환율 추세





## Ⅲ. 농촌경제 동향 6)

### 1. 농촌물가 7)

- 4/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중 양념채소류는 3/4분기보다 상승하여 강세를 보인 반면, 나머지 농산물은 하락하여 약세를 나타냄.

농산물 도매가격지수(2005년=100)

	2007		2008		등락률(%)	
	3/4	4/4	3/4	4/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쌀	101.3	98.0	107.2	103.6	5.7	△3.4
보리(과맥)	104.7	102.4	105.2	101.3	△1.2	△3.8
배추	139.6	151.1	95.2	73.2	△51.6	△23.1
무	120.6	157.7	73.8	72.4	△54.1	△2.0
고추(화건)	97.8	96.7	108.3	120.1	24.2	10.8
마늘(난지)	96.7	99.1	79.0	85.4	△13.8	8.1
양파	65.6	84.2	134.4	158.4	88.0	17.9
사과(후지)	65.7	57.9	97.7	55.1	△4.8	△43.5
배(신고)	146.0	63.9	83.3	59.7	△6.5	△28.3
느타리	113.1	102.0	119.9	110.2	8.0	△8.1
참깨	107.4	108.9	111.8	93.4	△14.2	△16.5
국화	68.2	109.0	89.6	83.0	△23.9	△7.4

주: 전국도매시장의 품목별 단위별 가격 자료를 2005년을 기준으로 지수화 하였음.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Kamis.co.kr)

6)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연중 연구위원(yjkim@krei.re.kr), 송성환 전문연구원(song9370@krei.re.kr)이 작성하였음.  
 7) 농가판매가격지수 및 농가구입가격지수가 분기별로 발표됨에 따라 4/4분기 자료는 1월 말에 발표됨. 이에 이번호에서는 농산물 도매가격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로 대체하였음.



- 2008년 4/4분기 곡물 가격 중 쌀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상승한 반면, 보리는 하락하여 약세를 나타냄.
- 2008년 4/4분기 채소 중 배추, 무 등 엽근채소는 전년 동기보다 하락하였고, 전분기보다도 낮아져 약세를 나타냄. 고추, 양파는 전년 동기와 전분기보다 높아져 강세를 나타냄.
- 2008년 4/4분기 과일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대비 하락하여 약세를 나타냄.
- 2008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보다 상승하였으나, 10월보다는 하락하여 약세를 나타냄.
  - 가계용품인 식료품비는 전년 동월대비 14.9%, 의복비 2.0%, 전력·수도, 도시가스는 3.6% 상승함.
  - 농업용품인 사료비는 전년 동월대비 50.6%, 비료 93.7%, 농약 3.3%, 농업용기계 9.0%, 석유제품 2.5% 상승함.
  - 서비스 부문인 운수는 전년 동월대비 9.5%, 위생서비스는 1.7% 상승한 반면, 통신은 0.6% 하락함.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

	2007		2008		등락률(%)	
	3분기	11월	3분기	11월	전년 동월대비	전월 대비
식료품	104.1	105.6	117.5	121.3	14.9	1.2
의복	88.7	88.8	89.2	90.6	2.0	△0.1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111.5	115.3	115.3	119.4	3.6	2.5
사료	118.3	123.4	176.6	186.9	50.6	△0.6
비료	110.9	110.9	220.2	214.8	93.7	△2.9
농약	99.7	99.7	103.0	103.0	3.3	0.0
농업용기계	106.9	106.9	115.6	116.5	9.0	0.0
석유제품	118.5	130.6	176.7	133.8	2.5	△15.5
운수	105.7	106.1	116.4	116.2	9.5	△1.4
통신	99.5	99.5	98.9	98.9	△0.6	0.0
위생서비스	101.5	101.1	102.8	102.8	1.7	0.0

자료: 통계청.



## 2. 농업인력

- 2008년 11월 농림업 취업자수는 1,819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7% 증가하였으나, 산업내 비중 축소로 인한 감소기조가 지속되면서 10월보다는 0.1%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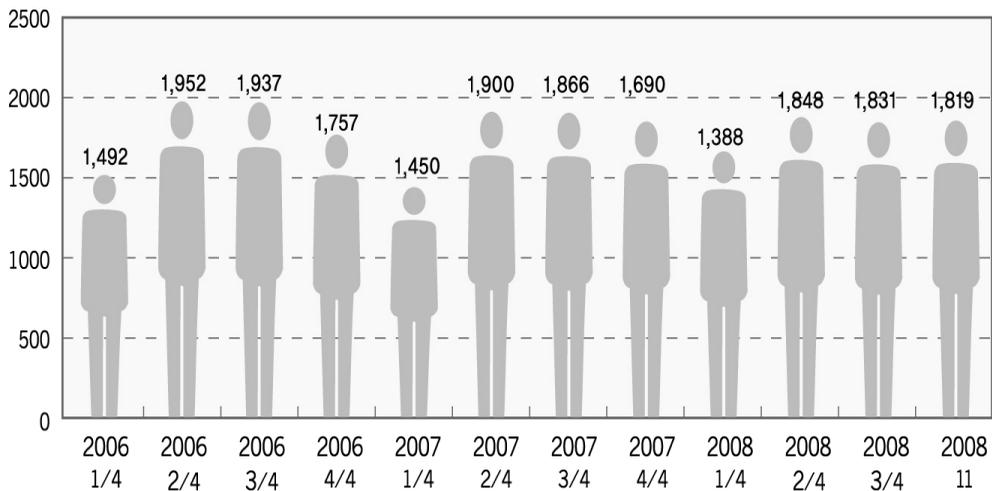
농림어업 취업자수 동향

단위: 천명

		2007		2008		증감률(%)	
		3/4분기	11월	3/4분기	11월	전년 동월대비	전월대비
경제활동 인구		24,367	24,471	24,503	24,566	0.4	△0.1
취업자	전산업	23,610	23,739	23,752	23,816	0.3	△0.1
	농림어업	1,866	1,772	1,831	1,819	2.7	△3.4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 취업자수 변화추이





### 3. 농산물 수출입

#### 3.1. 수출동향

- 2008년 1~11월 농림축산물 수출은 총 2,570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함.
- 농림축산물 중 농산물 수출액은 2,267백만 달러로 채소, 화훼, 김치, 과일, 등 신선농산물의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13.0% 증가함.
- 2008년 1~10월 가공농림축산물 수출액은 면류, 전통주, 간장 등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14.2% 증가한 1,758백만 달러임.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7	2007. 1~11	2008. 1~1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농림축산물	2,532	2,279	2,570	12.8
농 산 물	2,223	2,006	2,267	13.0
축 산 물	181	149	192	29.0
임 산 물	128	124	111	△10.5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품목의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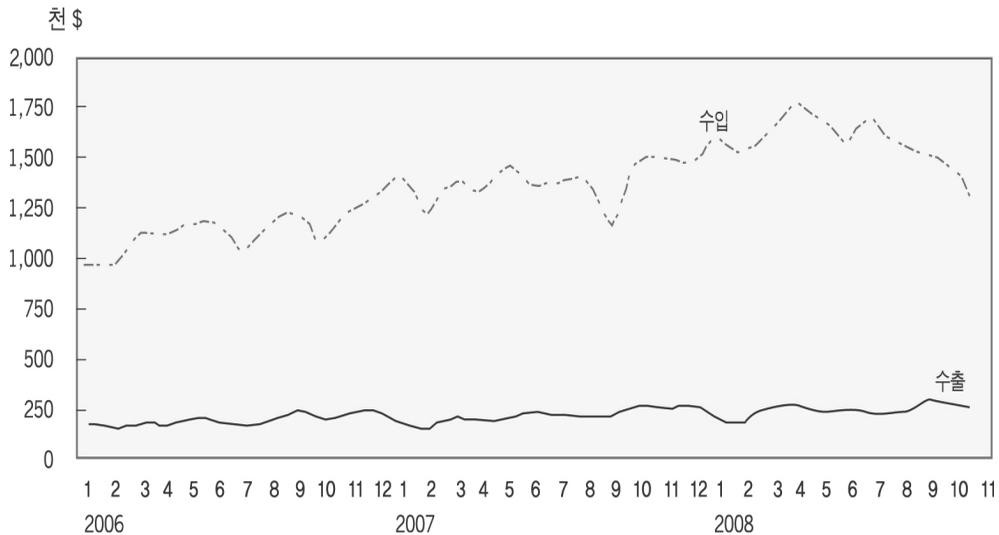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품 목	2006	2007	2007 1~10월	2008 1~10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채 소	133.6	121.1	96.0	116.0	18.2
김 치	70.3	75.3	60.2	69.0	12.6
인 삼	88.6	92.1	70.2	69.7	5.0
화 휘	40.4	58.1	47.5	55.4	10.4
과 실	98.4	144.9	94.5	106.1	21.0
돼지고기	23.9	25.6	7.8	11.1	27.3
가 금 육	8.5	9.0	7.3	9.8	31.5
산림부산물	71.8	71.0	63.6	52.2	△3.1
가공식품	1,716.70	1,877.5	1,538.5	1,757.7	14.2
목 재 류	52.2	57.2	49.2	49.7	1.0
합 계	2,304.40	2,531.8	2,034.8	2,296.7	12.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08년 농축산물 수출은 9월 이후 연속 2개월 감소하였고, 수입도 7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농축산물 수출입 추이





### 3.2. 수입동향

- 2008년 1~11월 농림축산물 수입은 총 17,11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6.0%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7	2007. 1~11월	2008. 1~11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농림축산물	16,183	14,749	17,116	16.0
농 산 물	10,089	9,174	11,727	27.8
축 산 물	3,235	2,958	2,717	△8.1
임 산 물	2,858	2,617	2,671	2.1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주요 품목의 1~11월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옥수수의 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53.0%, 밀은 38.8% 증가하였으나, 대두는 38.3% 감소함. 쇠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물의 수입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닭고기는 32.0% 증가함.

주요 품목의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품 목	2006	2007	2007. 1~11	2008. 1~1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옥 수 수	1,271	1,834	1,674	2,218	53.0
밀	669	856	806	1,118	38.8
대 두	332	430	373	230	△38.3
쇠 고 기	876	1,037	946	965	2.1
돼지고기	778	904	835	819	△2.0
닭 고 기	118	120	110	146	32.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08년 1~11월 열대과일 수입실적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오렌지의 수입이 166백만 달러로 가장 많은 액수가 수입되었음. 2008년 11월까지 포도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27.8%로 증가하였으나, 키위는 23.4%, 바나나는 10.6% 감소함.

열대과일 수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품 목	2005	2006	2007	2007. 1~11	2008. 1~1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오 렌 지	120	123	179	170	166	△2.2
키 위	52	63	70	70	53	△23.4
포 도	24	33	86	84	107	27.8
파인애플	35	43	68	64	59	△6.6
바 나 나	115	145	171	162	145	△10.6
레 몬	6	8	11	10	10	6.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3.3. 지역별 수출입동향

가. 대중국 농산물 수출입동향

- 2008년 1~11월 중국으로의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293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3% 증가하였음.
- 인삼류, 김치 등 가공식품, 수산물(어류, 해조류), 신선농식품 등이 수출 호조를 보임.
  - 인삼류 1~10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79.1% 증가한 5.5백만 달러가 수출됨.



- 1~10월 화훼류 수출은 15.3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5.9% 감소함. 이는 심비디움 수출이 감소하였고, 현지 생산품 품질도 지속적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임.

주요 품목의 대중국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품 목	2005	2006	2007	2007 1~10월	2008 1~10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가공식품	157.4	189.0	219.6	180.7	192.9	6.8
인 삼	4.8	7.2	3.6	3.1	5.5	79.1
화 훼 류	16.0	10.3	23.3	20.7	15.3	△25.9
목 재 류	14.3	10.2	7.4	6.1	7.8	29.6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중국 농림축산물 수출동향

단위: 천톤, 백만 달러

구 분	2007. 1~11		2008. 1~11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210	268	185	293	△11.9	9.3
농 산 물	188	232	161	251	△14.8	7.8
축 산 물	2	6	3	12	61.1	101.7
임 산 물	20	30	22	30	9.1	2.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08년 1~11월중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물량 기준으로 49.0%, 금액기준으로 15.3% 감소함. 이는 작년보다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에서 기인함.



### 대중국 농림축산물 수입동향

단위: 천톤, 백만 달러

구 분	2007. 1~11		2008. 1~11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7,702	2,839	3,377	2,058	△49.0	△15.3
농 산 물	6,918	2,176	3,286	1,173	△52.5	△18.5
축 산 물	45	93	33	80	△26.6	△14.6
임 산 물	739	569	611	511	△17.4	△3.2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나. 대일본 농산물 수출입동향

- 2008년 1~10월 대일 농산물 수출은 579.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7% 증가하였음.
  - 어류, 해조류 등 수산식품 수출이 554.2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4.3% 증가하였음.
  - 일본의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에 따른 중국산에 대한 반사이익 및 적극적인 마케팅의 효과로 가공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21.0% 증가함.
- 화훼류 수출이 환율상승 및 일본내 도매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16.6% 증가함.



대일본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06	2007	2007	2008	비 중 (%)	전년동기비 증감률(%)
			1~10월	1~10월		
채 소	87.0	72.1	57.2	62.5	53.9	9.3
김 치	62.6	66.1	53.0	60.9	88.3	14.9
인 삼	29.2	28.7	21.9	18.1	26.0	△17.4
화 휘	26.8	31.2	23.5	27.4	49.5	16.6%
과 실	14.2	29.0	16.9	16.7	15.7	△1.2
돼지고기	0.2	0.2	0.2	0.1	0.9	△50.0
가금육(닭, 오리)	5.2	3.0	2.4	2.4	24.5	0.0
산림부산물	21.0	26.0	22.7	14.3	27.4	△37.0
가공식품	384.3	371.9	301.1	364.2	20.7	21.0
목 재 류	20.6	18.3	15.4	13.0	26.2	△15.6
합 계	651.1	646.4	514.3	579.6	25.2	12.7

주: 비중은 전체 수출 중 일본 수출비중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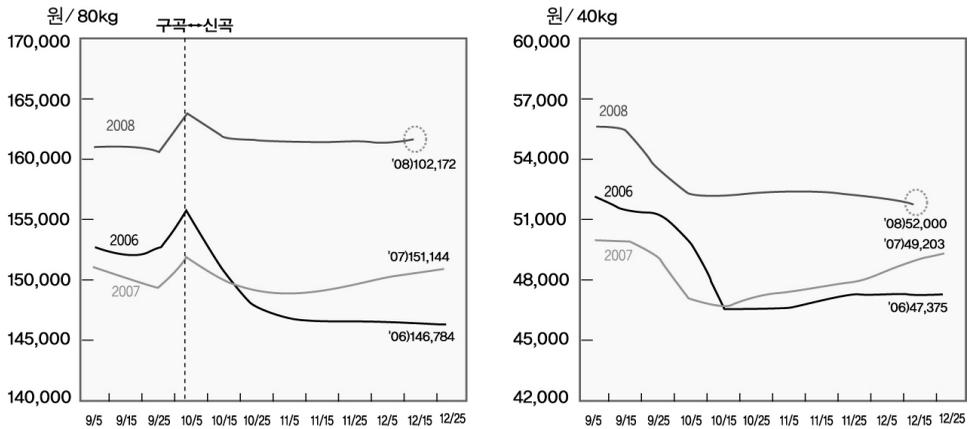


## Ⅳ.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 1. 식량작물<sup>8)</sup>

#### 1.1 쌀

산지 쌀 및 벼 가격 추이



자료: 통계청.

- 추석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산지 벼 가격은 중만생종의 거래가 시작되는 10월 들어 약상승세로 반전됨. 금년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매입가격 인상 요구로 산지 벼 가격은 전년보다 높게 거래가 되고 있음. 12월 15일 현재 산지 벼 가격은 5만 2,097원/40kg으로 전년 동기대비 5.9% 높은 수준이나 최근 들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냄.

8)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태훈 부연구위원(taehun@krei.re.kr), 최익창(cic@krei.re.kr), 승준호(jhseung@krei.re.kr), 박미성(mspark@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전국 쌀 평균 가격

단위: 원/정곡80kg, 원/조곡40kg

		산지정곡가격	산지조곡가격
2007년	9월	150,131	49,482
	10월	150,098	47,135
	11월	149,537	47,864
	12월 15일	151,144	49,203
2008년	9월	161,484	55,185
	10월	163,299	52,554
	11월	161,941	52,679
	12월 15일	162,172	52,097
등락률(%) (12월 15일 기준)	전월대비	0.1	-1.1
	전년 동기대비	7.3	5.9

자료: 통계청.

- 산지 쌀 가격은 8월 하순부터 하락세를 보이다 10월초 가격 조사대상이 햅쌀로 바뀌면서 일시적으로 상승. 이후 산지 벼 가격과 달리 11월초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중순부터 약상승세로 반전됨. 12월 15일 현재 산지 벼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7.3% 높은 16만 2,172원/80kg 수준임.

2009양곡연도 민간부문 수급 추정

단위: 천톤/정곡

	2008양곡연도	2009양곡연도	증감
전기민간이입량(A) <sup>1)</sup>	7	-56	-62
생산량(B)	4,408	4,843	435
산물벼 방출(C)	94	50	-44
밥쌀용 수입미(D)	48	63	15
기타 정부방출량(E) <sup>2)</sup>	344	329	-15
정부매입량(F) <sup>3)</sup>	417	400	-17
기본감모·종자(G) <sup>4)</sup>	216	277	61
시장공급가능물량 (A+B+C+D+E-F-G)	4,267	4,552	285

- 주 1) 2009양곡연도 전기민간이입량은 9월 신곡 판매비중으로 9~10월동안 당겨먹는 물량을 추정한 수치임.  
 2) 정부 수급관리계획량(군관수용, 민수용, 주정용을 제외한 가공용, 공공용) 중 산물벼 방출과 밥쌀용 수입미를 제외한 수치임.  
 3) 정부의 공공비축매입량임  
 4) 기본감모는 생산량의 4%를 적용한 것임.



- 2008년 쌀 생산량과 수입이 늘어 2009양곡연도 민간부문 시장공급량은 전년보다 6.7% 증가한 455만 2천톤으로 전망됨. 금년 쌀 생산량은 작황이 좋아 전년대비 9.9% 늘어난 483만 3천톤, 쌀 수입량은 전년보다 5만 8천톤 늘어나고 이중 밥쌀용 수입미는 1만 5천톤 증가함.
- 산지 벼 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금년 공공비축미 매입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반면 농협의 자체매입 실적은 높은 수준임. 12월 12일 현재 매입이 끝난 산물벼 매입 실적은 계획대비 80.3%를 보였으며 포대벼는 계획대비 86.0% 매입하여 전체 계획량대비 85.3%를 매입하였음. 산지유통업체 자체매입실적을 보면, 12월 12일 현재 농협RPC는 전년동기대비 28.1% 늘어났으며 비RPC농협은 17.4% 증가한 반면 민간RPC는 1.8% 증가함.

벼 매입 실적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12월 12일까지)

단위: 천톤/조곡

	2007년	2008년	증감률(%)
공공비축미	551	474	-14.0
- 포대벼	421	418	-0.7
- 산물벼	130	56	-56.9
RPC자체매입	2,231	2,629	17.8
- 농협RPC	1,002	1,284	28.1
- 비RPC농협	604	709	17.4
- 민간RPC	625	636	1.8
전체	2,782	3,103	11.5

주: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매입기간은 9월 22일~11월 7일, 포대벼 매입기간은 10월 27일~12월 31일까지임.

자료: 농림수산물부 식량정책팀.

- 금년 쌀 생산량이 역대 최고로 발표되었음에도 현재 가격이나 산지거래에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전년에 비해 매입량을 크게 늘린 농협이 12월 가격확정과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조정하기 힘든 시기임. 아직 비RPC 농협 등 매입이 완료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가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 농가도 일부 대농을 중심으로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나 금년 소득 증가로 자금수요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고 농협에서 가격을 지지해 주기 때문에 농가투매현상은 크게 감소함.
- 현재 쌀 가격이 전년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은 산지유통업체들이 높은 가격에 원료곡을 매입하여 원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임. 하지만 대형할인점의 매출이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쌀 판매가 줄어드는 상황이며 특히 중고가미의 판매가 부진하여 가격 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양자간 결정된 가격의 조정보다는 할인행사로 판매 및 매출을 높일 것으로 보임.
- 향후 산지가격은 당분간 보합세나 약보합세를 보이고 1~3월 가격조정이 한번 이루어고 3~5월에 가격이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 쌀 관측 가을호에서 금년 쌀 가격이 전년대비 4~7%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며 이 경우 2009양곡연도 단경기 쌀 가격은 전년대비 14.6~19.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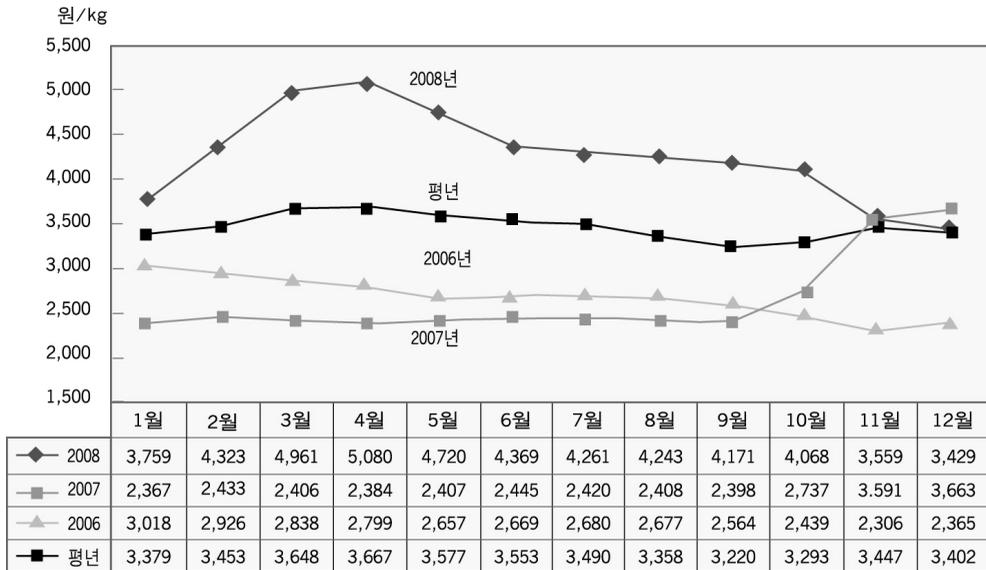
## 1.2. 대 두

- 2008년 콩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3% 감소한 7만 5,242ha임. 기상여건이 좋아 금년 단수는 1971년 이후 최고인 176kg/10a으로 전년대비 17.3% 증가함. 따라서 2008년산 콩 생산량은 전년대비 16.1% 증가한 13만 2,674톤임.
- 7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콩 도매가격은 10월 중순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음. 이는 2008년산 콩 생산량이 전년보다 많고, 국제 대두 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임. 12월 현재 백태 상품 도매가격은 전년대비 6.4% 낮은 3,429원/kg이고, 중품 도매가격은 3,143원/kg으로 전년대비 5.5% 낮음.

9) 전월 가격 변동률을 적용하여 12월 쌀 가격을 추정하면 수확기 가격(11~12월)은 16만 1,275원이며, 전년 단경기(2008. 7~8) 가격은 16만1,460원임.



콩 도매가격 동향 (국산 백태, 상품)



주: 평년은 2002년 11월~2007년 10월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가격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 채소류 <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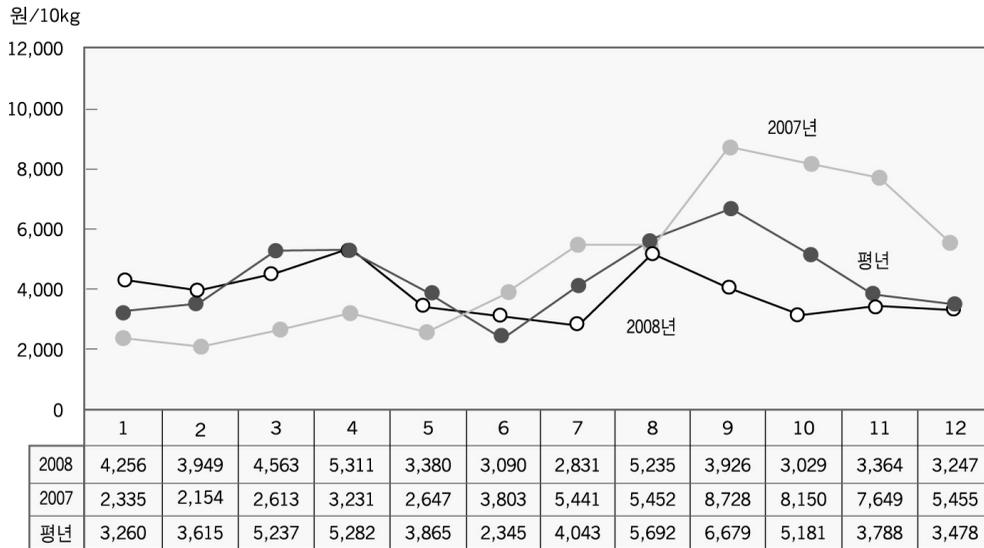
### 2.1. 배추

- 배추 4/4분기 상품 10kg당 평균도매가격은 3,210원(중품 2,360원)으로 작년보다 56%, 평년보다 28% 낮은 수준임.
- 이는 가을배추 산지출하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고랭지배추 지연출하량도 많았기 때문임. 한편, 지속된 배추 가격 약세로 고랭지배추와 가을배추 재배면적 가운데 80ha, 844ha를 각각 산지폐기 하였음.

10)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신용광 부연구위원(ykshin22@krei.re.kr), 박영구(ygpark@krei.re.kr), 김재한(jaehan@krei.re.kr), 김재환(jhkim74@krei.re.kr), 윤종열(fsyoon76@krei.re.kr), 장정경(jjk@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배추 도매가격 (상품 기준)



주: 12월 가격은 1~10일의 평균임. 평년가격은 2003년 1월~2007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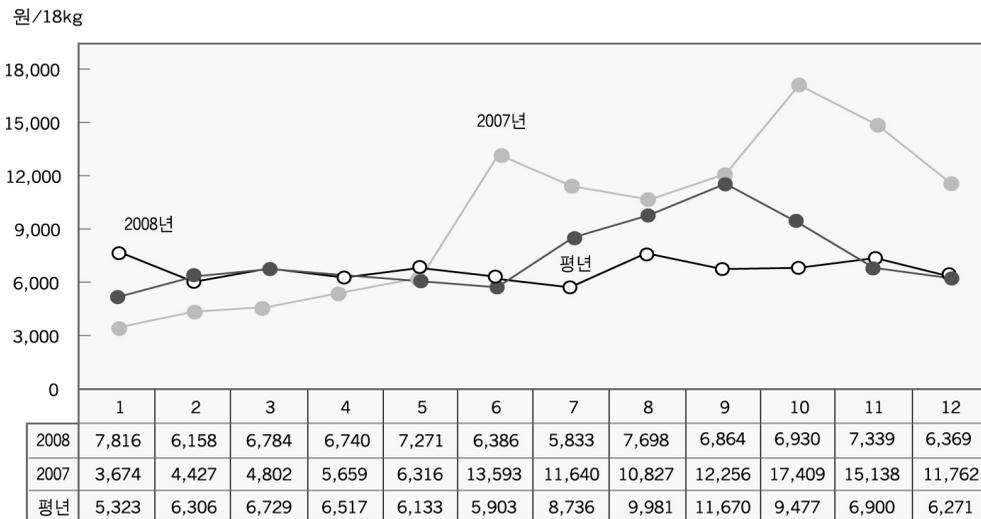
- 배추 12월 산지출하예상량은 작년보다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출하예상면적이 작년보다 6% 증가하고, 단수도 5% 증가하기 때문임.
- 월동배추 내년 1~2월 산지출하면적은 작년보다 감소할 전망임. 이는 배추 가격 약세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양파로 작목 전환한 농가가 많았기 때문임.
- 배추 12월 상품 10kg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41%, 평년보다 8% 낮은 3,200(중품 2,500원)으로 전망됨. 내년 1~2월 가격은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내년 봄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지속된 가격 약세로 재배면적을 줄인 농가가 많기 때문이며, 작형별로 하우스봄배추가 3%, 노지봄배추가 1% 감소할 전망임.



## 2.2. 무

- 무 4/4분기 상품 18kg당 평균도매가격은 6,880원(중품 5,080원)으로 작년보다 53%, 평년보다 9% 낮은 수준임.
- 이는 가을무 산지출하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지속된 가격약세로 고랭지 무 출하지연량이 많았기 때문임.

무 도매가격 (상품 기준)



주: 12월 가격은 1~10일의 평균임. 평년가격은 2003년 1월~2007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무 12월 산지출하예상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작년보다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월동무 내년 1월 출하예상면적은 금년보다 2% 증가하지만, 2월 이후에는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재배면적이 소폭 감소하였고, 기상여건 호조로 출하시기가 작년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무 12월 상품 18kg당 도매가격은 산지출하예상량 증가로 작년보다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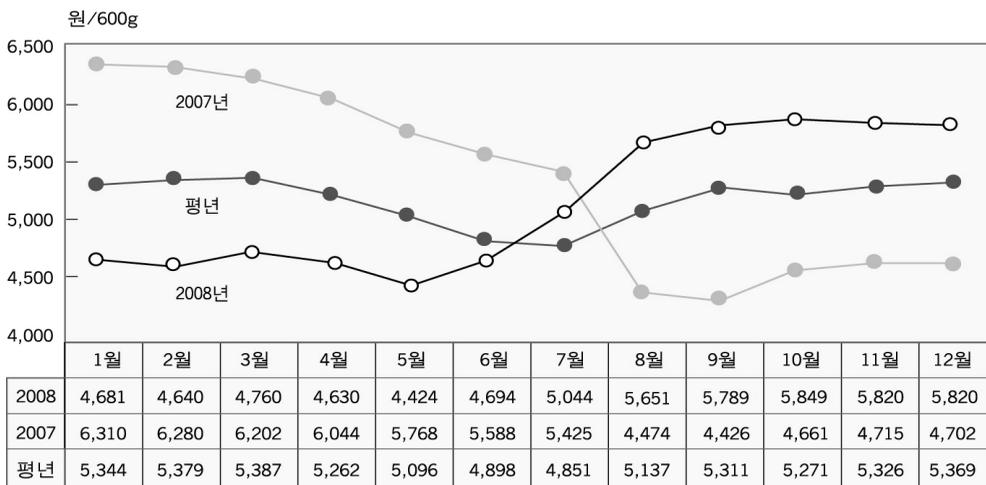
평년보다 4% 낮은 6,000원(중품 5,000원)으로 전망됨. 상순에는 김장철 수요로 다소 높겠지만, 중순 이후에는 하락할 전망이다.

- 내년 1월 무 가격은 출하면적 증가로 금년보다 낮겠지만, 2월 이후에는 금년과 평년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 내년 봄무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3%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이는 금년 출하기와 최근 가격하락으로 재배를 기피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임. 하우스봄무는 2%, 노지봄무는 3% 각각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2.3. 고 추

- 건고추 화건 4/4분기 상품 600g당 평균도매가격은 5,830원, 양건은 6,84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각각 24%, 11% 높은 수준이었음.
- 이는 2008년산 고추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작황도 부진하여 생산량이 2007년산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임.

고추(화건)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12월 가격은 1~10일의 평균임. 평년가격은 2003년 1월~2007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금년 고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23%, 평년보다 17% 적은 12만 4,000톤임. 금년산 고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1% 감소한 4만 8,825ha이며, 단수는 작년보다 13% 감소한 10a당 254kg임.
- 8월~12월 중순까지의 전체 고추 수입량(건고추 1,773톤, 고추관련품목 수입량의 건고추 환산 중량 2만 7,594톤)은 작년보다 5% 많은 2만 9,367톤임.
- 8월~12월 중순까지의 공급량은 15만 3,167톤, 소비량은 12만 7,104톤으로 작년보다 각각 19%, 17% 적은 것으로 추정됨. 12월말 고추 재고량은 작년보다 28% 적은 2만 6,063톤으로 추정됨.
- 고추 정부 재고량 536톤 중 12월 중순까지 400톤이 방출되었고, 933톤이 추가 도입되었음. 12월 중순 현재 정부 고추 재고량은 1,069톤임.
- 12월 고추 수입량은 작년보다 5% 감소한 7,700톤으로 전망됨. 이는 환율 상승으로 건고추 뿐만 아니라 혼합조미료, 김치 등 고추관련품목의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내년 1~2월 수입량도 고환율과 경기 침체로 전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 12월~내년 2월 건고추(화건) 상품 600g당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25% 높은 5,800원으로 전망됨. 이는 고추 생산량 감소로 재고량이 작년보다 28% 적고 환율 상승 여파로 수입량도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09년산 고추 재배의향면적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2008년산보다 3% 감소할 전망이다.

2009년산 고추 재배의향면적 금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체
-4.0	-3.4	-4.9	-1.6	-3.6	-1.8	-3.2	-2.8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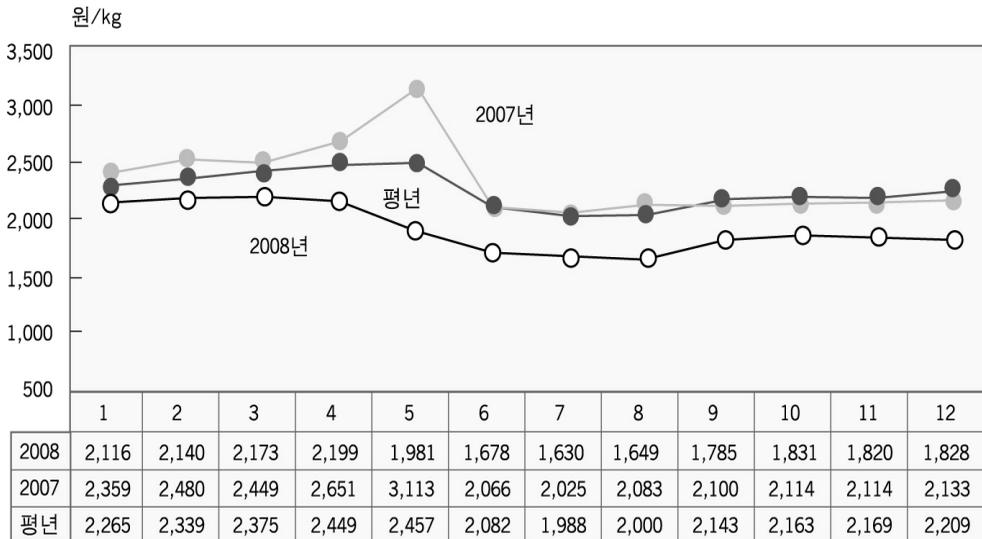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1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 2.4. 마늘

- 마늘 4/4분기 상품 kg당 평균도매가격은 1,830원(난지형 기준)으로 3/4분기보다는 상승했으나 평년 동기보다 16%, 작년 동기보다는 14% 낮은 수준임.
- 이는 금년산 마늘 생산량이 증가해 재고량이 많았던 데다 수확기 저장 수요도 감소하면서 산지 거래가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임.

마늘 도매가격 동향 (난지형, 상품 기준)



주: 12월 가격은 1~10일의 평균임. 평년가격은 2003년 1월~2007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11월 20일까지 저장업체 마늘 출고량은 작년보다 1% 적은 2만 7,100톤이며, 재고량은 16% 많은 6만 5,300톤으로 조사되었음.
- 민간저온저장량 6만 5,300톤에 정부비축물량 5,500톤을 포함한 11월 말 현재 마늘 총재고량은 7만 800톤이며, 부패율을 적용한 조정재고량은 6만 3,800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17% 증가하였음.



### 마늘 저온저장량 추정

단위: %, 톤

연산	저장량	11.20일까지 출고량	11.20일 현재 재고량	11.20일 현재 정부 비축물량	조정재고량 (부패율 적용)
2008	92,417	27,102	65,315	5,464	63,795
2007	83,820	27,430	56,390	2,254	54,422
평년	78,733	24,533	54,200	3,485	51,801
증감률	작년대비	10.3	△1.2	15.8	17.2
	평년대비	17.4	10.5	20.5	23.2

주: 조정재고량은 작년 부패율 7.2%, 금년 9.9%를 적용하여 환산.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1월 20일 저장업체 조사치.

- 12월~내년 2월 MMA를 포함한 마늘 수입량은 국내가격 약세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국내 재고량 증가로 국내 총공급량은 전년보다 10%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12월~내년 2월 마늘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현시세에서 저장비용을 감안한 1,950원으로 전망됨.

### 내년산 마늘 재배면적 금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한지형	△0.9	2.0	0.0	-	1.7	-	-	1.4
난지형	-	△10.2	△17.2	△10.6	△5.8	△4.7	△5.1	△8.3
전체	△0.9	△4.0	△13.7	△10.6	△1.0	△4.7	△5.1	△6.4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1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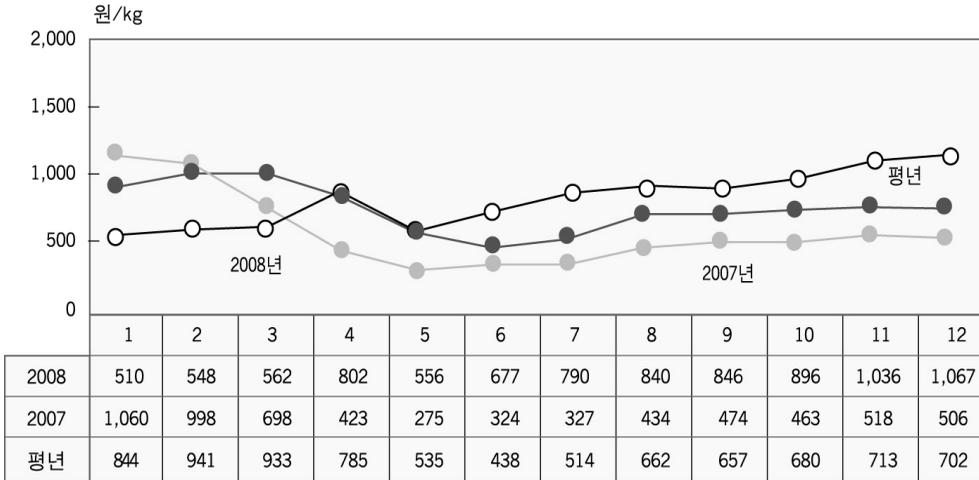
- 내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금년산보다 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품종별로는 한지형이 1% 증가했으나, 난지형은 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금년 마늘 재고량이 많아 햇마늘 수확기까지 출하될 가능성이 있어 내년산 난지형 마늘 출하기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2.5. 양 파

- 양파 4/4분기 상품 kg당 평균도매가격은 1,000원으로 작년보다 2배, 평년보다 43% 높은 수준임.
- 이는 금년 양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저장수요 증가로 초기 입고가격이 높게 형성된데다 부패율도 높아 산지 출하조절이 가격 등락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임.

양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12월 가격은 1~10일의 평균임. 평년가격은 2003년 1월~2007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저장업체 조사결과, 금년산 양파 저장량 50만 8,600톤 중 11월 20일까지 출고량은 작년보다 2% 적은 21만 4,200톤 내외로 조사되었음.
- 출고량이 작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은 조기출하된 물량이 많았고 부패율 상승에 따른 감모 요인 증가로 산지 저장업체들이 출고량을 조절했기 때문임.



양파 저온저장량 추정

단위: %, 톤

연산	저장량	11.20일까지 출고량	11.20일 현재 재고량	11.20일 현재 정부 비축물량	조정재고량 (부패율 적용)	
2008	508,612	214,187	294,425	3,956	233,429	
2007	522,240	218,772	303,468	-	249,451	
평년	464,200	201,124	263,076	-	235,716	
증감률	작년대비	△2.6	△2.1	△3.0		△1.7
	평년대비	9.6	6.5	11.9		13.4

주: 총 재고량은 작년 부패율 17.8%, 금년 21.8%를 적용하여 환산.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1월 20일 민간저장업체 조사치.

- 민간저장량과 정부비축물량을 합한 29만 8,400톤에 부패율을 적용할 경우 조정재고량은 작년 동기보다 2% 적은 23만 3,400톤으로 추정됨.
- 12월~내년 2월 양파 수입량은 환율 상승으로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재고량과 수입량을 고려한 총공급량은 전년 동기보다 8% 감소할 전망이다.
- 따라서 12~내년 2월 양파 상품 kg당 평균도매가격은 여전히 작년과 평년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됨.

내년산 양파 재배면적 금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조생종	-	6.8	-	-	14.3	9.3
중만생종	1.1	13.1	0.8	5.9	5.9	9.1
전체	1.1	12.2	0.8	5.9	12.3	9.1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1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 내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금년산보다 9%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파종 완료단계까지 양파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농가의 재배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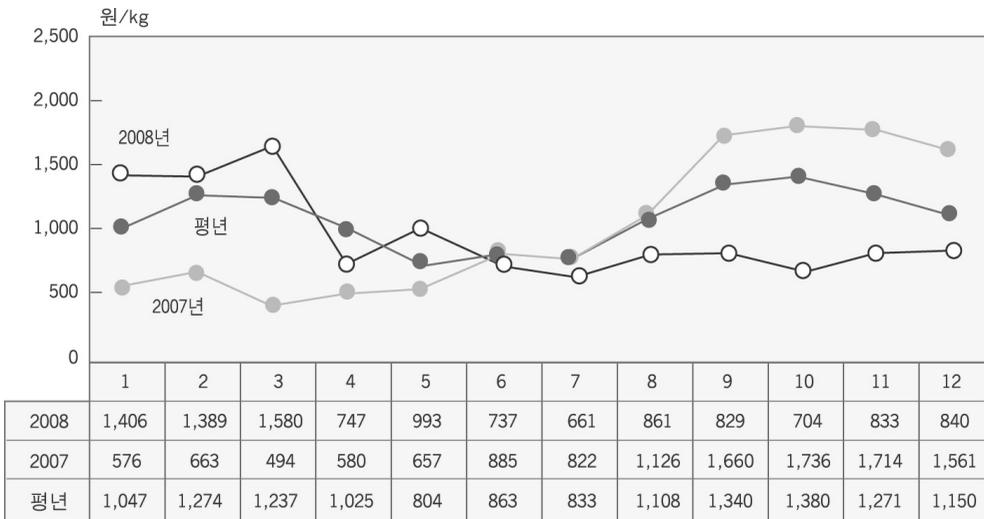


- 재배면적에 금년 단수를 적용할 경우 내년 양파 생산량은 115만톤으로 추정됨. 특히 중만생종의 경우 추정생산량은 100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여 내년에 금년과 같은 저장수요가 없다면 수확기 가격은 낮게 형성될 전망이다.

## 2.6. 대 파

- 대파 4/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kg당 793원으로 작년보다 53%, 평년보다 37% 낮은 수준임.
- 이는 출하대기량이 많은 가운데 출하면적과 단수가 증가했기 때문임.

대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12월 가격은 1~10일의 평균임. 평년가격은 2003년 1월~2007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대파 12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작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대파 12월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52% 낮은 750원으로 예상됨.



- 내년 1월과 2월 대파 출하면적은 금년보다 각각 5%, 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작황호조가 지속될 경우 가격 약세가 내년까지 장기화될 전망이다.
- 9월~12월에 진행된 월동대파 추가정식면적은 주산지를 중심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여름부터 지속된 가격 약세로 인해 대파 월동이 늘어나 내년에 출하되는 전체 월동대파 출하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겨울대파 재배면적 및 월동대파 추가정식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경기·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부산·경남	전체
겨울	-	-	-	0.8	-	-5.3	0.5
월동	-0.4	-2.8	-0.8	-	-2.4	-	-1.7

주: 월동은 2008년도 9월~12월에 실시되는 월동대파 추가정식의향면적을 의미함.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1월 20일과 12월 10일 표본농가 및 지역모니터 조사치.

**2.7. 쪽 파**

- 쪽파 4/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kg당 1,950원으로 평년보다 3% 높으나, 작년보다 32% 낮은 수준임.
- 가을가뭄과 김장철로 인해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출하면적이 증가하고 작황이 호조를 나타냄. 따라서 잦은 강우로 가격이 높았던 작년보다는 약세이나 평년과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쪽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12월 가격은 1~10일의 평균임. 평년가격은 2003년 1월~2007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쪽파 12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작년보다 2%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쪽파 12월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30% 낮은 1,850원으로 예상됨. 순별로는 잔여김장수요로 인해 초순까지는 가격이 높겠지만 중순 이후부터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파종이 원활히 진행되어 내년 1월과 2월 출하면 적은 작년보다 각각 1%, 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작황 호조가 지속될 경우 12월 가격 약세가 내년 2월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 내년 구쪽파 재배면적은 제주지역 등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이는 올해 종구가격이 높아 파종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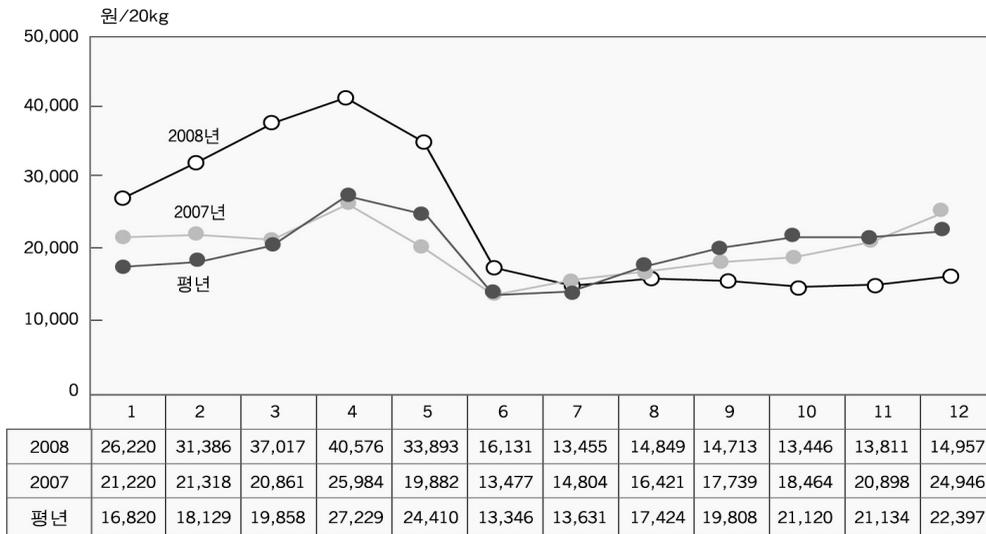
2.8. 감 자

- 수미 4/4분기 상품 20kg당 평균도매가격은 1만 4,07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4%, 평년 동기보다 35% 낮은 수준이었음.



- 이는 고랭지감자 출하량과 노지봄감자 저장량이 작년보다 증가하였고 경기 침체로 소비도 감소하였기 때문임.

감자(수미)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12월 가격은 1~10일의 평균임. 평년가격은 2003년 1월~2007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수미 12월 전체 출하량은 작년보다 7%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노지봄감자(수미)와 고랭지감자(수미) 저장량 증가로 출하량이 작년보다 각각 15%,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저장 고랭지감자(수미) 내년 1~2월 출하량은 저장량 증가로 작년보다 각각 3% 증가할 전망이다.
- 수미 12월 상품 20kg당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많고 경기 침체로 소비가 둔화되어 작년보다 44% 낮은 1만 4,000원으로 전망됨. 내년 1~2월에도 출하량이 작년보다 많아 가격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가을감자(대지) 12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30%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가을감자 출하면적과 단수가 태풍피해가 컸던 작년보다 각각 20%,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가을감자(대지) 내년 1월 출하면적은 19% 증가하고, 2월에도 18% 증가할 전망이다.



- 대지 12월 상품 20kg당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54% 낮은 2만 4,000원으로 전망됨. 내년 1~2월에도 제주도 가을감자 출하면적 증가로 가격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2009년산 겨울감자(대지) 재배의향면적은 최근 가격 약세로 금년보다 7%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대체 작목은 양파, 브로콜리 등으로 조사됨.

**2009년산 겨울감자 재배의향면적 금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서귀포시	제주시	전체
-6.4	-10.6	-7.1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1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 내년 봄감자 재배의향면적은 5% 감소할 전망이다. 시설재배는 출하기 가격 강세로 금년보다 7% 증가한 반면, 노지재배는 출하기 가격 약세로 금년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내년 봄감자 재배의향면적 금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체
시설	-	-	-	2.2	7.7	-	11.6	5.6	6.6
노지	4.0	-12.7	-11.4	3.4	-14.8	-13.1	4.6	-8.5	-4.9
전체	4.0	-12.7	-11.4	3.3	-10.0	-13.1	5.6	-4.7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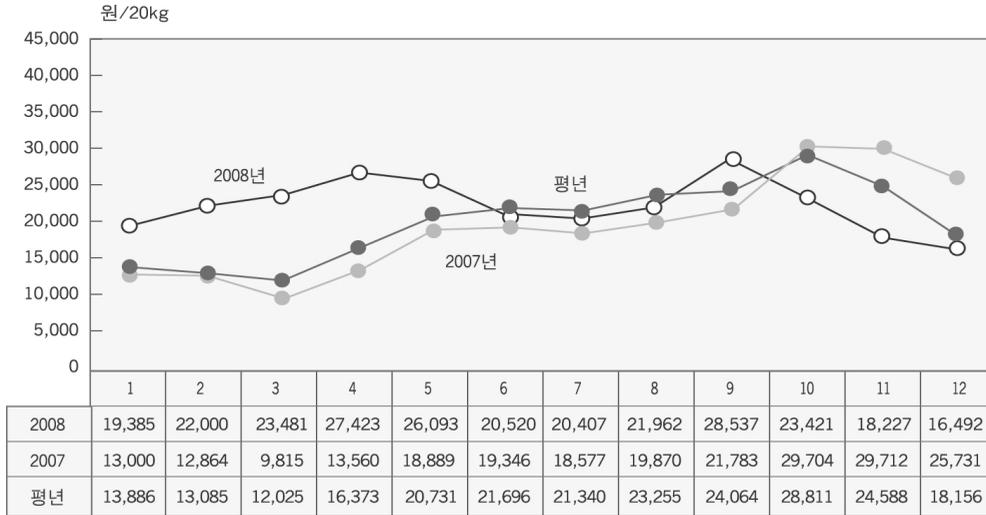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1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2.9. 당 근**

- 당근 4/4분기 상품 20kg당 평균도매가격은 1만 9,28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2%, 평년 동기보다 19% 낮은 수준임.
- 이는 수입량이 감소하였지만 산지출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당근 도매가격 (상품 기준)



주: 12월 가격은 1~10일의 평균임. 평년가격은 2003년 1월~2007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당근 12월 전체 출하량은 수입량이 감소하나 겨울당근 산지출하량이 증가하여 작년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당근 12월 산지출하면적은 겨울당근 재배면적이 작년 태풍피해 이후보다 증가하여 작년보다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단수는 태풍피해가 심했던 작년보다 기상여건이 좋아 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당근 12월 수입량은 환율이 높은데다 국내 당근 가격도 낮아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당근 내년 1월과 2월 이후의 당근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각각 19%,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당근 12월 상품 20kg당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38%, 평년보다 12% 낮은 1만 6,000원으로 전망됨. 내년 1월 이후 가격도 겨울당근 생산량 증가로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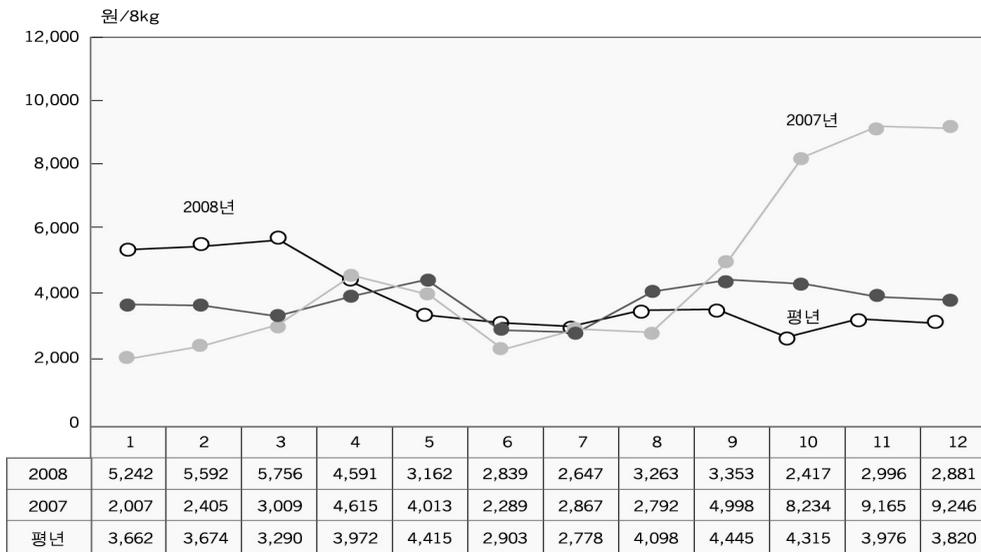


- 내년 봄당근 재배의향면적은 금년보다 4% 감소하나 평년과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작형별로는 하우스봄당근 재배의향면적이 금년보다 3%, 노지봄당근이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제주지역 겨울당근 생산량 증가로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10. 양배추

- 양배추 4/4분기 상품 8kg당 평균도매가격은 2,77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9%, 평년 동기보다 32% 낮은 수준임.
- 이는 작황호조로 인한 단수 증가로 산지출하량이 많았기 때문임.

양배추 도매가격 (상품 기준)



주: 12월 가격은 1~10일의 평균임. 평년가격은 2003년 1월~2007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양배추 12월 산지출하량은 가을 및 겨울양배추의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작년보다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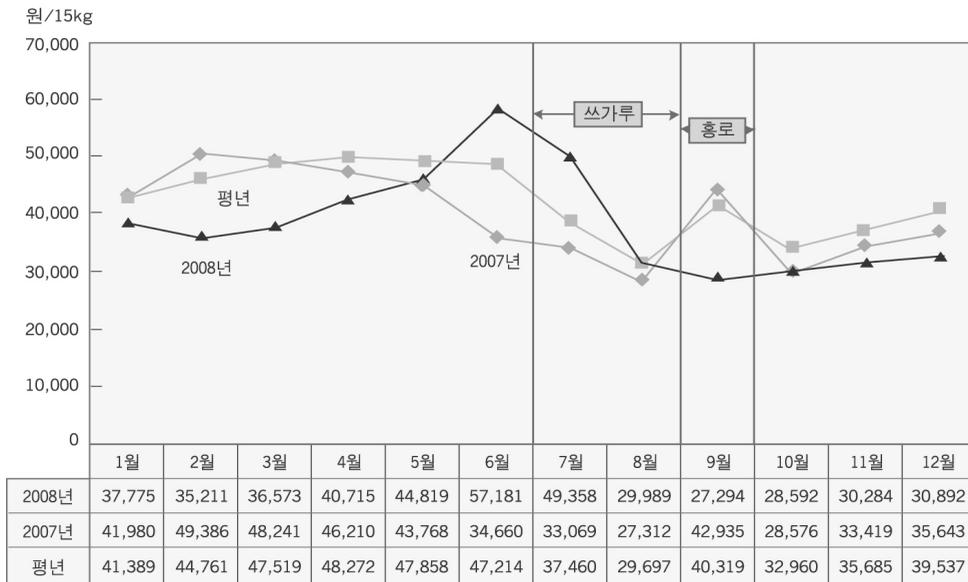
- 12월 산지출하면적은 가을 및 겨울양배추 재배면적 증가로 작년보다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단수는 태풍피해가 심했던 작년보다 기상여건이 좋아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양배추 12월 상품 8kg당 도매가격은 작년과 평년보다 크게 낮은 2,900원으로 전망됨.
- 내년 1월과 2월 이후 양배추 산지출하면적은 겨울양배추 재배면적 증가로 작년보다 각각 19%,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기상이변이 없는 한 작황 호조로 산지출하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내년 봄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금년보다 6% 감소하고 평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작형별로는 하우스봄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이 금년보다 4%, 노지양배추가 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겨울양배추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임.



### 3. 과일<sup>11)</sup>

#### 3.1. 사과

사과 도매가격



주: 7~8월은 쓰가루, 9월은 홍로, 10월부터는 후지 품종 기준임. 평년은 2004. 1~2008. 12월 가격 중 매월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10월 도매가격 (상품 15kg, 가락시장 기준)은 2만 9천원(중품 2만 4천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 11월 도매가격은 3만원(중품 2만 2천원)으로 전월보다 6% 높지만 작년보다 9%, 평년보다 15% 낮았음. 작년 및 평년보다 낮지만 추석 이후 출하물량의 품질이 좋아 가격이 회복세를 보였음.
- 12월 상순 도매가격은 3만 1천원(중품 2만 1천원)으로 전월과 비슷하나, 작년 동기대비 14% 낮은 수준을 보였음.

11)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배성(bbskim@krei.re.kr), 천인석(chunis94@krei.re.kr), 안명옥(moan@krei.re.kr), 허정희(berliner@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올해 성목단수 조사결과, 10a당 수확량은 2.4~2.5톤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올해 사과 생산량은 44~47만톤 수준으로 추정됨.
- 생산량 추정결과에 따라 12월 출하량은 작년 동월보다 3.5~10.4% 증가한 3만 5천~3만 7천톤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 설이 있는 1월 출하량은 6만 3천~6만 7천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사과 출하량 추정

단위: 천톤, %

	생산량	수출량	출하량				
			7~10월	11월	12월	1월	2월 이후
'07년산	435	1.3	157.3	37.5	33.3	60.4	93.9
'08년산	441 ~470*	2.3	170.7	37.6	34.5 ~36.6*	62.7 ~66.8*	91.6 ~110.0*
증감률	1.4 ~8.1*	74.2	8.6	0.2	3.5 ~10.4*	3.8 ~10.8*	-2.9 ~18.3*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시기별 출하량 및 '09년산 수출량은 11월 17~26일 모니터 조사에 의한 전망치. 출하량은 생산량에서 비상품을 제외한 것임. 별표(\*)는 통계청 발표 생산량 및 이에 근거한 출하량 전망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07 생산량 및 '08년 별표표시 생산량)

- 내년도 사과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1% 증가한 3만 270ha 수준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음. 지역별로는 충청과 경북이 각각 1% 늘어날 것으로 조사되었음.
- 품종별로는 쓰가루 6%, 홍월이 22% 감소하나, 후지 2%, 홍로가 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쓰가루, 홍월 대신 홍로나 저장이 가능해 가격이 안정적인 후지로의 품종갱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사과 재배의향 면적

단위: ha, %

	충청	경북	경남	전체
‘08	5,663	19,301	2,629	30,006
‘09	5,697	19,434	2,636	30,270
증감률(‘09/‘08)	0.6	0.8	0.3	0.9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09년 면적은 11월 17~26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에 의한 전망치. 시 지역은 인근도에 포함.

자료: 통계청

사과 품종별 재배의향면적

단위: ha, %

	후지	쓰가루	홍로	홍월	기타	전체
‘08	20,488	2,164	2,294	629	4,431	30,006
‘09	20,853	2,040	2,326	492	4,559	30,270
증감률(‘09/‘08)	1.8	-5.8	1.4	-21.9	2.9	0.9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각 연도 품종별 면적과 ‘09년 면적은 11월 17~26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에 의한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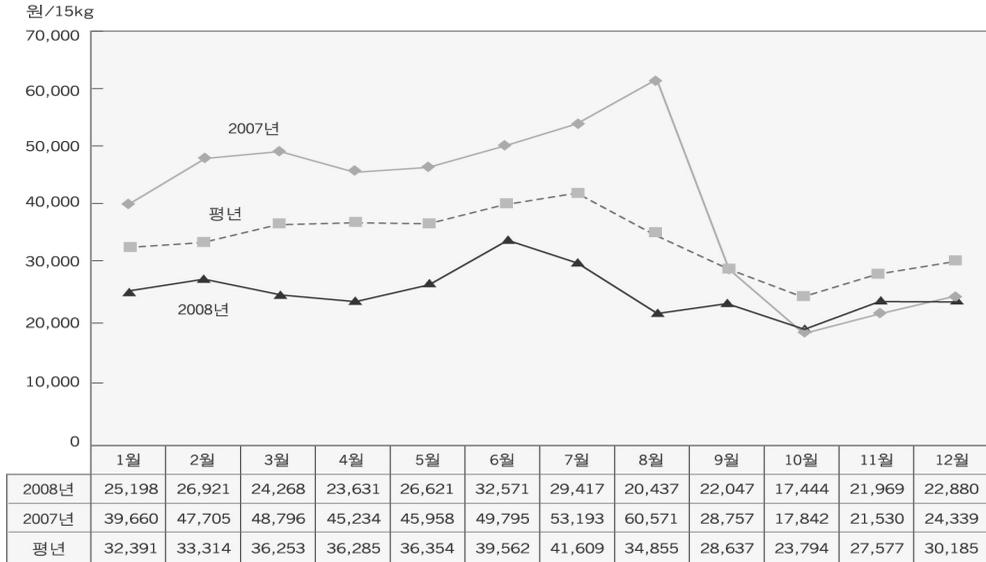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3.2. 배

- 10월 도매가격 (상품 15kg, 가락시장 기준)은 1만 7천원(중품 1만 4천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11월 도매가격은 2만 2천원(중품 1만 7천원)으로 평년(2만 7천원)보다 낮지만, 전월보다 26% 높고,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



배 도매가격 (신고 15kg 상품)



주: 평년은 2004. 1~2008. 12월 가격 중 매월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11월 반입량이 작년보다 2% 증가하였으나, 품질(당도, 크기)이 좋고, 산지 폐기(1만톤) 및 지속적인 소비촉진 홍보로 인해 추석 이후 하락한 가격이 작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음.
- 12월 상순 상품가격은 2만 2천원(중품 1만 7천원)으로 전월과 비슷하나, 작년 동기대비 9% 낮은 수준임.
- 12월 출하량은 작년 동기보다 2% 감소한 2만 4천톤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 설 명절(1월 26일)이 있는 1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2% 증가한 9만톤 수준 될 것으로 전망됨.
- 내년도 배 재배면적은 올해보다 3% 감소한 1만 7,782ha가 될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경기 안성·평택 지역, 충청 천안·아산지역, 영남 울산지역 등에서 도시계획에 따른 폐원과 배 가격 약세에 따른 자두, 참다래, 복숭아 등 대체작목으로의 전환, 고령화에 따른 폐원 등의 영향으로 파악됨.



### 배 출하량 전망

단위: 천톤, %

	생산량	수출량	출하량			
			9~11월	12월	1월	2월 이후
'07년산	467	19.9	162.4	25	87.8	97.9
'08년산	470	26.9	159.2	24.3	89.3	91.7
증감률	0.7	35.1	-2.0	-2.3	1.7	-6.3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시기별 출하량은 11월 17~26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에 의한 전망치. '08년 출하량은 1만톤 폐기조치를 적용한 수치임. 출하량은 생산량에서 비상품을 제외한 것임.  
 자료: 통계청('07, '08년 생산량)

- 지역별로는 영남 4%, 충청 3%, 경기 2%, 호남 1%, 각각 감소하고, 품종별로는 신고, 원황 등이 각각 3%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 배 재배의향 면적

단위: ha, %

	경기	충청	호남	영남	전체
'08	3,343	3,964	5,421	5,038	18,277
'09	3,280	3,849	5,351	4,815	17,782
증감률('09/'08)	-1.9	-2.9	-1.3	-4.4	-2.7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09년 면적은 11월 17~26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에 의한 전망치.  
 자료: 통계청

### 배 품종별 재배의향면적

단위: 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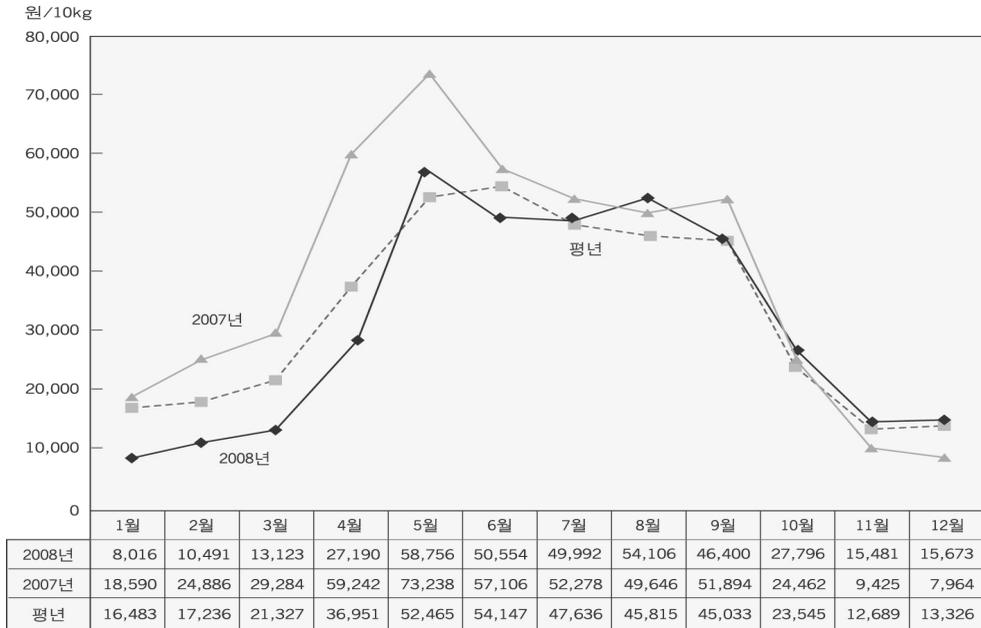
	신고	장십량	황금배	원황	기타	전체
'08	14,068	518	416	1,092	2,183	18,277
'09	13,709	488	401	1,059	2,125	17,758
증감률('09/'08)	-2.6	-5.7	-3.6	-3.0	-2.7	-2.7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각 연도 품종별 면적과 '09년 면적은 11월 17~26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에 의한 전망치.  
 자료: 통계청



### 3.3. 감귤

감귤 도매가격 (10kg 상품)



주: 4~9월까지지는 월동 및 하우스온주 5kg을 10kg으로 환산한 가격임. 평년은 2003. 1~2007. 12월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10월 노지온주(상품 10kg) 가격은 작년보다 14%, 평년보다 18% 높은 2만 7,800원이었으며, 11월 가격은 작년보다 64%, 평년보다 22% 높은 1만 5,500원으로 생산량 감소로 인한 가격 강세가 지속됨.
- 올해 노지온주는 성목면적이 작년보다 3% 감소하고 성목단수가 20% 감소하여 생산량은 22% 감소한 52만 7천톤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이는 극심한 해거리 현상으로 인한 저조한 착과율 때문임.
- 노지온주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인해 10월에 작년보다 15%, 11월에 16% 감소하였고 12월에는 17%, 1월에는 15% 감소할 전망이다.



노지온주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톤, %

	성목면적	성목단수	생산량
'07	18,469	3,670	677,770
'08	17,872	2,951	527,345
증감률	-3.2	-19.6	-22.2

주: '07년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08년은 농업관측정보센터 11월 17~26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에 의한 추정치임.

노지온주 월별 출하량 전망

단위: 톤, %

	생산량	출 하 량					
		계	10월	11월	12월	1월	2월이후
'07	677,770	459,738	36,666	97,111	130,105	134,872	60,984
'08	527,345	382,325	31,032	81,621	107,857	114,237	47,579
증감률	-22.2	-16.8	-15.4	-16.0	-17.1	-15.3	-22.0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11월 17~26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에 의한 전망치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07년~'08년 11월)

- 8월 이후 기상여건이 좋아 노지온주의 당도는 지난해보다 0.5°Bx 높은 10.2°Bx일 것으로 전망됨. 설탕 등 외관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적은 착과수로 인해 소비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대과비율이 높을 전망이다.
- 12월 오렌지 수입량은 1천톤 미만으로 작년 및 평년보다 70%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미국산 오렌지의 작황 부진에 따른 현지 가격 강세와 더불어 환율 상승에 따라 수입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기 때문임.



감귤 품종별 내년 재배의향면적 증감률

단위: %

	온주				만감류		계
	노지	월동	하우스 (가온)	하우스 (무가온)	한라봉	기타	
증감률	-0.8	4.2	-4.9	3.3	2.9	4.1	-0.3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11월 17~26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에 의한 전망치임.

- 내년도 감귤 재배의향면적은, 노지온주 및 가온하우스 면적이 감소하고 월동온주, 무가온하우스 및 만감류의 재배면적이 늘어날 전망이다.
- 이는 FTA지원사업으로 시설재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노지 재배가 시설 재배로 전환되기 때문임. 다만, 시설 재배 중에서 유류비 부담이 큰 가온하우스의 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가온하우스는 면적 자체가 줄어들고 동시에 유류비 부담이 큰 극조기 및 조기 가온에서 보통 및 후기 가온으로 작형을 전환할 전망이다.

하우스온주 가온시기별 내년 재배의향면적

단위: %

	극조기	조기	보통	후기	계
증감률	-11.3	-18.2	-0.3	-3.2	-4.9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11월 17~26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에 의한 전망치임.

3.4. 단감

- 올해 단감은 성목면적이 작년보다 2% 감소하고 성목단수가 5% 감소하여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7% 감소한 19만 2천톤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단감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톤, %

	성목면적	성목단수	생산량
'07	14,243	1,457	207,472
'08	13,910	1,382	192,211
증감률	-2.3	-5.2	-7.4

주: '07년 자료는 통계청, '08년은 농업관측정보센터 11월 17~26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를 토대로, 통계청 발표 '07년 생산량에 맞추어 조정된 것임.

- 단감 11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11% 감소하였음. 이는 올해 생산량 감소 때문으로, 12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10% 감소하고, 설 연휴가 있는 1월에는 감소폭이 적어 7% 감소할 전망이다.

단감 월별 출하량 전망

단위: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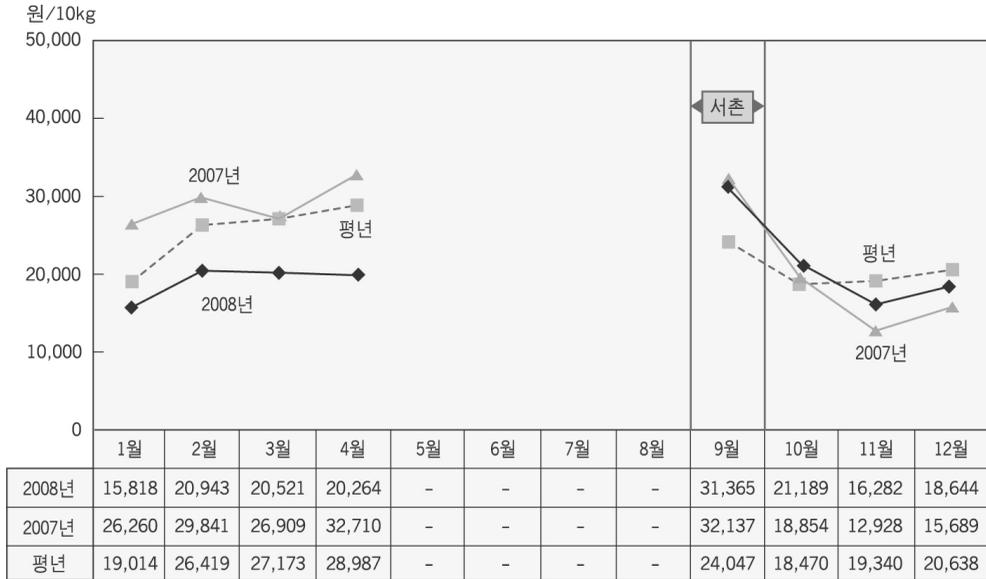
	생산량	출 하 량					
		계	10월이전	11월	12월(전망)	1월	2월이후
'07	207,472	186,725	44,672	58,237	30,996	31,219	21,590
'08	192,211	171,068	42,619	52,064	27,958	29,127	19,299
증감률	-7.4	-8.4	-4.6	-10.6	-9.8	-6.7	-10.6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11월 17~26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에 의한 전망치임.

- 올해 가을에 일조량은 많았던 반면 강우량은 적어 단감의 평균 당도는 15.6°Bx으로 작년 및 평년보다 약 1°Bx 높을 전망이다.
- 섶택 등 외관은 작년 및 평년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과실 비대기의 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과 비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됨.



단감 도매가격 (10kg 상품)



주: 9월은 서촌조생, 10월 이후는 부유 기준임. 평년은 2003.1~2007.12월 가격 중 매월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내년도 재배의향면적 조사 결과, 단감 재배면적이 금년보다 2% 수준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단감이 타 작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향후 뽕은감이나 매실, 참다래 등의 작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감 품종별 재배의향면적 증감률

단위: %

	부유	차랑	서촌	기타	계
증감률	-1.6	-4.8	-6.4	-0.2	-1.9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11월 17~26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에 의한 전망치임.



### 3.5. 포도

- 내년도 포도 재배면적은 올해보다 1% 감소한 1만 8,047ha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로는 경기, 강원, 호남지역은 재배면적이 다소 증가하나 충청지역은 도시개발 등으로 노지면적이 5%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포도 지역별 재배의향 면적

단위: ha, %

	경기·강원	영남	호남	충청	전체
'08	3,293	8,886	1,330	4,731	18,240
'09	3,302	8,864	1,364	4,516	18,047
증감률	0.3	-0.2	2.6	-4.5	-1.1

주: '08년 전체 재배면적은 통계청, '09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 11월 17~26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에 의한 전망치임.

- 재배 작형별로는 노지면적이 1만 6,148ha로 올해보다 1.3% 감소, 하우스 면적은 1,898ha로 작년보다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가온하우스 면적은 올해보다 5.5% 감소하나, 무가온하우스의 면적은 4.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무가온하우스 면적의 증가는 고품질 포도의 생산과 수확기 가격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임.
- 품종별 재배면적은 캠벨얼리와 세리단이 2% 감소, 거봉과 MBA는 각각 1%, 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최근 캠벨얼리에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거봉, 자옥 등 4배체 품종으로의 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포도 작형별 재배의향면적

단위: ha, %

	노지	하우스			전체
		가온	무가온	합계	
'08	16,368	522	1,350	1,872	18,240
'09	16,148	493	1,405	1,898	18,047
증감률	-1.3	-5.5	4.1	1.4	-1.1

주: '08년 전체 재배면적은 통계청, '08년 가온하우스면적과 '09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 11월 17~26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에 의한 전망치임.

포도 품종별 재배의향면적

단위: ha, %

	캠벨얼리	거봉	MBA	세리단	텔라웨어	기타	전체
'08	13,055	2,477	1,340	482	116	770	18,240
'09	12,740	2,488	1,365	472	116	866	18,047
증감률	-2.4	0.5	1.9	-2.0	0.0	12.4	-1.1

주: '08년 전체 재배면적은 통계청, '09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 11월 17~26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에 의한 전망치임.

- 11~12월 가온의향 면적은 작년대비 24%, 1월은 6%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반면 2월은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가온준비시기인 11월 유가가 높았고, 내년 상반기 경기하강에 따른 수요부진이 우려되기 때문임.

가온 하우스포도의 가온시기별 재배의향면적

단위: ha, %

	11~12월	1월	2월	합계
'08	86	236	200	522
'09	65	222	207	493
증감률	-24.4	-6.0	3.3	-5.5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11월 17~26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에 의한 전망치임.



- 가온시기별 재배의향면적 조사결과에 따라 내년도 가온하우스 포도의 예상출하시기는 4~5월에 21%, 6월에 9% 감소하는 반면 7월에는 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8월 출하의향면적이 감소한 이유는 최근 8월 포도 가격이 7월에 비해 크게 하락하기 때문임.

**가온 하우스포도의 예상출하시기별 출하의향면적**

단위: ha, %

	4~5월	6월	7월	8월	합계
'08	64	175	259	24	522
'09	50	159	261	23	493
증감률	-21.3	-9.1	0.9	-6.3	-5.5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11월 17~26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에 의한 전망치임.

- 11월 포도 수입량은 작년대비 72% 감소한 443톤 수준이었다. 이는 환율 상승으로 수입포도의 원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임.

**신선포도 수입량**

단위: 톤

	1~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06	15,359	43	177	394	334	482	502	17,291
'07	23,482	337	276	493	1,294	1,569	351	27,802
'08	29,441	292	570	918	206	443		31,870

주: '08년 11월 수입량은 일별자료에 의한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관세청

- 12월 포도 수입량은 미국현지 수요 감소로 인한 현지가격 하락으로 작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 내년 1월 중순부터 수입될 칠레산 포도의 현지 작황은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최근 환율상승으로 내년 상반기 수입량은 올해 동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12월 상순 현재 대미달러당 평균환율은 작년 동기보다 57% 상승 1,460원 수준임.

### 3.4. 복숭아

- 내년도 복숭아 재배면적은 유모계 면적이 올해와 비슷한 9,994ha, 천도계 면적은 올해보다 2% 증가한 2,674ha로 전체 재배면적은 '08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지역별로는 경기·강원지역이 1.4%, 영남, 충청 지역이 각각 0.7%, 0.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경기지역은 배에서, 영남 지역은 사과·대추에서, 충청지역은 논벼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복숭아로 전환될 것으로 조사되었음.

복숭아 지역별 재배의향면적

단위: ha, %

	경기·강원	영남	호남	충청	전체
'08	1,737	5,931	1,165	3,805	12,638
'09	1,761	5,970	1,120	3,815	12,667
증감률	1.4	0.7	-3.8	0.3	0.2

주: '08년 전체 재배면적은 통계청, '09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 11월 17~26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에 의한 전망치임.

- 유모계 조생종과 중생종은 올해보다 각각 0.7%, 1.3% 증가할 전망이나, 만생종은 1.5%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그 동안 만생종을 주로 재배하였던 경기·충청지역에서 수확기를 분산시키기 위해 가격이 보다 안정적인 조·중생종으로의 전환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천도계 조생종과 중생종은 올해보다 각각 1.6%와 3.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된 반면 만생종은 0.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최근 5년 여 동안 천도계 조생종과 중생종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경북 경산·영천지역에서 신규식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복숭아 품종별 재배의향면적**

단위: ha, %

	유모계	천도계	전체
'08	10,011	2,627	12,638
'09	9,994	2,674	12,667
증감률	-0.2	1.8	0.2

주: '08년 전체 재배면적은 통계청, '09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 11월 17~26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에 의한 전망치임.

**복숭아 숙기별 재배의향면적**

단위: %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전체
유모계	0.7%	1.3%	-1.5%	-0.2%
천도계	1.6%	3.3%	-0.1%	1.8%
전체	1.0%	1.8%	-1.3%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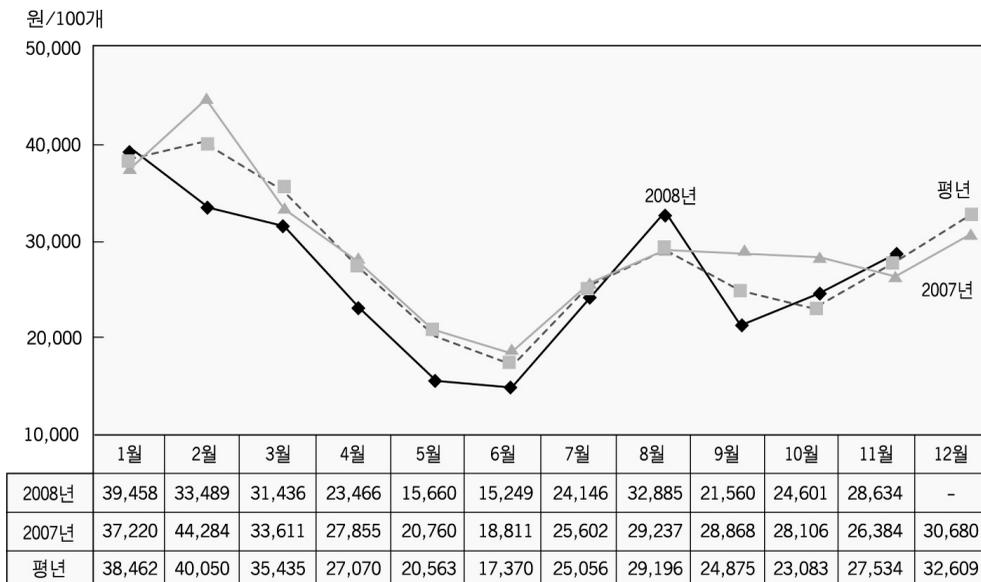


## 4. 과 채 <sup>12)</sup>

### 4.1. 오이

- 백다다기오이 4/4분기 가격은 상품 100개에 10월에 2만 4,600원, 11월은 3만 8,600원으로 평년보다 높았음.
- 취청오이 4/4분기 가격은 상품 50개에 10월 1만 3,200원으로 평년보다 낮았지만 11월은 2만 6,700원으로 평년보다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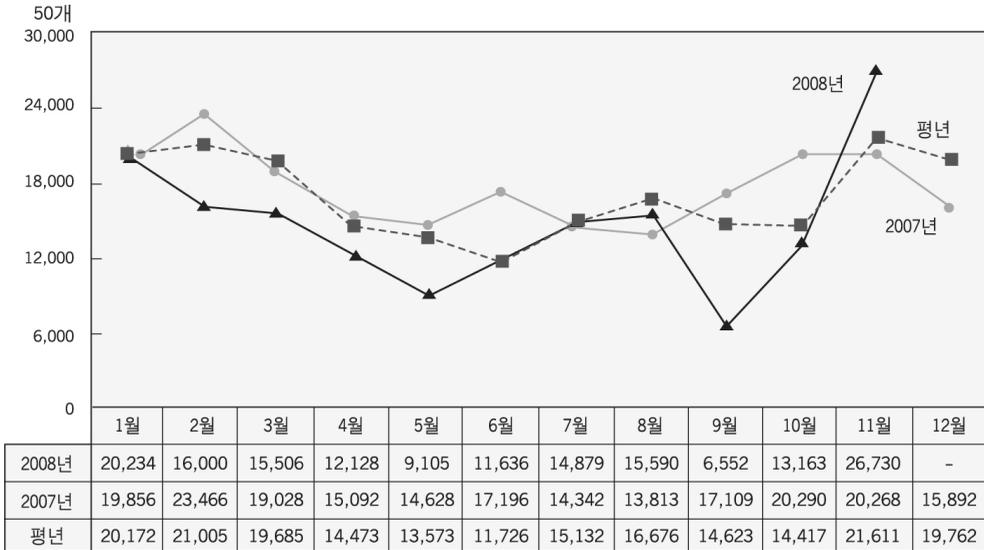
백다다기 도매가격 동향 (상품)



12)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정은미 부연구위원(jeongem@krei.re.kr), 김원태(wtkim@krei.re.kr), 김수림(surim@krei.re.kr), 윤선희(sunny@krei.re.kr) 강민수(kangms@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취청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평년가격은 2003~2007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백다다기오이 12월 출하량은 충청과 호남지역의 재배면적이 줄고 작황도 부진하여 작년보다 5% 적을 것으로 전망되며, 12월 가격은 출하량이 적어 평년보다 4% 높은 상품 100개에 3만 2천~3만 6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취청오이 12월 출하량은 경기와 호남지역에서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줄고 작황도 부진하여 작년보다 14% 적을 것으로 전망되며, 12월 가격은 출하량이 적어 평년보다 14% 높은 상품 50개에 2만 1천~2만 4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백다다기오이 12월~내년 2월 정식면적은 월동작형을 포기한 충청지역의 정식의향이 증가하고 경기지역에서 신규시설면적이 늘어 금년보다 1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 12월 정식면적은 정식시기를 앞당기거나 내년 1~2월로 늦추어 작년보다 17%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음. 내년 1~2월 정식면적은 경기와 충청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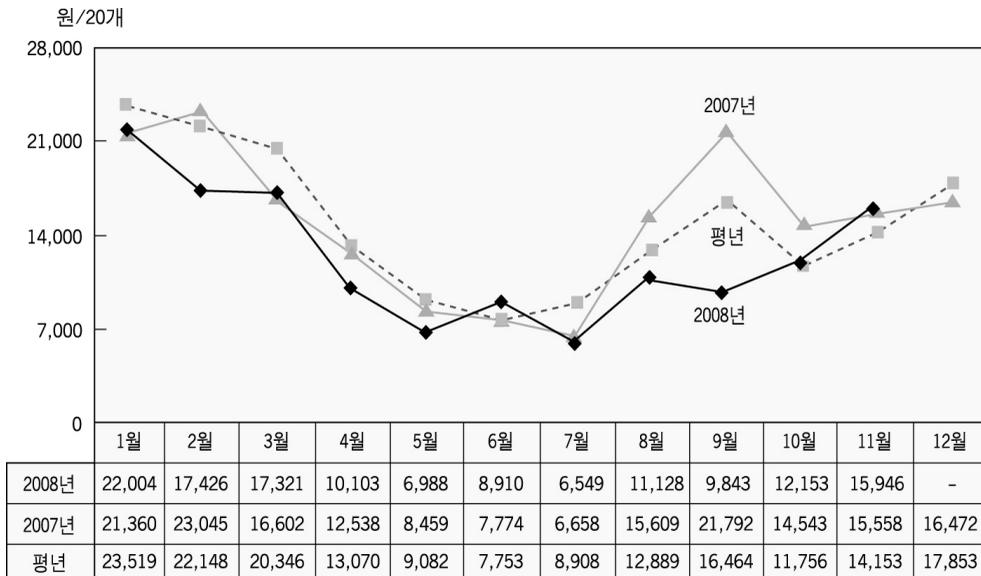


의 일부 축성농가가 반축성작형으로 정식시기를 늦추어 금년보다 5%,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취청오이 12월~내년 1월 정식면적은 금년과 비슷하지만 내년 2월은 금년보다 5%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음.
- 충청지역 정식면적은 지자체의 시설지원으로 신규시설면적이 늘어 금년보다 18%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음. 호남지역은 일부 농가가 토마토, 감자, 쌈채류 등으로 전환하여 금년보다 1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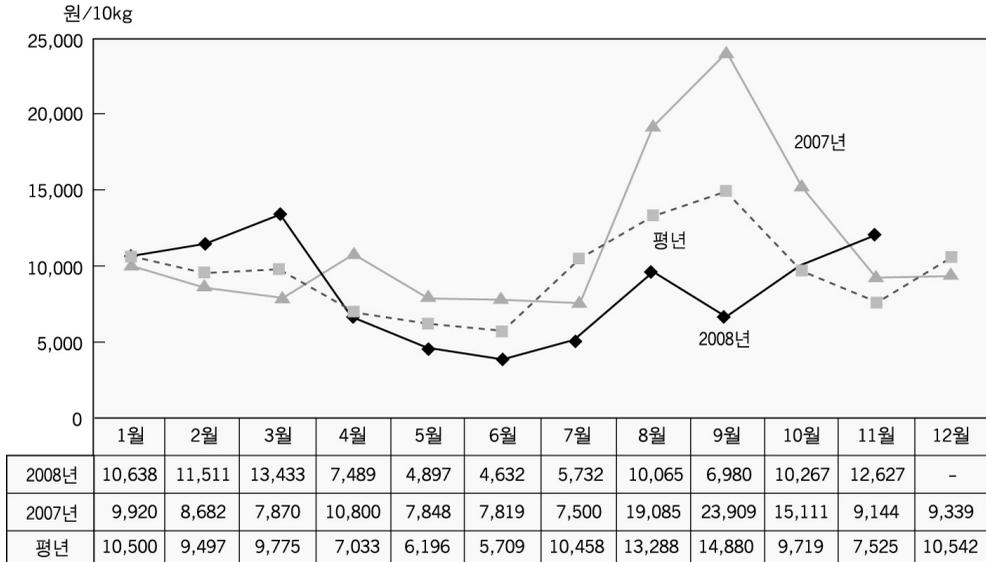
## 4.2. 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 (상품)





쭈키니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평년가격은 2003~2007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애호박 4/4분기 가격은 상품 20개에 10월 1만 2,200원, 11월 1만 5,900원으로 평년보다 높았음.
- 쭈키니호박 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10월 1만 300원, 11월 1만 2,600원으로 평년보다 높았음.
- 애호박 12월 출하량은 충청과 호남지역의 재배면적이 늘고 작황도 좋아 작년보다 4%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12월 가격은 출하량이 많지만 쭈키니호박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과 비슷한 상품 20개에 1만 5천~1만 8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쭈키니호박 12월 출하량은 겨울철 가격변동에 대한 우려로 재배면적이 줄어 작년보다 5% 적을 것으로 전망되며, 12월 가격은 출하량이 적어 평년보다 4%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1만 3천~1만 7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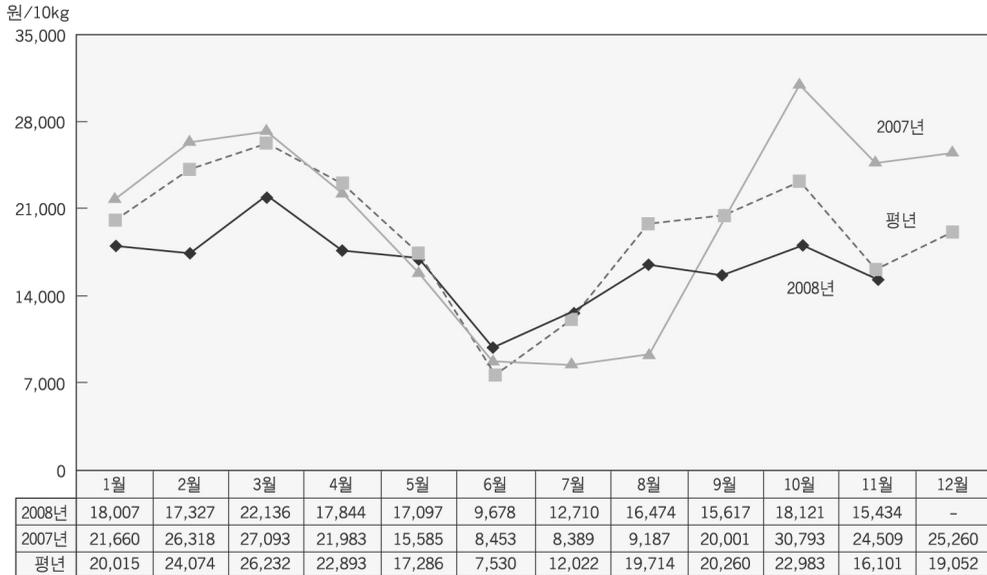
- 애호박 12월~내년 2월 정식면적은 충청과 호남지역의 일부 농가가 오이에서 애호박으로 전환하여 금년보다 6%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 12월 정식면적은 호남지역에서 정식시기를 앞당겨 작년보다 4%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음. 내년 1~2월 정식면적은 충남 부여와 광주광역시의 일부 수박, 오이농가가 애호박으로 전환되어 금년보다 10%,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추키니호박 12월~내년 2월 정식면적은 금년보다 4%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 경기와 충청지역 정식면적은 신규시설면적이 늘어 금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음. 호남지역은 일부 농가가 애호박, 배추 등으로 전환하여 금년보다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4.3. 일반토마토

- 4/4분기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10월 18,100원, 11월 15,400원으로 10월은 작년 동기보다 41%, 11월 37% 낮았음.
- 10~11월 가격이 낮았던 것은 가을철 기상호조로 강원지역의 출하가 지속되면서 반입량이 크게 증가해 중·하순 가격이 작년보다 크게 하락했기 때문임.
- 12월 일반토마토 가격은 평년수준을 보이고 내년 1월에는 평년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됨.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평년가격은 2003~2007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12월 정식면적은 부산광역시, 충남에서 난방비 부담으로 정식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어 작년보다 5% 감소하고 내년 1월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내년 2월은 충남과 영남지역에서 정식을 늦추고 경북의 일부 농가가 오이에서 토마토로 전환하여 금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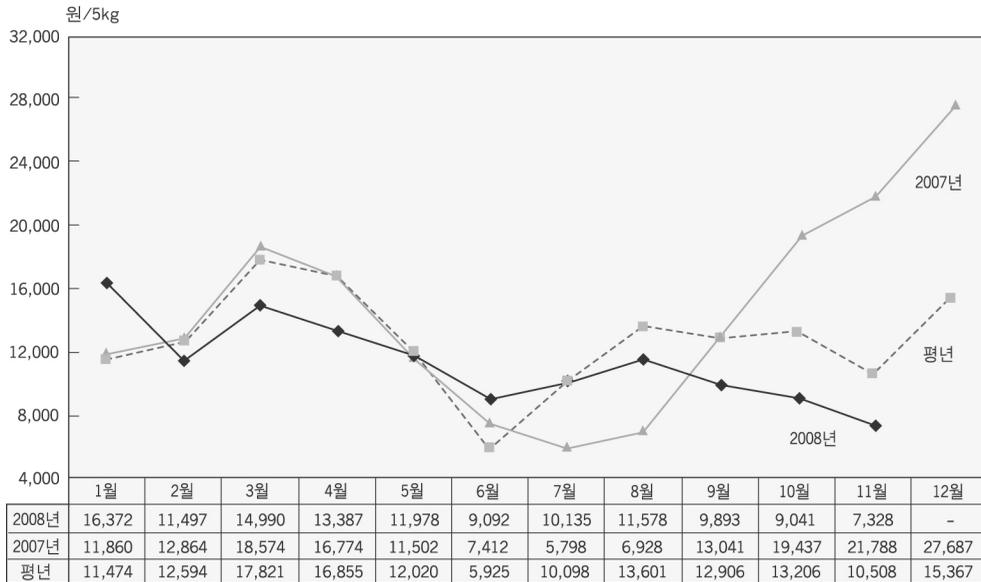
4.4. 방울토마토

- 4/4분기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5kg에 10월 9천원, 11월 7,3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0월 54%, 11월 66% 낮았음.
- 10~11월 가격이 낮았던 것은 주산지인 강원과 충청지역의 작황이 양호하여 출하량이 작년보다 많았기 때문임.
- 12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평년보다 22% 낮고 내년 1월은 출하량 적어 평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12월~내년 2월 정식면적은 금년보다 2% 늘 것으로 예상됨. 12월은 충청 지역의 정식시기가 늦춰지고 애호박, 딸기 등으로 전환되어 작년보다 10% 감소하고 내년 1~2월은 호남, 충청지역에서 정식시기를 늦추고 일부 오이 농가가 토마토로 전환하여 6%, 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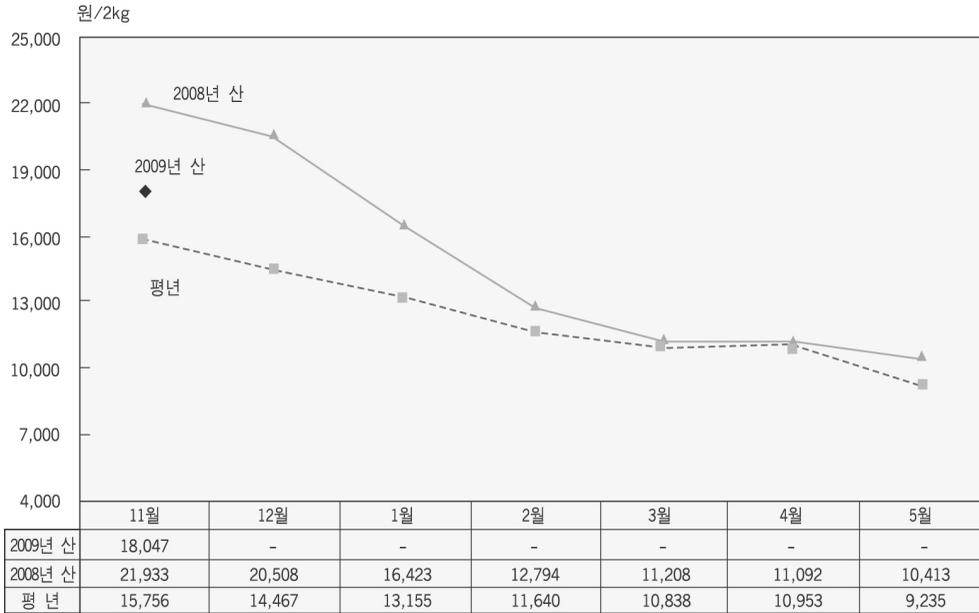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03~2007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4.5. 딸기

- 딸기 도매가격은 11월 소비대체재인 과일가격 약세로 상품 2kg 상자에 1만 8천원으로 작년보다 18% 낮았음. 11월 출하량은 경남지역의 지자체의 시설지원으로 재배면적이 늘고 정식기 잦은 강우로 탄저병이 발생하는 등 작황이 부진하였던 작년보다 작황이 좋아 출하량이 많았음.



딸기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가격은 월별자료임. 평년은 2003~2007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12월~내년 1월 출하면적은 축성작형인 국산품종(설향) 재배면적이 늘어 작년보다 5%, 6%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영남지역은 지자체의 지원으로 시설면적이 증가하였고 충청·호남지역은 축성면적이 늘어 출하면적이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12월~내년 1월 출하량은 출하면적이 늘고 단수도 높아 작년 12월과 금년 1월보다 5%, 6% 많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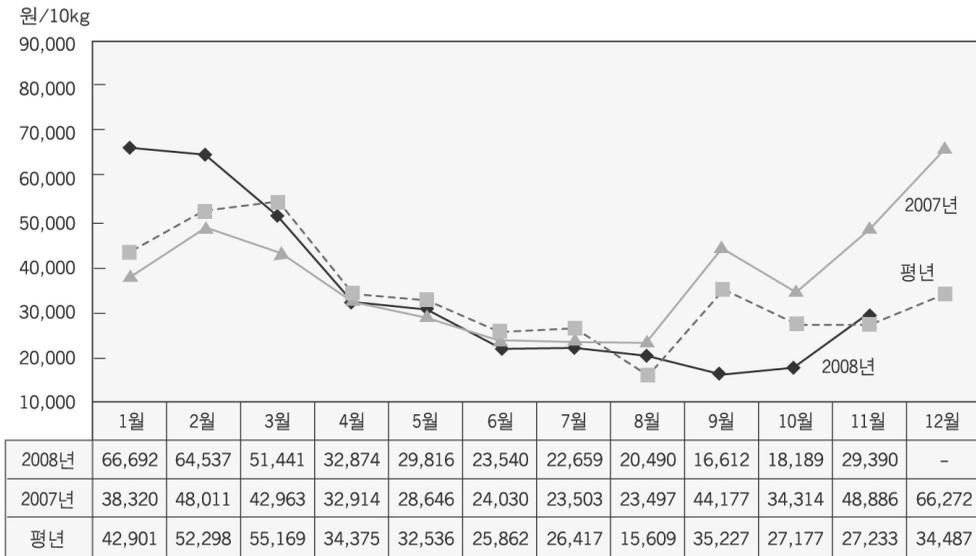
4.6. 일반풋고추

- 4/4분기 일반풋고추 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10월 1만 8,200원, 11월 2만 9,400원으로 평년보다 각각 33%, 7% 낮았음.



- 10~11월의 가격이 작년보다 낮았던 것은 작년 출하기 가격이 좋아 전남 지역의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유가상승 영향으로 경남지역의 일부 농가가 정식시기가 앞당겨져 반입량이 많았기 때문임.
- 일반꽃고추 12월~내년 1월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전남지역의 일부 농가가 애호박, 토마토에서 일반꽃고추로 전환하여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일반꽃고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가격은 월별자료임. 평년은 2003~2007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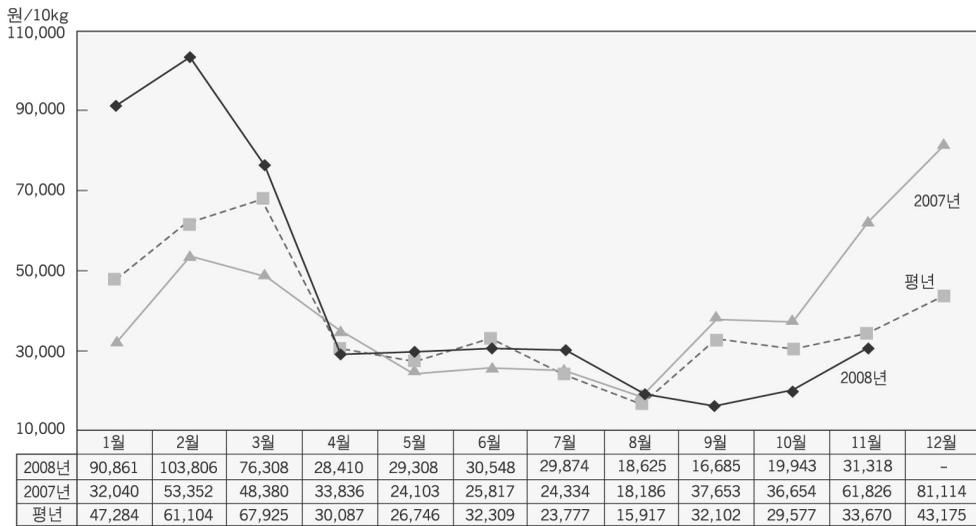
- 일반꽃고추 12월~내년 1월 단수는 잦은 경우로 작황이 부진하였던 작년보다 3% 높을 것으로 조사됨.
- 일반꽃고추 12월~내년 1월 출하량은 출하면적이 늘고 단수도 높아 작년보다 6% 많을 것으로 전망됨. 12월 가격은 작년 동기(상품 10kg에 10월 6만 6,3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 내년 1월 가격 또한 금년 동기(상품 10kg에 1월 6만 6,7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4.7. 청양계핏고추

- 청양계핏고추의 4/4분기 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10월 1만 9,900원, 11월 3만 1,300원으로 평년보다 33%, 20% 낮았음.

청양계핏고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가격은 월별자료임. 평년은 2003~2007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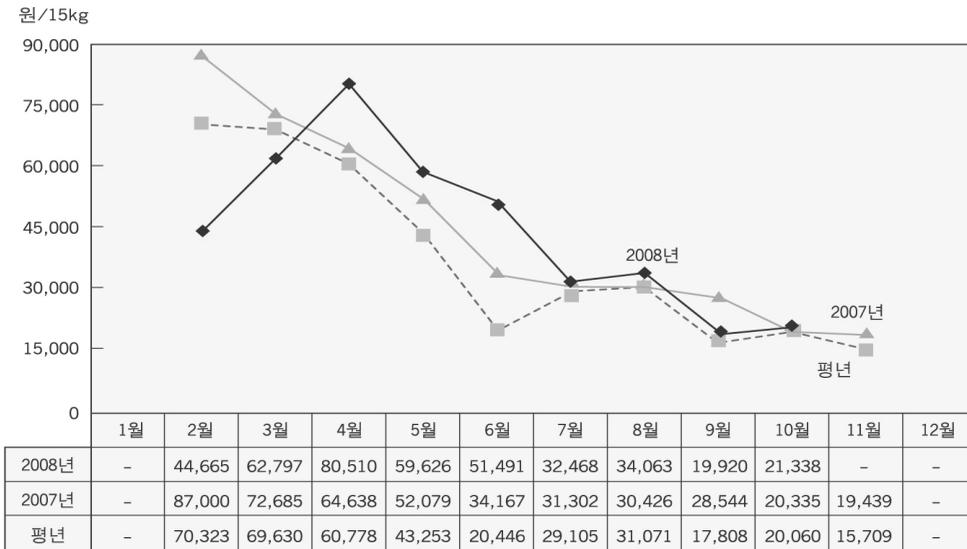
- 10~11월 가격이 낮았던 것은 작년 출하기 가격이 좋아 전남지역의 일부 농가가 청양계핏고추로 전환하였고 작황도 좋았기 때문임.
- 청양계핏고추의 12월~내년 1월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작년 출하기 가격이 좋아 광주광역시, 전남지역의 일부 농가가 애호박에서 청양계핏고추로 전환하였고 경남지역의 조기정식으로 출하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12월~내년 1월 출하량은 출하면적이 늘고 단수도 높아 작년보다 각각 4% 많을 것으로 전망됨. 12월 가격은 작년 동기(상품 10kg 상자에 12월 8만 1,1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 1월 가격 또한 금년 동기(상품 10kg 상자에 1월 9만 8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4.8. 참외

- 4/4분기 참외 도매가격은 상품 15kg 상자당 10월에 2만 1,300원으로 작년보다 5% 높았음.

참외 도매가격 (상품)



주: 평년가격은 2003~2007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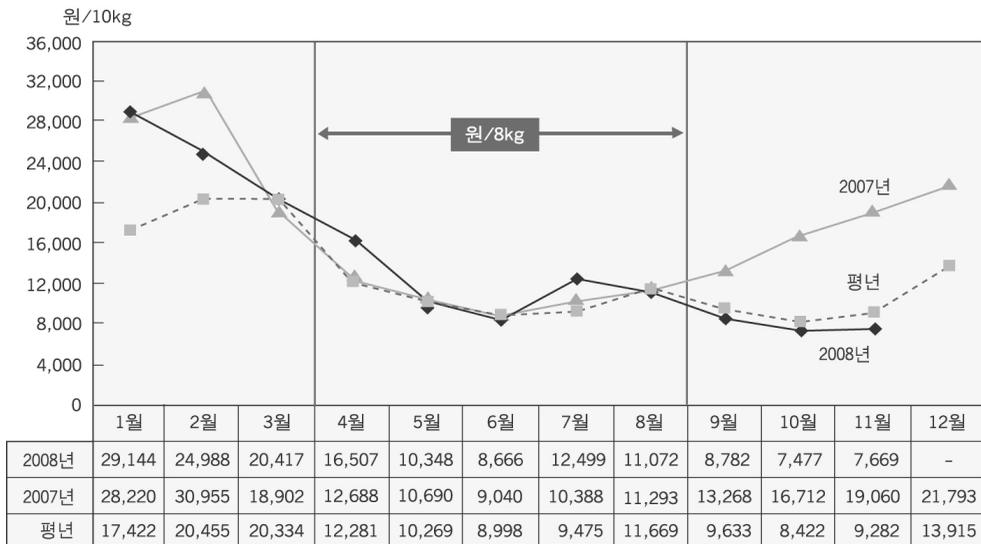
- 내년 참외 재배면적은 최근 3년간 참외 가격 강세로 최대 주산지인 성주에서 재배 의향을 늘리고 경북 고령, 김천에서 신규면적이 늘어 금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 경남지역은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면적을 줄이고 일부 농가가 수박으로 작목을 전환하여 금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음.
- 12월 정식면적은 겨울철 품질관리의 어려움으로 정식시기가 늦어졌던 작년보다 6%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내년 1월 정식면적은 경북지역에서 조기출하를 목표로 정식시기를 앞당겨 금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음.



### 4.9. 수박

- 4/4분기 수박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10월 7,500원, 11월 7,700원으로 평년보다 각각 11%, 17% 낮았음.

수박 도매가격 (상품)



주: 평년가격은 2003~2007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4~8월은 8kg개당 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12월 수박 출하량은 최근 2~3년간 겨울철 수박 가격이 좋아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1월은 설 명절 출하를 목표로 출하면적이 늘어 작년보다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겨울철 수박 정식면적은 영남 지역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면적을 줄이지만 충남 지역의 신규면적이 증가하여 금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내년 1~2월 정식면적은 충남 지역에서 조기출하를 위해 정식시기를 10~15일 앞당기거나 토마토, 오이 등에서 전환되어 금년보다 각각 1%,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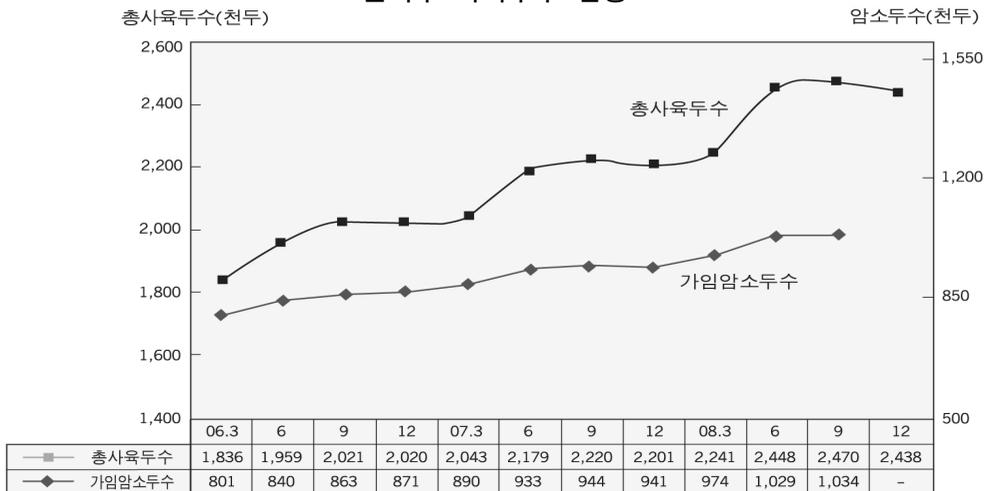


## 5. 축 산 <sup>13)</sup>

### 5.1. 한육우

- 2008년 9월 한육우 사육두수는 247만 두로 전년 동기에 비해 25만 두 (11.3%) 증가하였으며, 12월 사육두수는 243만 8천두(10.7% 증가)로 전망됨.
- 2008년 9월 가구수는 18만 6천호로 전분기보다는 4천호(2.1%), 전년 동기 보다는 2천호(1.1%)가 감소하였음. 사료가격 상승과 한우 산지가격 하락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로 사육 농가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08년 9~11월 한우 등급판정두수는 16만 5천두(전년 동기대비 15.0% 증가)임. 그중 한우 암소는 전년대비 17.2% 증가한 7만 6천두, 수소 도축은 25.0% 증가한 3만 두, 거세우 도축은 7.8% 증가한 5만 8천두임.

한육우 사육두수 변동



주: 08년 가축통계 표본 개편으로 이전 결과 사이에 층이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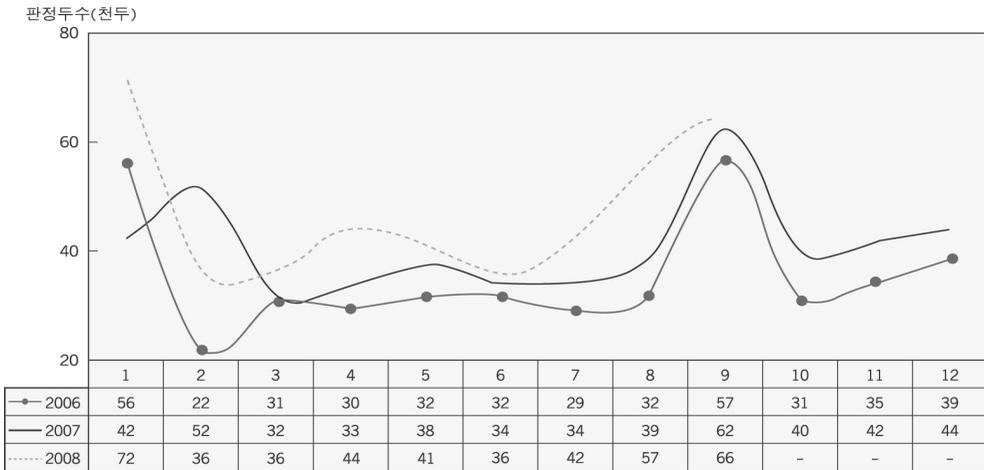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축통계.

13)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허덕 연구위원(huhduk@krei.re.kr), 이형우 연구원(lhw0906@krei.re.kr), 김현중 연구원(kim1025@krei.re.kr), 이정민 연구원(fantom99@krei.re.kr)이 작성하였음.



- 한우 암소 도축두수가 증가한 것은 암소 비육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향후 송아지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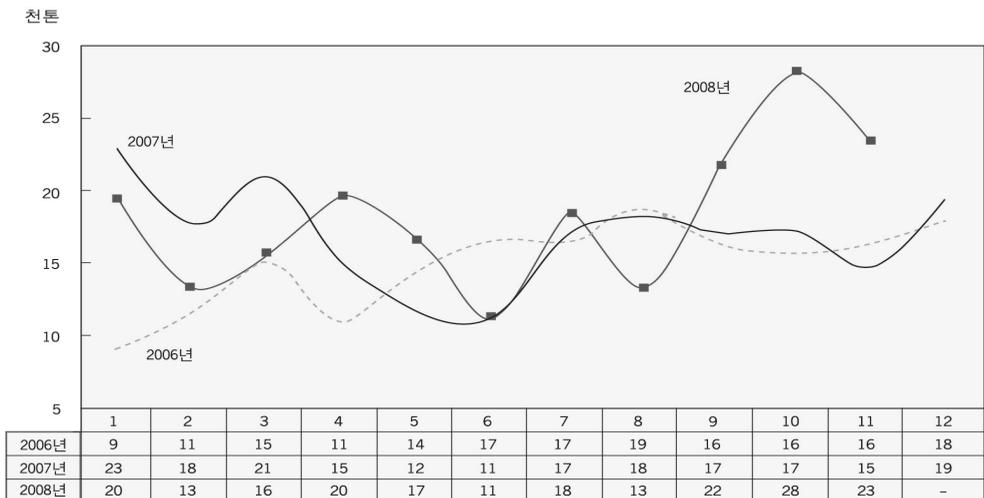
한우 월별 등급판정두수 현황



자료: 축산물등급판정소.

- 2008년 9~11월까지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49.9% 증가한 7만 3천 톤이었음. 이 중 미국산이 4만톤(54.6%), 호주산이 2만 9천톤 (39.8%), 뉴질랜드산이 3천톤(4.6%), 기타 1천톤(1.1%)임.

쇠고기 월별 수입현황(검역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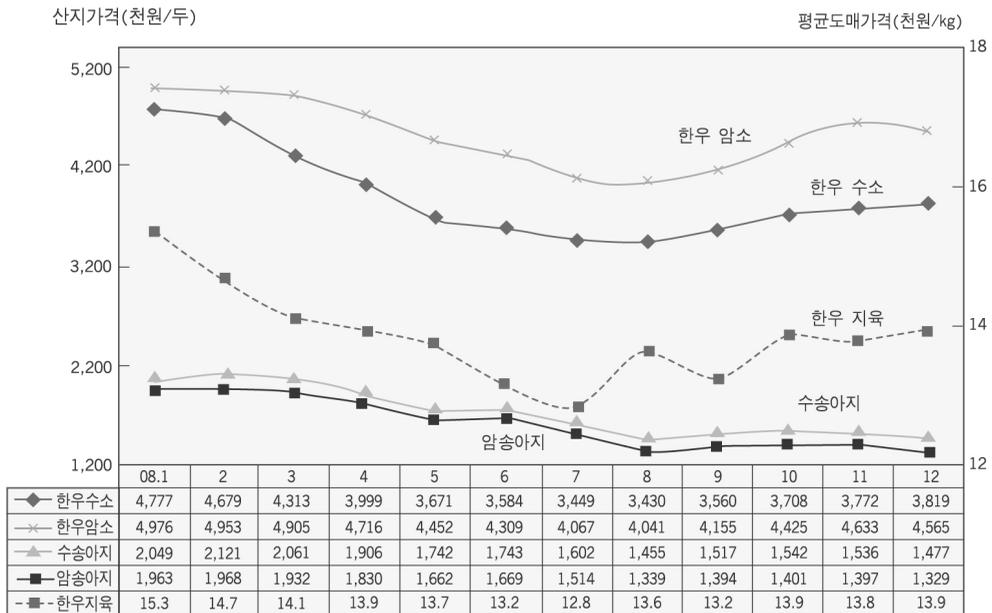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 2008년 12월 한우(600kg) 산지가격은 수소 381만원(전년 동월대비 19.6% 하락), 암소 456만원(7.0% 하락), 수송아지 147만원(26.1% 하락), 암송아지 133만원(33.0% 하락)이었음.
- 한우 산지가격은 8월부터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나, 대형유통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기 시작(11월 27일)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한육우 산지가격 변동



주 : 한우 수소 및 암소는 600kg 기준이며, 12월 가격은 1~21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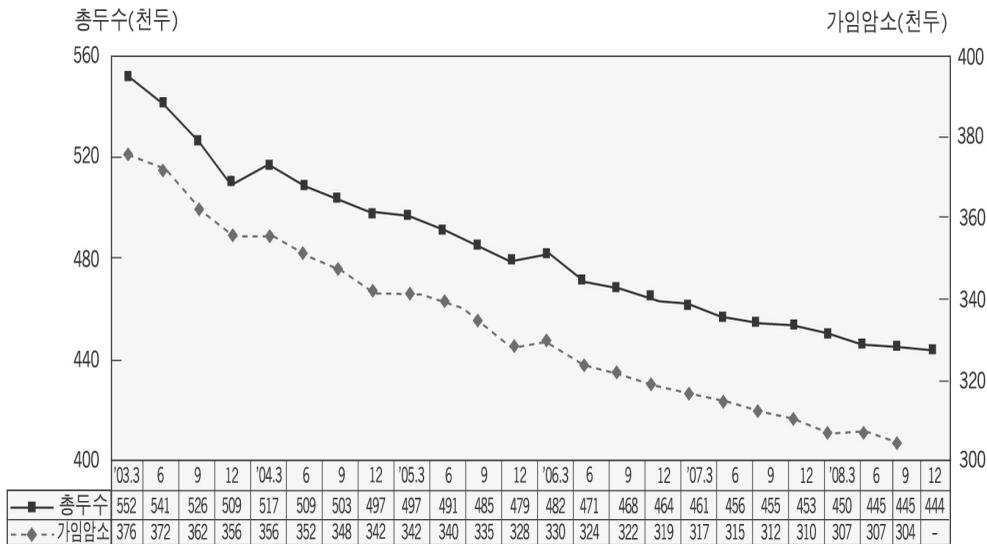
## 5.2. 젖 소

- 2008년 9월 젖소 사육두수는 사료비 상승에 따른 농가 폐업 증가로 전년보다 2.2% 감소한 44만 5천두 이었으며, 12월에도 감소세가 지속되어 전년보다 2.0% 감소한 44만 4천두로 전망됨. 9월 가임암소 두수는 30만 4천두로 8천두(△2.6%) 감소하였음.



- 9월 사육두수 중, 연령별로는 1세미만 두수가 8만 9천두로 전년 동기보다 2천두(△2.2%) 감소하였으며, 1~2세 두수는 10만 2천두로 2천두(△1.9%), 2세 이상 두수는 25만 3천두로 7천두(△2.7%) 감소하였음.
- 9월 젖소 사육호수는 7천 2백호로 전년 동기보다 6백호(△7.7%) 감소하였음. 50두 미만 사육호수는 2천 9백호로 전년 동기보다 6백호(△14.3%) 감소하였고, 50두 이상은 4천 2백호로 1백호 감소하였음.
- 50두 미만 사육농가의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1만 2천두(△10.9%) 감소하였지만, 50두 이상은 34만 6천두 지난해보다 1백호 증가하였음. 호당 사육두수는 지난해 9월 58.3두에서 올해 9월 62.1두로 3.8두(6.5%) 증가하였음.

젖소 사육두수 동향



주: 08년 가축통계 표본 개편으로 이전 결과 사이에 층이 발생할 수 있음. 12월은 농업관측 정보센터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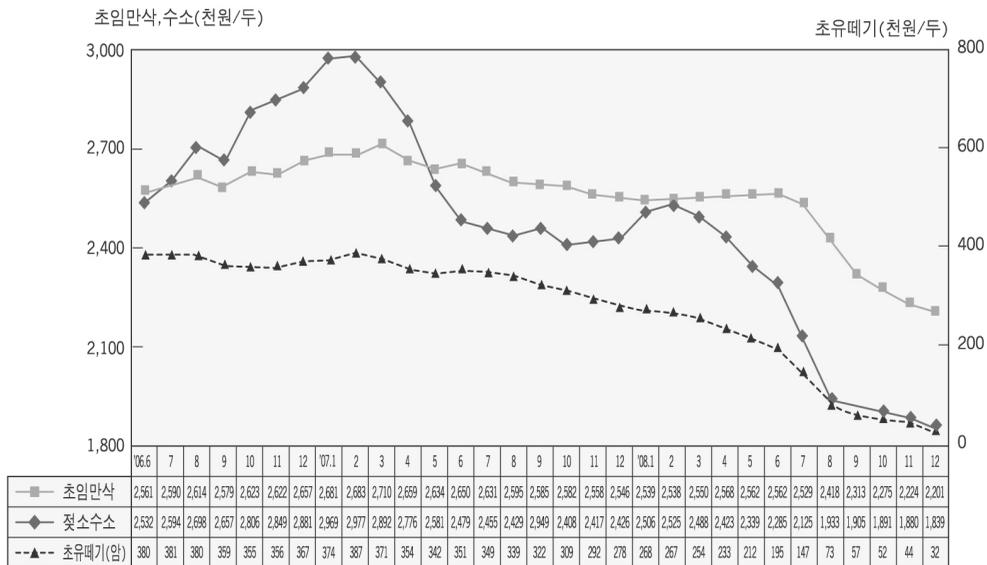
- 초유폐기(암송아지) 산지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올해 연말까지 사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데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본격화에 따른 장



기적인 소 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비육용 암송아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9~11월 평균 산지가격은 5만 1천원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83.4% 하락하였고, 12월(10일) 가격은 3만 2천원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

- 지난 8월 원유 가격이 인상되었지만, 사료비 부담으로 초임 만삭우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9~11월 산지가격은 227만원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11.8% 하락하였으며 12월(10일) 가격은 220만원으로 전년 12월보다 11.7% 하락함.
-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젓소 수소(600kg) 가격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음. 9~11월 평균 산지가격은 189만원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22.1% 하락하였으며, 12월(10일) 가격은 184만원으로 전년 12월보다 24.2% 하락하였음.

젓소 산지가격 변동



주: 12월 산지가격은 10일자 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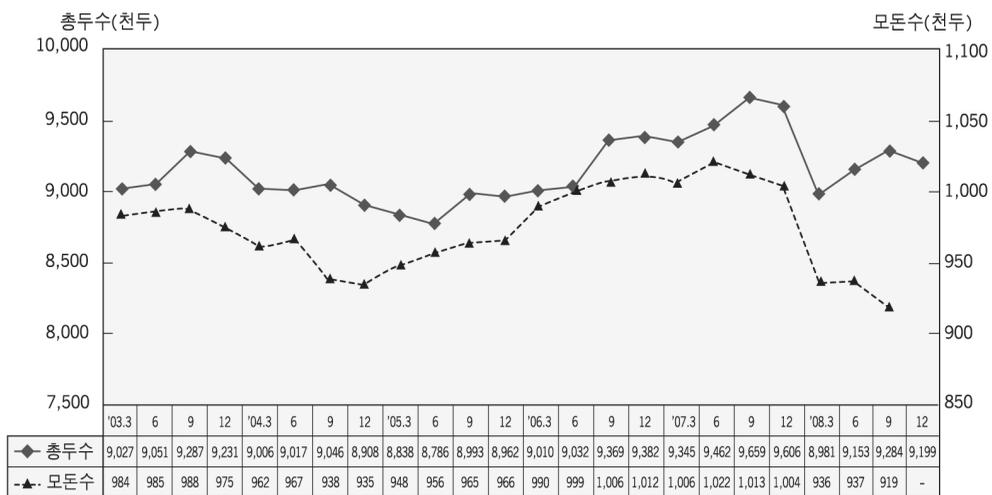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 5.3. 돼 지

- 올해 3월 중순 이후 돼지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배합사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어 모돈수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음. 9월 모돈수는 91만 9천두로 전년 동기보다 9.3%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육두수는 928만 4천두로 전년 동기보다 3.9% 감소하였음. 사료비 부담으로 12월 사육두수도 전년보다 4.2% 감소한 920만두로 전망됨.
- 사료비 부담에 따른 농가 폐업 증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9월 사육 농가 수는 7천 8백호로 전년 동기보다 23.5% 감소하였음. 1천두 미만으로 사육하는 농가 수는 전년 동기보다 2천 3백호(△32.4%) 감소한 4천 8백호 였으나, 1천두 이상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3천 1백호였음.
- 1천두 미만 사육농가의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19.4% 감소한 142만 5천두 였음. 1천두 이상 사육농가의 사육두수는 785만 8천두로(전년 동기보다 0.4% 감소) 전체 사육두수에서 84.6%를 차지하였음. 호당 사육두수는 지난해 9월 944두에서 올해 9월 1,184두로 240두(25.4%) 증가하였음.

돼지 사육두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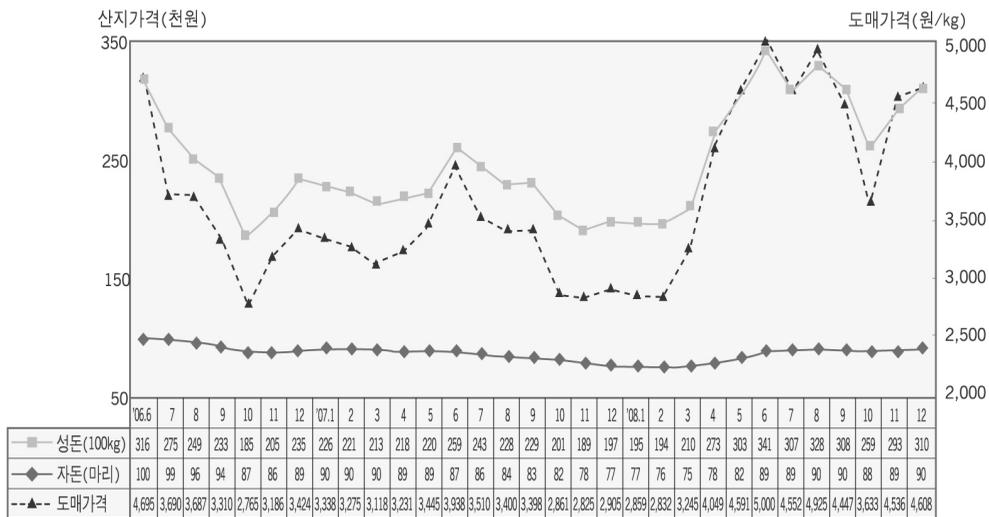
주: 08년 가축통계 표본 개편으로 이전 결과 사이에 증이 발생할 수 있음. 12월은 농업관측 정보센터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 돼지 출하두수와 돼지고기 수입량 감소로 돼지고기 공급량이 감소한데다, 조류 인플루엔자, 광우병 논란 등으로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하여 돼지 가격이 급등하였음. 9~11월 가격은 28만 7천원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38.9% 높은 수준이며, 12월(10일까지) 가격은 31만원으로 전년 12월보다 57.4% 상승함.
- 돼지가격 상승으로 자돈 산지가격도 3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9~11월 가격은 8만 9천원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9.9% 상승하였으며, 12월(10일까지) 가격은 9만원으로 전년 12월보다 16.9% 높은 수준임.
- 산지가격은 도매가격과 연동되어 움직임. 9~11월 평균 가격은 kg당 4,205원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38.9% 높은 수준이며, 12월(10일까지) 가격은 4,608원으로 전년 12월보다 58.6% 상승함.
- 올해 3~11월 돼지 도축두수는 전년 동기간보다 1.0% 감소한 1,016만두였음. 올해 11월까지 돼지고기 수입량은 20만 톤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11.6% 감소하였음.

돼지 산지가격 및 도매가격 변동



주: 12월 산지 및 도매가격은 10일까지의 평균 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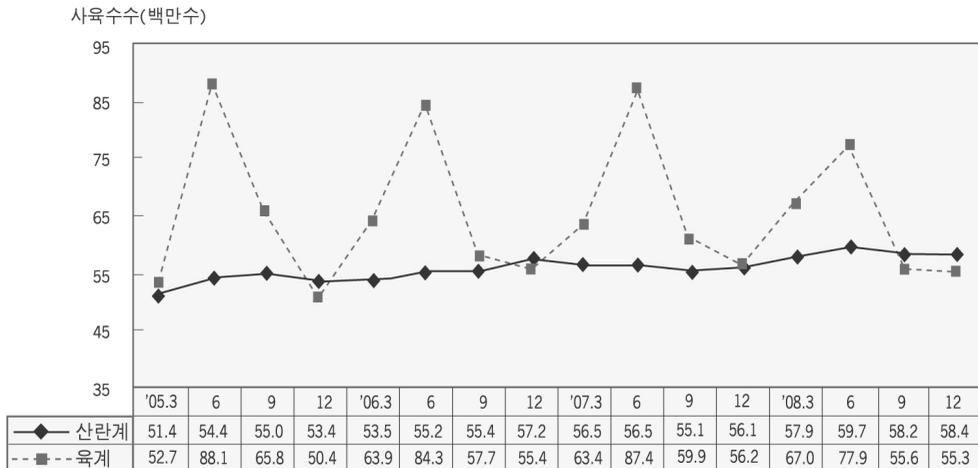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 5.4. 닭

- HPAI 발생으로 살처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용계 병아리 분양수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2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임. 12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5,835만수로 3개월 전보다 0.3%, 전년보다 4.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종란 생산에 가담하는 종계의 생산성 악화로 환우 가담이 많아 병아리 생산수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 12월 사육수수는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임. 12월 육계 사육수수는 5,530만수로 3개월 전보다 0.5%, 전년보다는 1.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산란계 및 육계 사육수수 변동



주: 2006년부터 3,000수 이상 사육가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자료임.

자료: 통계청, 가축통계.

-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고 추석 수요가 증가하여 3분기 계란 가격은 2분기보다 1.6%, 전년 동기보다 34.6% 상승한 1,038원으로 나타남. 계란 산지 가격에는 사료비 상승분이 반영된 가격임.
- 추석 이후에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대형 유통점의 할인 행사 등으로 계란 수요가 증가하여 10~11월 계란 가격은 3분기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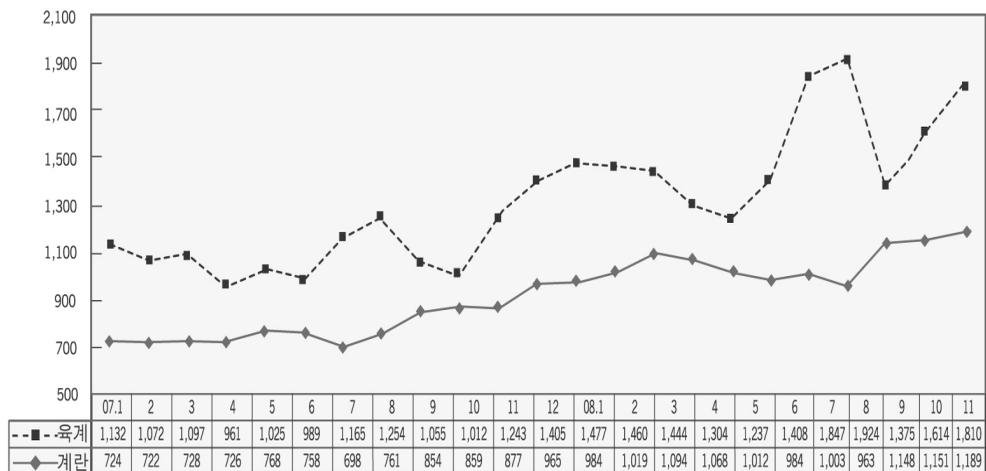


12.7%, 전년 동기보다 30.0% 상승한 1,170원으로 나타남.

- 최근에는 심한 일교차로 인한 산란율 저하와 연말 수요 증가로 12월 19일 현재 계란 가격 1,200원대에서 형성되고 있음.
- HPAI 발생으로 종계 살처분·도태로 닭고기 공급이 부족하였음. 여름철 수요 증가와 올림픽 특수로 3분기 육계 가격은 2분기보다 30.3%, 전년 동기보다는 48.1% 상승한 1,715원이었음.
- 계절적으로 닭고기 소비의 비수기에 접어드는 시기이나 원산지표시제 의무시행으로 프랜차이즈 업체의 국내산 닭고기(날개, 다리 등)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0~11월 육계 가격은 전년 동기간보다 40.3% 상승한 1,712원으로 나타남.
- 닭고기 총공급이 감소하고 연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12월 육계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12월 19일 현재 1,831원 농협발표가격 기준).

### 양계산물의 산지가격 변동

산지가격(원/10개, 원/생체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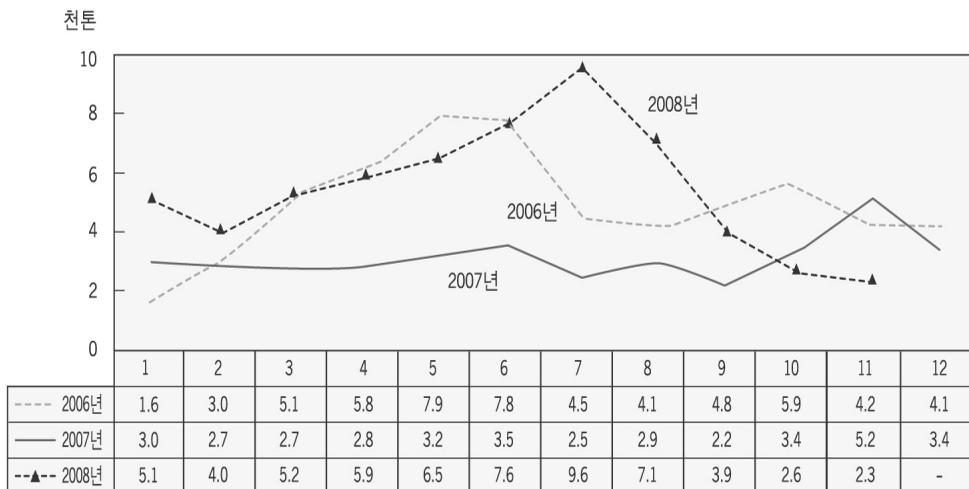


주 : 계란 산지가격은 특란 기준임.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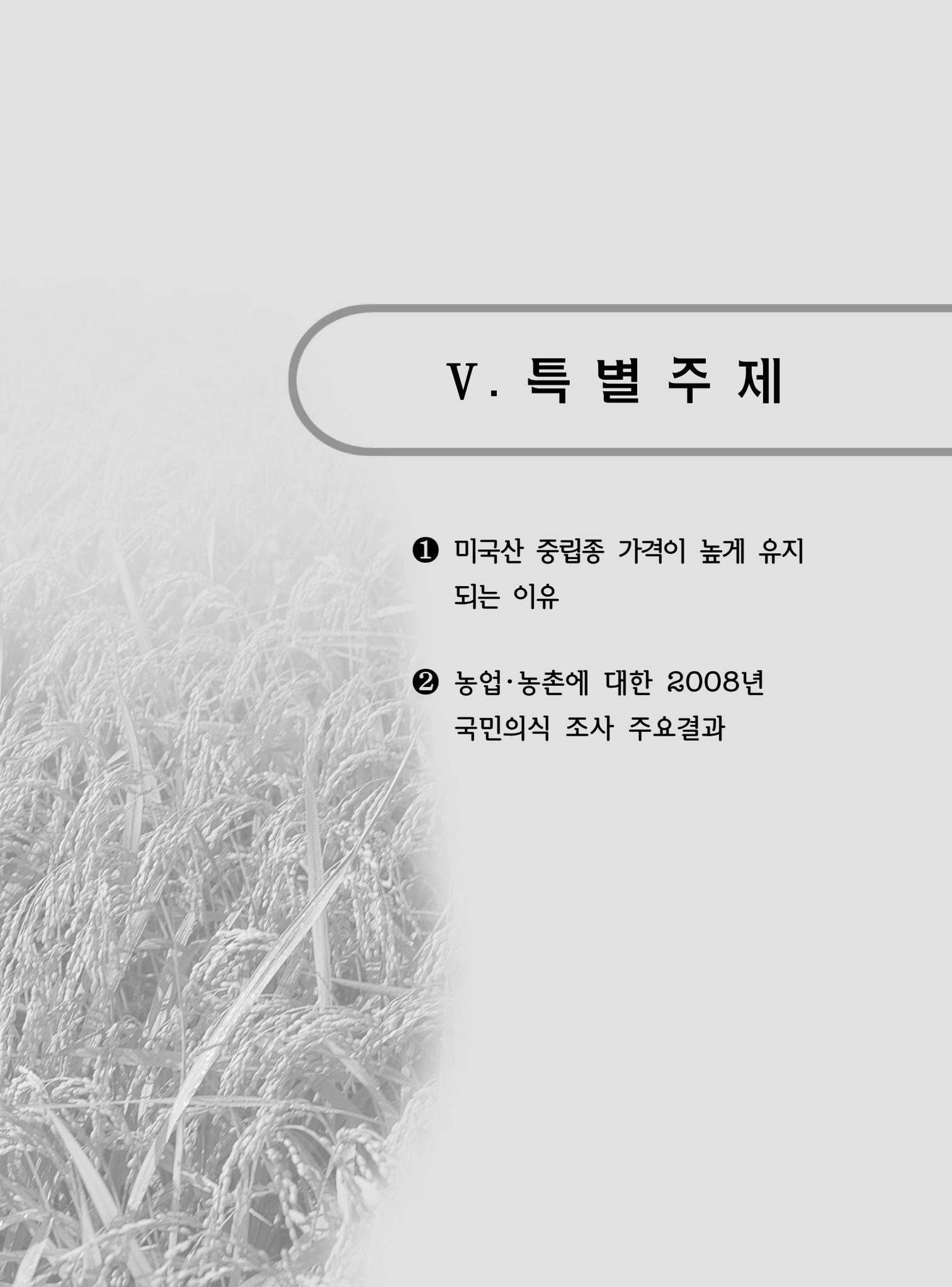
- 10~11월 산란 종계 입식수수는 7만 6천수로 전년 동기(5만 3천수)보다 43.5% 증가하였으며, 2008년 1~11월까지의 종계 입식수수는 55만 4천수로 2007년 수준(44만 9천수)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 10~11월에 입식된 육용 종계 병아리수는 78만수로 전년보다 3.1% 증가하였음. 그러나 올해(1~11월) 육용 종계 입식수수는 2007년 동기간보다 7.5% 감소한 515만수임.
- 국내 HPAI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내 육계 가격 강세로 상반기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특히, 미국산 닭고기 수입이 급증하여 7월 닭고기 수입량은 9천 6백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환율 급상승으로 수입 여건 악화로 10~11월 닭고기 수입량은 2천 톤대에 그쳤음.

닭고기 월별 수입 현황(검역기준)



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V. 특별 주제

- ① 미국산 중립종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이유
- ②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 주요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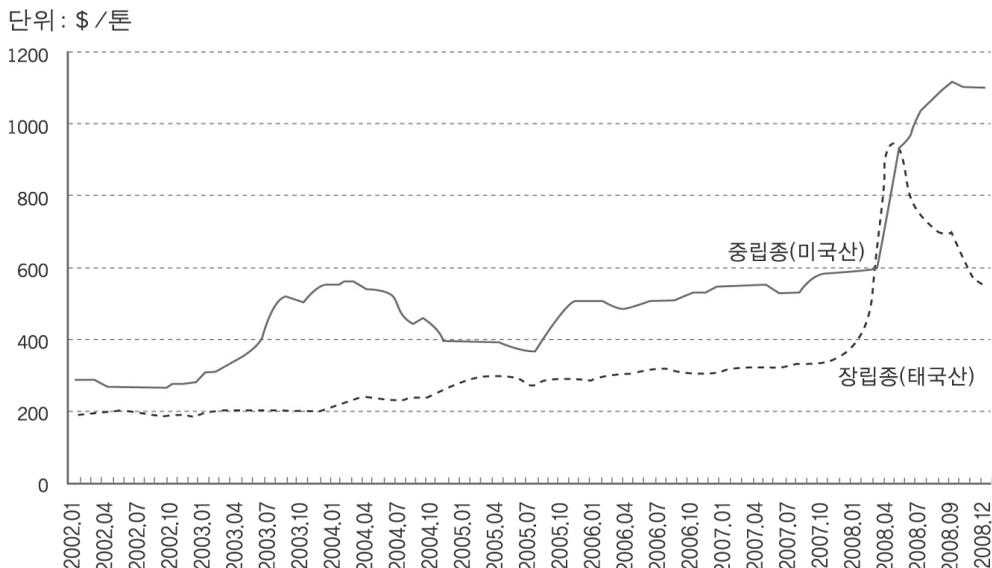


## 미국산 중립종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이유<sup>14)</sup>

### 1. 최근 중립종을 제외한 모든 국제곡물 가격 하락세

-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쌀 수출국들이 자국의 물가안정과 식량수급 관리를 위해 쌀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금년 들어 국제 쌀 가격이 급등함.

국제 쌀 가격 변화추이



주: 중립종쌀은 미국 캘리포니아산, 장립종은 태국산 FOB 가격 기준임.

자료: Rice Outlook, USDA, 2008. 1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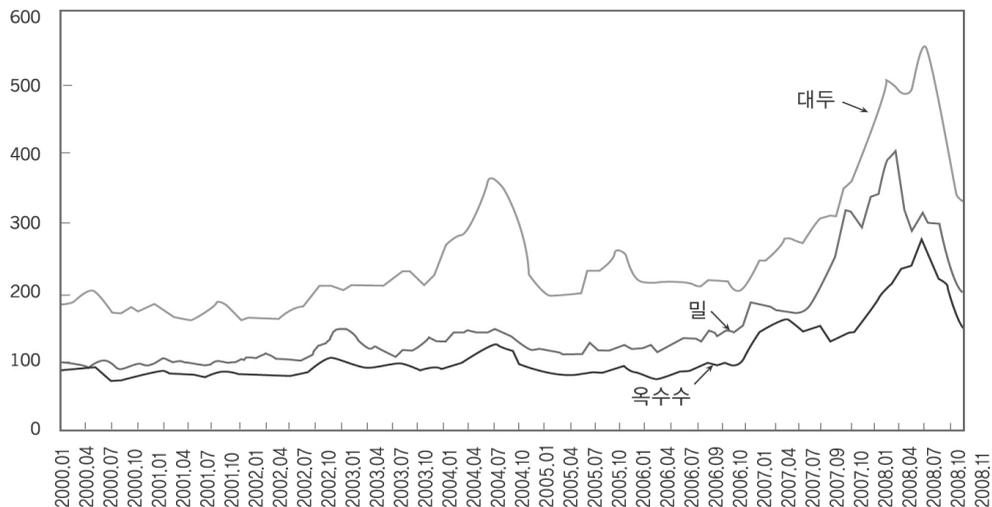
-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가격은 3월 \$595/톤에서 9월에 \$1,119/톤으로 단기간에 88.1% 급등하였음. 호주가 가뭄으로 수출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집트가 4월 이후 수출을 금지하면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
  - 이후 미국산 중립종 가격은 미미하게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되어 2008년 12월 현재 톤당 1,102달러로 전월과 같은 수준이지만 전년 동월대비 88.7% 높은 수준임.

14)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태훈(taehun@krei.re.kr)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 장립종 쌀 국제가격은 수출국들의 수출제한 조치로 인한 교역량 감소로 단기간에 급등하였으나 5월 이후 주요 생산국들의 신곡 생산이 늘어나면서 하락세로 반전됨.
  -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금년 1월에 \$387/톤에서 5월 \$949/톤까지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어 12월 현재 \$553/톤까지 하락함.
- 다른 곡물 가격들은 2006년 중반이후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금년 3~6월을 기점으로 모두 하락세로 전환됨.
  - 2008년 2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대두 가격이 6~7월에 상승한 것은 미국 중서부 지방에 집중호우로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음.

### 국제곡물 가격 변화추이

단위: \$/톤



주: 대두, 밀, 옥수수 곡물가격은 인접월 인도 선물가격을 의미함.

자료: 시카고선물거래소

- 국제 곡물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투기자본이 이탈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락하고 있음.
  - 옥수수 가격은 2008년 6월 \$276/톤까지 상승한 후 하락세로 반전되어 11월 \$147/톤임.
  - 국제 밀 가격은 금년 3월 \$403/톤을 기록한 후 11월 현재 \$196/톤으로 51% 하락함.

- 대두가격은 2008년 6월 \$553/톤까지 상승한 후 하락세로 반전되어 41% 하락한 \$329/톤임.

## 2. 미국산 중립종 쌀 가격만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

### ■ 금년 미국의 생산 및 재고 감소

- 2008년도 미국의 쌀 수확면적은 292만4천 에이커로 전년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08년산 미국 쌀 수확면적

	면적(천에이커)		증감(천에이커)
	2007	2008	
전체	2,748	2,924	176.0
장립종	2,052	2,297	245.0
중단립종	696	627	-69.0
알칸사	145	100	-45.0
캘리포니아	524	508	-16.0
루지애나	23	15	-8.0
미주리	1	2	1.0
텍사스	3	2	-1.0

자료: USDA/NASS, "Crop Production", 2008.9.12

- 수확면적의 78.6%를 차지하는 장립종은 전년대비 11.9% 증가하였으나 중단립종은 전년대비 9.9% 감소한 62만7천에이커로 나타남.
- 중단립종의 81%를 재배하는 캘리포니아의 수확면적은 전년보다 1만6천 에이커 줄어든 50만8천에이커로 나타났으며, 알칸사의 수확면적은 10만 에이커로 전년보다 4만5천에이커가 감소함.
- 미국의 금년 중단립종 단수는 전년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중단립종을 주로 재배하는 캘리포니아의 재배초기 기상여건은 매우 좋았으나 7~8월 기온이 선선하여 벼 성장을 지연시킴. 작황이 좋았던 지난해 보다는 감소하였지만 평년수준을 유지함.
- 미국에서 중립종 생산이 두 번째로 많은 알칸사주의 경우, 작황이 평년수준은 되지만 단수가 크게 증가했던 지난해보다 5.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2008 Rice Outlook Conference 자료, 2008.12.7~8).

### 미국 중단립종 수급 동향과 전망

단위: 천 톤

	2005/06	2006/07	2007/08	2008/09	증감률(%) 2008/09~2007/08
<b>총공급</b>	2,930	2,873	3,214	2,868	-10.8
전년이월	626	428	454	411	-9.4
생산	2,071	2,153	2,504	2,208	-11.8
수입	221	287	283	249	-11.9
<b>총수요</b>	2,502	2,419	2,803	2,582	-7.9
국내소비	1,467	1,569	1,621	1,540	-5.0
수출	1,036	850	1,182	1,042	-11.8
<b>재고</b>	428	454	411	286	-30.4
재고율(%)	17.1	18.8	14.7	11.1	-3.6P

주: 1. 총공급량은 이월재고, 생산량 수입량의 합계임.

2. 총소비량은 국내소비와 수출의 합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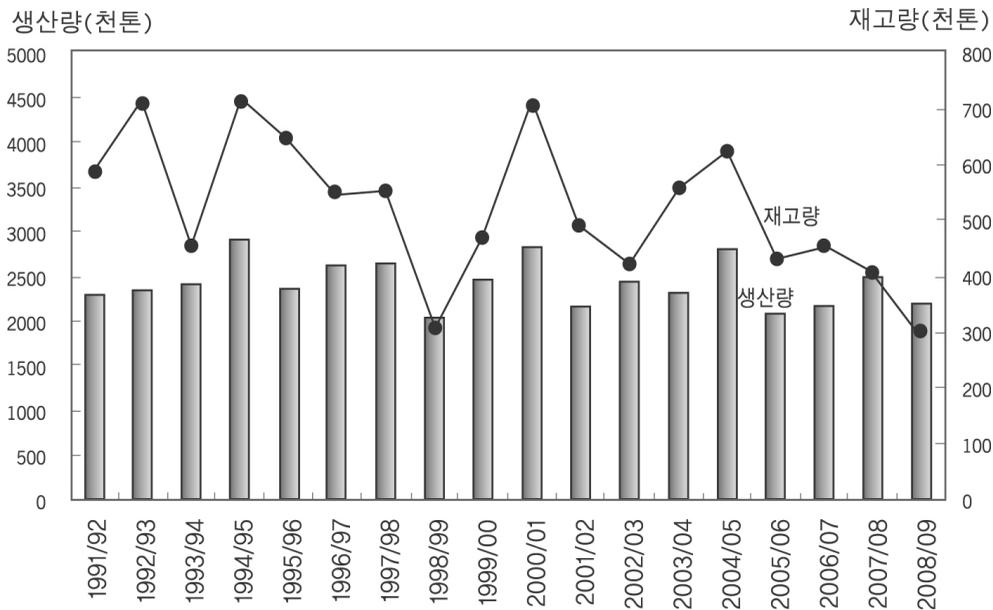
3. 2007/2008, 2008/2009는 추정치임.

자료: Rice Outlook, USDA, 2008. 12. 12.

- 미국 중단립종 주요 재배지의 수확면적이 전년보다 감소하였고 단수도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생산은 1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생산감소와 전년이월물량이 감소하여 2008/09년 총공급량은 전년보다 10.8% 줄어든 286만8천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전년 기말재고는 공급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량 증가로 인하여 전년보다 4만3천톤이 감소하였음. 따라서 재고율은 2006/07년에 18.8%에서 2007/08년에 14.7%로 낮아짐.

- 2008/09년에는 생산 감소로 인하여 재고율이 11.1%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2008/09년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12만5천톤이 감소한 28만6천톤으로 1982/83년이래로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 중단립종 생산과 재고 변화추이



자료: Rice Outlook, USDA, 2008. 12. 12.

- 따라서 2008년산이 수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중립종 가격은 생산감소로 공급량이 넉넉하지 못하여 여전히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국제교역량 감소

- 2007/08년 미국의 중단립종 수출량은 118만2천톤으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은 양을 수출하였음.
  - 이는 주요 수출국이었던 호주가 가뭄으로 인하여 생산이 거의 중단되었고, 이집트가 수출금지 조치를 시행하였기 때문임.

- 중·단립종 국제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집트는 2008년 들어 연간 수출가능 물량인 약 1백만 톤 중 대부분을 단기적으로 수출함으로써 국내의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국내가격이 상승하여 2008년 3월 이후 2009년 6월까지 수출을 잠정 중단하였음.

### 이집트의 쌀 수출가격(f.o.b.) 동향

단위: \$/톤

연도	2005	2006	2007	2008.1	2008.2	2008.3	2008.4	2008.5	2008.6	2008.7
미국	418	512	537	590	595	595	758	926	963	1,036
이집트	327	353	404	479	490	587	수출중단			

주: 1. 이집트 수출가격은 Short Grain, 2.5% 178 Camolino 기준임.

2. 미국은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가격임.

자료: FAO.

- 또한 금년 들어 중국이 쌀 수출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출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을 제외하고는 중단립종의 수출여력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음.
- 따라서 2007/08년 미국의 중단립종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중립종 가격 또한 높게 형성되었음.
- 현재 이집트의 수출금지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고 미국의 중단립종 생산이 감소하여 수출 감소가 예상되어 다른 곡물과 달리 중립종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08/2009년 미국의 중·단립종 쌀 수출량은 생산감소로 전년보다 11.8% 감소한 104만2천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 ■ 국제 교역량이 적은 구조적 문제

- 중·단립종 쌀은 세계적으로 생산이 많지 않고, 교역량도 미미하여 수급 변동에 따라 가격변화가 큰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 2007/08년 세계전체 곡물 생산량은 20억91백만톤으로 이중 12.3%가 교역 되었으며, 쌀은 4억21백만톤의 생산량중 7.1%만이 교역되어 상대적으로 교역율이 낮음.
- 특히, 우리가 소비하는 중단립종 쌀은 2005/06년 기준으로 전체 쌀 생산에 13.7% 밖에 되지 않으며 교역량은 장립종과 비교하여 아주 미미한 수준임.
- 따라서 중단립종 국제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현재 일부 국가의 수출 제한과 수출량 감소가 중립종 가격을 높게 유지시키고 있음.

### 세계 곡물 생산과 교역

단위: 백만톤

구 분	전체곡물		쌀		비율(%)		
	생산(A)	교역(B)	생산(C)	교역(D)	C/A	B/A	D/C
1970/71	1,079	119	213	8	19.7	11.1	4.0
1980/81	1,429	212	270	12	18.9	14.8	4.6
1990/91	1,778	212	350	12	19.7	11.9	3.5
2000/01	1,844	230	398	24	21.6	12.5	6.0
2001/02	1,876	235	399	27	21.3	12.5	6.7
2002/03	1,823	236	378	29	20.7	13.0	7.6
2003/04	1,862	239	391	27	21.0	12.8	7.0
2004/05	2,043	240	401	28	19.6	11.8	7.1
2005/06	2,017	253	418	30	20.7	12.6	7.2
2006/07	1,994	258	418	29	20.9	12.9	7.0
2007/08	2,091	257	421	30	20.1	12.3	7.1

자료: USDA\_FAS, database(<http://fas.usda.gov/psd>)

### 3. 요약 및 향후 전망

-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 가격이 다른 곡물과 달리 현재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금년 미국의 중단립종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2008/09년

공급이 넉넉하지 못하여 수출량과 재고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집트의 수출 금지조치가 유지되고 있고 중국의 쌀수출이 제한되고 있어 국제 교역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금년 세계 쌀 생산은 전년보다 3억45백만톤이 늘어나고 기말재고도 2억 25백만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가격은 약세일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수입국인 사하라 사막이남 아프리카국가들(Sub-Saharan Africa),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의 수출국들의 생산이 증가함(2008 Rice Outlook Conference 자료, 2008.12.7~8).
- 미국 중립종 가격은 미국의 생산감소와 수출국들의 수출제한 조치가 유지되고 있어 당분간 높은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2009년에 이집트의 수출금지 조치와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해제되면 중립종 가격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 주요결과<sup>15)</sup>

### 1. 조사개요

- 이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8년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도시민 1,508명과 농업인 2,000명을 대상으로(666건 회수) 도시민은 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면접조사를, 농업인은 자체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결과 요지를 정리한 것임.
  - 도시민(응답자 1,508명):
    - 전국 도시지역(제주 포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농촌 및 농업관련 종사자 제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국 인구비례에 따른 지역·성·연령별 할당표본추출로 표본 선정, 1:1 면접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pm 2.5\%$  point>
  - 농업인(응답자 666명):
    - 당 연구원 전국 현지통신원 2,000명 대상 우편조사<당 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은 연구활용 목적으로 구성된 독농가로, 각 특성별 분포는 농촌사회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함.>
- 주요 조사 내용은 새정부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요구, 농업·농촌가치 인식, 농산물 안전성 인식과 소비패턴 변화, 농업인 의식변화 등임.

15) 이 자료는 기획조정실 김동원 부연구위원(dongweon@krei.re.kr), 박혜진 연구조원이 작성하였음.

## 2. 조사 결과

### 2.1. 농업·농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

- 도시민 93.8% “농업·농촌 앞으로도 중요할 것”
  - 농업이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도시민의 인식 비율은 93.8%로 2년전 조사결과(88.4%)보다 5.4%p 증가해 여전히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
- 농업·농촌의 역할 1순위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꼽아
  - 도시민들은 현재나 미래의 농업·농촌의 중요한 역할 1순위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자연환경 보전’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단, 미래에는 이들 중요성이 현재보다는 다소 감소하고 ‘전원생활 공간’과 ‘국토균형 발전’ 역할의 중요성 인식이 현재보다 높아지고 있음.

현재/미래 농업·농촌의 역할 인식 1순위(도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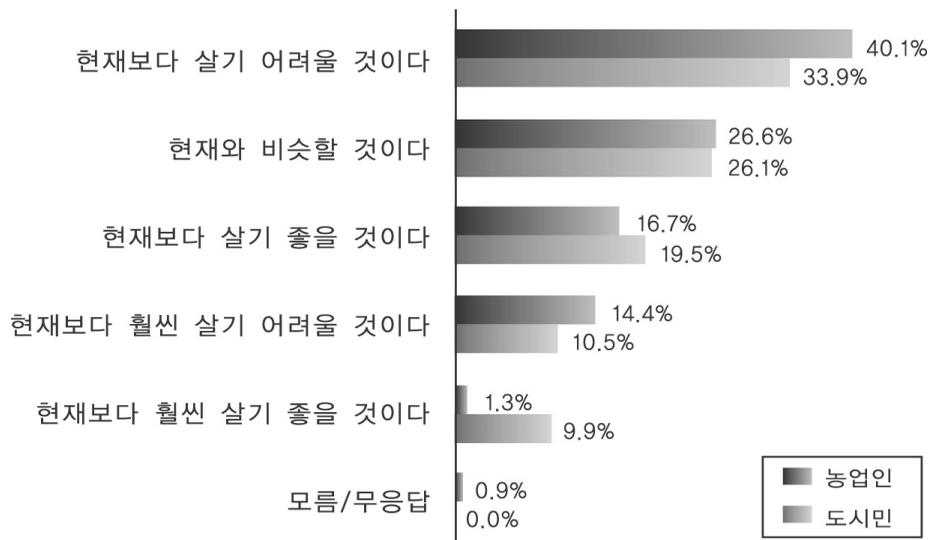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8년 KREI		2006년 KREI <sup>16)</sup>	
	현재	미래	현재	미래
식량 안정적 공급	75.5	50.1	42.3	36.1
국토의 균형발전	10.5	13.5	24.3	22.8
자연환경 보전	8.5	15.2	10.9	13.7
전통문화의 계승	1.3	5.6	10.8	11.4
관광 및 휴식의 장소	1.7	6.4	7.2	8.0
전원생활의 공간	2.4	9.0	4.4	7.8
기타	0.1	0.1	0.1	0.1
모름/무응답	0.1	0.1	-	-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6) 농업·농촌에 대한 2006년 국민의식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0년 후 농촌 살기 좋아질 것’ 도시민 29.4%, 농업인 18.0%로 감소세
  - 10년 후 농촌생활이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으로 전망한 도시민 비율이 2006년 33.5%, 2008년 29.4%로 긍정적인 전망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 농업인들의 긍정적인 전망은 18.0%에 그쳐 도시민과 차이를 보였음.

10년 후의 농촌생활 전망(도시민, 농업인)



- 도시민 62.8% “향후 농촌에 거주할 의향있다”
  - 농촌거주 의향은 62.8%가 매우 많거나 조금 있다고 응답했고, 거주 의향이 있는 응답자 중 81.4%가 10년 후 또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응답해 실제 귀농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함.
  - 도시민의 농촌거주 의향은 2006년 조사결과(71.3%)보다 8.5%p 감소하였음.

은퇴 후 농촌 거주 의향(도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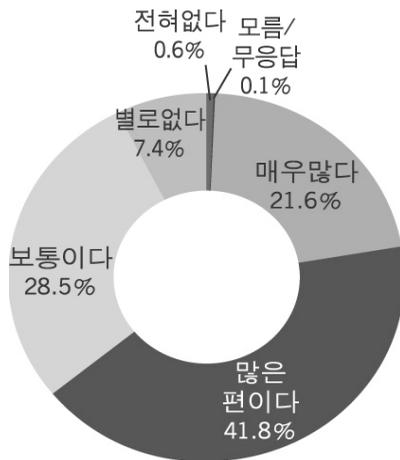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2008년 KREI		2006년 KREI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많다	297	19.7	325	21.7
조금 있다	650	43.1	744	49.6
별로 없다	342	22.7	315	21.0
전혀 없다	219	14.5	116	7.7
합 계	1,508	100.0	1,5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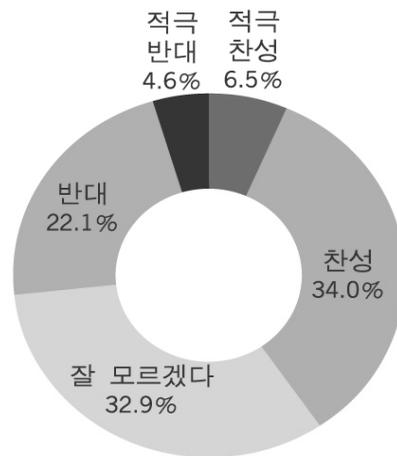
○ 농촌의 공익기능 가치유지를 위한 지원의지 약화

- 농업·농촌 공익기능 가치가 ‘많다’(매우 합산)는 적극적인 응답이 63.4%로 과반수 이상 차지하였고, ‘없다’는 응답은 8.0%로 낮게 나타나 공익적 기능 가치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공익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향에는 40.5%가 찬성해 전년보다는 소폭 상승했으나 2006년 52.8%에 비해 지지도가 약화 되는 추세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가치 인식과 세금 부담 의향(도시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세금추가 부담 의향〉

-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우려감 보여
  -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장개방은 안된다’거나 ‘수입을 최소화 해야한다’는 농업보호 의식도 2006년 조사결과 (60.7%)와 비슷해 60.4% 수준에 그쳐 하락추세에 있음.
  
- “곡물자급률 훨씬 높여야” 2006년 비해 12.2%p 증가
  - 곡물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2006년 59.5%까지 하락했으나 2008년 들어 국제곡물가격 급등과 식량자급률에 대한 중요성이 홍보되면서 곡물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71.7%까지 상승함.
  
- 도시민 농산물 구입 10명중 6명은 ‘실리 우선’
  -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과 안전성을 우선해 구입할 것’이라는 도시민이 41.9%로 가장 많고, ‘우리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라는 응답도 19.4%로 도시민 61.3%는 실리를 우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 반면, 수입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농산물을 구입하겠다는 도시민은 38.0%에 그쳤으나 2006년 조사결과 보다는 우리 농산물 구입 의사가 2%p 상승하였음.

###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시 농산물 구입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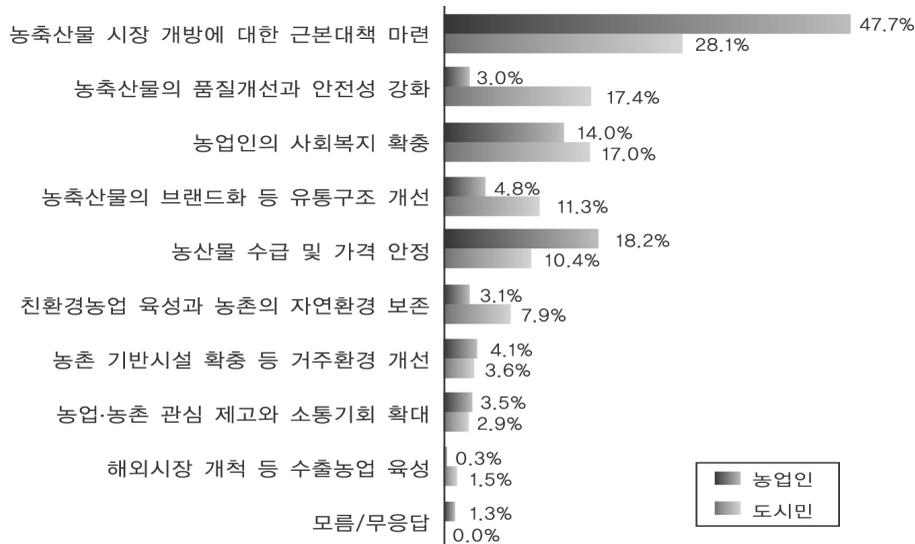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수입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573	38.0
우리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293	19.4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안전성 포함)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	632	41.9
기타	8	0.5
모름/무응답	2	0.1
합 계	1,508	100.0

## 2.2.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기대와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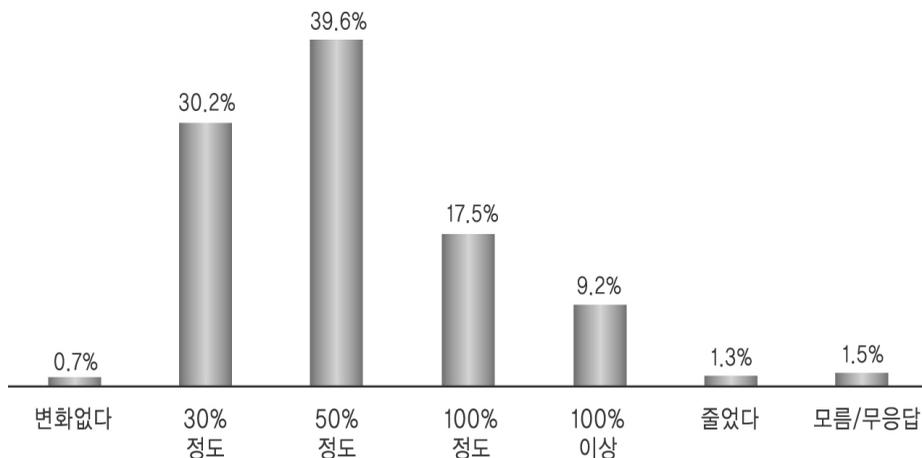
- 정부가 역점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 1순위는 ‘시장개방 대책’
  - 도시민들은 새정부가 역점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근본대책’(28.1%)과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17.4%)를 꼽았음.
  - 농업인들도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근본대책’을 1순위로 꼽았으며 비율도 도시민보다 훨씬 높은 47.7%였으며, 다음으로는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18.2%)을 꼽아 도시민과 정책 수요의 차이를 보였음.

정부가 역점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 1순위



- 도시민, 관심있는 농업정책 1순위로 ‘농식품 안전성’ 꼽아
  - 평소 농업정책을 포함해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도시민은 과반수가 넘는 55.1%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관심있는 농업정책 분야는 1순위로 ‘농식품 안전성’(26.7%), ‘농촌복지와 지역개발’(21.1%)이었으며, ‘FTA 등 국제협상’(15.6%),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14.6%)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인 10명중 6명은 “수출농업 가능성 있다”
  - 수출농업 추진에 대해 ‘노력하면 가능성 있다’는 견해가 과반수가 넘는 60.2%, ‘노력해도 가능성이 없다’는 23.0%로 나타나 긍정적인 견해가 우세함.
  
- 농가 96.5%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농비 30% 이상 상승”
  - 비료값과 사료값 등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변화에 대해 69.8%가 1년 전에 비해 30%~50% 정도의 생산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100%정도와 100% 이상 증가했다는 농가도 26.7%에 달해 거의 대부분의 농가에서 생산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농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최근 1년간의 생산비 변화(농업인)



- 이같은 생산비 증가에 대해 ‘재배작목을 축소했다’는 농가가 35.4%, ‘작목을 전환했다’는 농가가 20.3%, ‘재배를 포기’한 농가가 11.1%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절감 대책을 마련해 극복하고 있다’는 농가는 23.3%로 조사됨.
- 농자재값 상승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로는 비료값, 기름값, 사료값, 비닐 등 농자재 등을 꼽았음.

### 2.3. 식품안전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

- 식품 구입 ‘직거래’, ‘친환경 매장’ 이용 적어
  - 도시민들의 식품 구입처는 ‘대형할인점’(41.6%), ‘재래시장’(29.1%), ‘동네마트’(24.5%) 등으로 나타났고, ‘생산지 직거래’(1.9%)나 ‘친환경 전문매장’(0.7%) 등은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도시민, 육류와 곡물은 ‘원산지’ 우선 고려해 구입
  - 도시민들은 채소와 과일, 수산물, 외식시에는 ‘품질과 맛’이 선택 우선 조건이라고 응답하였고, 육류와 곡물은 ‘원산지’를 보고 구입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음.
  - ‘안전성’을 고려한다는 응답도 6개 품목 모두 15.8%~32.1%까지 높게 나타남.

### 농축산물과 식품 구입시 가장 우선하는 고려 사항(도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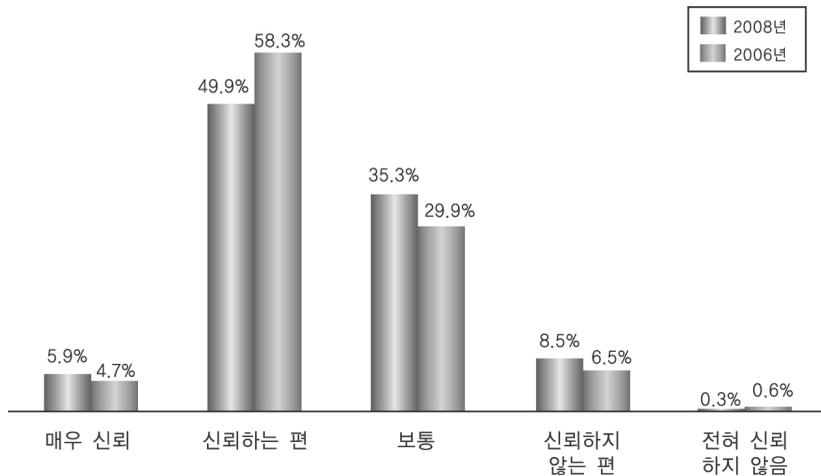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채소	육류	곡물	과일	수산물	외식
가격	9.1	7.9	8.1	6.5	7.1	14.9
안전성	32.1	23.6	19.4	18.1	26.7	15.8
품질(맛)	36.1	20.1	24.9	56.4	34.9	50.7
브랜드(인지도)	1.3	3.6	5.5	2.2	2.2	5.2
원산지(국산/수입)	19.4	43.8	40.3	16.0	28.2	9.8
기타(영양 등)	2.1	1.0	1.9	0.7	0.8	3.4
모름/무응답	-	-	0.1	-	0.1	0.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도시민 55.8% “국산 농축산물 안전성 신뢰 한다”

- 도시민 55.8%가 국산농산물 안전성을 신뢰한다고 응답하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8%에 그쳐 높은 신뢰도를 보임.

### 국산 농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정도(도시민)



- 농업인은 수입농산물에 비해 국산이 훨씬 안전하다는 응답이 77.9%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자신이 생산하는 농산물 안전성에 대해 30.5%는 90점 이상으로, 47.6%는 80점~89점으로 평가함.

- 10농가 중 4농가는 “친환경 농업 실천하고 있다”
  - 친환경농업을 실천한다는 농업인은 42.3%, 실천할 예정이라는 농가는 24.9%로 나타남.
  - 친환경농업 도입시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30.1%)과 ‘환경문제 해결’(21.6%)을 꼽았음.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지 않는 28.5%의 농가는 그 이유로 ‘소득감소 우려’ 36.5%, ‘관행농법에 익숙해 전환에 어려움’(30.2%)을 꼽았으나, 26.4%는 기술과 자재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어 기술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농업인, 농축산물 품목에 따라 출하전략 차별화
  - 농업인이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채소와 곡물은 ‘가격’, 육류는 ‘안전성’, 과일은 ‘품질(맛)’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대체적으로 도시민의 구매조건을 반영하고 있음.
  
- 수입쌀과 미국산 쇠고기 ‘구매 기피 뚜렷’
  - 수입식품 구입 의향에 대해 수입쌀 6.2%, 미국산 쇠고기 10.6%, 호주산 쇠고기 19.0%, 수입과일 21.4%, 수입 가공식품 14.5% 등으로 나타남.
  - 논란이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70.5%로 수입쌀(76.1%)에 이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수입식품 구입 의향(도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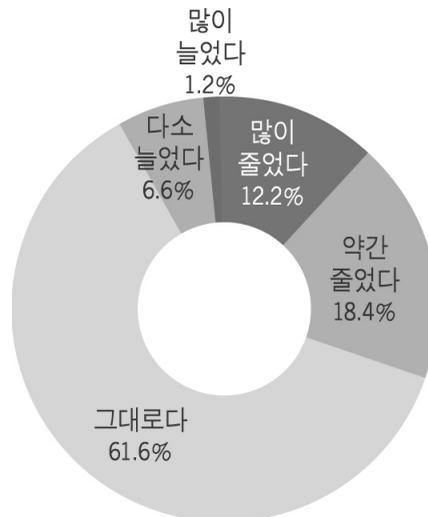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수입 쌀	수입 쇠고기			수입과일	수입 가공식품
		(미국산)	(호주산)	(기타국가)		
매우 많다	1.2	1.8	2.7	1.1	2.4	1.6
많은 편	5.0	8.8	16.3	6.4	19.0	12.9
보통	17.8	19.0	37.7	27.0	45.4	41.7
없는 편	27.5	26.7	22.3	30.2	18.7	24.5
전혀 없다	48.6	43.8	21.0	35.2	14.5	19.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도시민 10명중 3명 “쇠고기 협상 파동 이후 한우 소비 줄었다”

- 쇠고기 협상 파동 이후 한우 소비가 ‘줄었다’는 응답이 30.6%로 나타났고, ‘늘었다’는 응답은 7.8%에 그쳐 한우 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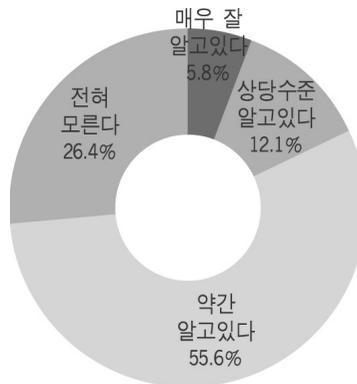
## 한-미 쇠고기 협상파동 이후 한우소비량



- 한우 소비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수입육과 한우를 구분할 수 없어서’(36.2%), ‘쇠고기 먹기가 꺼려져서’(35.6%) 등으로 응답함.

- 도시소비자 ‘원산지 표시’ 의존도 높다
  - 식품구입시 원산지를 꼭 확인한다는 응답은 74.6%로 높게 나타났고, 원산지 표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45.4%가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1.4%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함. 33.0%는 평가를 유보하였음.
- 도시민 78.5% “친환경농산물 구입한적 있다”
  - 도시민 78.5%가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 본 경험이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이유는 ‘안전과 건강을 위해’(83.8%)를 1순위로, ‘영양가가 높을 것 같아서’(23.6%)를 2순위로 꼽았음.
  - 반면, 높은 관심에 비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해는 낮은 편으로 인증단계를 ‘상당수준 알고 있다(매우 포함)’는 응답은 17.9%에 그쳤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26.4%로 나타나 이해가 낮은 편임.

친환경농산물 인증 내용에 대한 인지와 이해정도(도시민)



-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에 대해서는 도시민 과반수(50.2%)가 신뢰한다고 응답하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8%로 집계됨.
- 국산 유기농산물 신뢰도 78.1%, 수입산 1.8%
  - 도시민들의 국산 유기농산물 신뢰도는 78.1%, 수입 유기농산물 신뢰도는 1.8%로 국산 유기농산물 신뢰도가 압도적으로 높음.

## 2.4. 농촌복지와 환경에 대한 인식

- 농촌생활 어려움 ‘낮은 소득’과 ‘과중한 노동’이 주요인
  - 농촌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낮은 소득’(50.6%), ‘과중한 노동’(27.8%), ‘부족한 문화시설’(6.6%) 등을 꼽았음.
  - 농촌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는 ‘농촌주민의 교육과 건강증진 시설 확충’(28.1%), ‘농촌지역 사업체에 투자확대’(27.8%)를 꼽았음.
  -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할 복지분야는 ‘노인복지’(60.8%), ‘저소득층 복지’(22.8%)를 대표적으로 꼽았음.
  
- 거주환경과 삶의 질 만족도 도-농 ‘뚜렷한 격차’
  - 농업인 30.0%가 현재 거주 여건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도시민은 49.8%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19.8%p의 도-농 격차를 보였음.

### 거주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2008년 KREI		2006년 KREI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매우 만족	7.0	2.1	2.8	2.8
만족하는 편	42.8	27.9	36.4	22.6
보통	39.3	53.5	46.7	54.5
불만족하는 편	10.0	13.5	13.1	14.4
매우 불만족	0.9	2.0	1.1	2.7
모름/무응답	-	1.0	-	3.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인식에서도 농업인 13.1%가 삶의 질이 높은 편이라고 인식해 도시민의 19.3%에 비해 6.2%p 차이를 보였음.
- 2006년 조사결과에 비해서는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주거환경 및 삶의 질 만족도가 10% 미만에서 상승하였음.

○ 도시민, 농촌 복지 예산 증액 찬성 73.3%로 높은 지지율

- 농촌지역에 ‘특별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 도시민은 85.6%로 나타났고,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4%에 그쳤음.
- 농촌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73.3%가 찬성했고, 반대는 3.9%에 그쳐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음. 찬성비율은 2006년 조사결과보다 2.1%p 소폭 하락함.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증대에 관한 견해(도시민)

단위: 명, %

구 분	2008년 KREI		2006년 KREI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찬성	304	20.2	193	12.9
찬성하는 편	800	53.1	938	62.5
보통	343	22.7	319	21.3
반대하는 편	48	3.2	46	3.1
매우 반대	10	0.7	4	0.3
모름/무응답	3	0.2	-	-
합 계	1,508	100.0	1,500	100.0

-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는 ‘아플 때 교통수단 지원’(43.9%), ‘생활비 지원’(37.1%) 등을 꼽았음.

○ 고령농업인 ‘생활비’, ‘아플 때 교통수단’ 지원 가장 필요

- 고령농업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는 ‘아플 때

교통수단 지원’, ‘생활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꼽았음.

- 농촌에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해야할 선진복지 정책으로는 ‘농촌실정에 맞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38.9%),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상향조정’(16.4%), ‘치매노인 복지시설 확충’(11.3%)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음.

## 2.5. 농업·농촌 생활 전반에 대한 농업인 의식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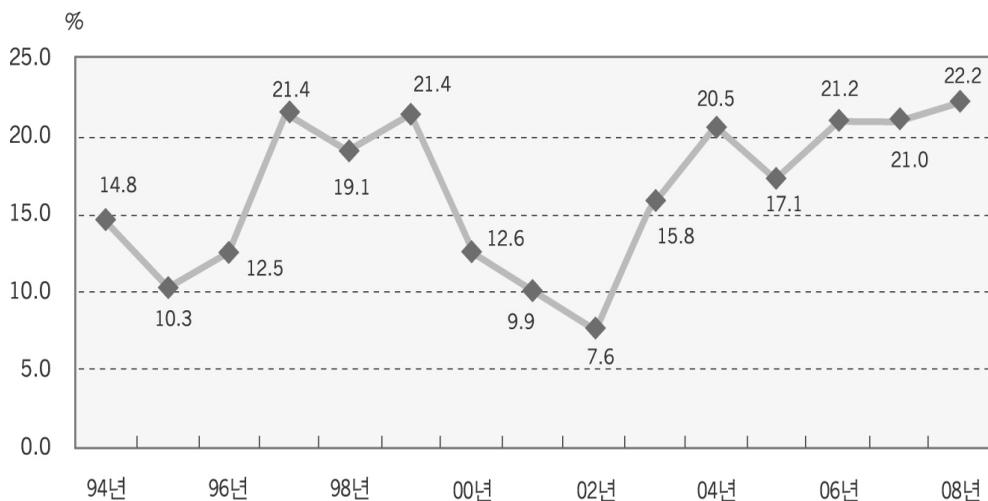
○ 농촌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년전보다 6.2%p 상승

- 농업인 22.7%는 현재 농촌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불만족한다는 36.8%의 농업인 중 53.4%가 생활환경과 의료시설 등 복지미흡을 이유로 꼽았음. 교육여건도 10.2%로 꼽았음.

○ 농업종사 만족도 22.2%로 꾸준한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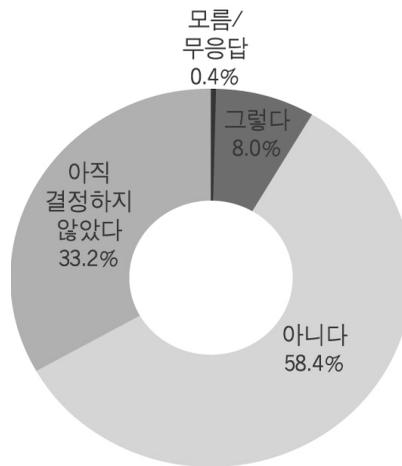
- UR 출범 이후 등락을 거듭해 오던 농업 종사에 대한 직업만족도는 2002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반전해 2008년도에도 22.2%로 20%대를 유지하고 있음.

UR출범 이후 농업인의 직업만족도 변화 추이(만족 응답)



- 불만족 한다는 43.6%의 농업인은 불만요인으로 ‘노력에 비해 낮은 보수’(44.8%)와 ‘수입개방으로 장래불안’(24.8%)을 가장 많이 꼽았음.
- 농업인 자녀 영농 승계 의지 약해
  - 자녀에게 영농을 ‘승계할 의향이 있다’는 농업인은 8.0%에 그쳤고, ‘승계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58.4%,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33.2%로 나타나 영농 승계 의지가 약한 것으로 나타남.

자녀 영농 승계 계획 의향(농업인)



- 영농을 자녀에게 승계할 의향이 없다는 농업인은 은퇴 후 농지를 매각(21.1%), 임대(27.5%)할 계획으로 나타났고,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9.3%로 나타남.

### 3. 시사점

- 이번 조사를 통해 도시민과 농업인의 정책수요는 확대되고 있는 농산물 시장 개방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식품공급과 휴식공간으로서의 농업·농촌이 유지되길 바라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농업인은 최근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영농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작목 전환 등을 위한 기술지원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중요성 인식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납세자로서의 직접 지원 의지는 매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에 대한 홍보도 강화되어야 할 것임.

